검소한 여행 · 알찬 서비스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 앞) 종로구 수송동5번지 동일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현대불교

人蔘의 약효!
원비·디®

회장:노대행/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편집국장:최정희/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7-069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5월 6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173호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이은숙씨(42세)는 하루 매상을 마감하는 저녁시간이면 올 초부터 불어닥친 경제한파를 실감한다.

종로에서 음식점 한우촌을 운영하는 이씨의 이같은 생각은 매상이 떨어지는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씨의 금전출납부에 '보시'란 두 글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7년전 한우촌을 개업할 때 일이다. 한달 평균 2~4명 정도 밥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당

「밥보시 출비」



황스럽기도 하고 기분도 언짢았다. 쓸데없이 돈이 나간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루는 무전취식객에게 이런 저런 생각에 분을 삭이지 못해 하대하고 쫓아내려고 했다. 이때 손님중 한 사람이 "사장님, 벽에 걸린 액자를 보니 불자 같은데 배고픈 사람이 찾아오면 보시를 해야지 부처님의 가피를입지요"라고 말했다.

강서 성북구 대법사 신도였던 이씨는 손님의 일갈을 큰 법문으로 받아 들였다. 그날부터 배고픈 사람들에게 언제나 밥을 나눠주며 금전출납부에는 '보시'라고 표시하기 시작했다.

실직자와 부랑자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에는 매일 5~7명이 찾아와 배고픔을 호소한다고 한다. 작년보다 2배 늘어난 숫자다. 그러나 이제는 당황하거나 하대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한 밥과 말로써 이들을 위안해주고 있다.

며칠전에는 한 아주머니가 두 자녀를 데리고 찾아왔다. 첫눈에 밥값이 없어 보였지만 반갑게 맞아 식사를 냈다. 잠시후 이씨의 눈은 눈물이 가득해졌다. 이들 세 사람이 5인분의 식사를 게눈감추듯이 먹는 모습 때문이다. 그리고 이씨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나는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지만 '보시'라는 글자만은 매일 쓸 자신이 있다"고 부처님께 다짐했다.

"실직자나 노숙자가 내 주변에 이렇게 많다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이들이 남의 닥을 입지않고 한끼 식사라도 당당하게 할 날이 오길 염원하며 초파일날 등을 밝혔습니다."

오늘도 이은숙씨는 하루중 가장 바쁜 점심시간을 보내고 나면 어김없이 주방에 들어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밥, 반찬 등을 챙겨놓고 있다. 〈오종욱 기자〉

구독료납부 온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불기 254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3일 전국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는 1만여명의 불자들이 참석,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과 청정이 온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했다.



◇4월29일 오후7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김대중 대통령이 관욕의식을 봉행하고 있다. 법회에는 불교계 각 종단 지도자와 한승헌 감사원장서리,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조세형 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서석재 정각회장, 박상규 국민회의 부총재, 박철언 자민련 부총재, 이해찬 교육부장관, 강인덕 통일부장관, 신낙균 문화부장관, 김성훈 농림수산부장관 등 정관계 인사를 비롯 1천6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慈悲喜捨 실천하자"

3일 조계사등 전국 사암서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불기 254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3일 오전 10시 서울 조계사를 비롯 전국의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서른세번의 타종에 이어 삼귀의 반야심경 관불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조계사 법요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석주스님과 총무원장 월주스님, 교육원장 암도스님, 포교원장 성타스님, 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 등 종단지도자와 서석재 국회정각회장, 박상규 국민회의연등회장, 박철언 자민련불자회장, 고건 전총리, 김명윤 권익현 추미애 의원 등 정관계 인사, 캄보디아 승정 뱁퐁스님, 주한 인도대사, 송석구 동국대 총장, 중앙신도회 명호근부회장, 민병천 서경대총장 등 사부대중 1만여명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다.

법요식에서 월주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인류에게 큰 고통을 주는 몇 가지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며 "이념의 갈등, 소유의 격차, 환경파괴로 인한 재앙, 남북 분단 등의 당면한 문제들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실천하여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법요식에서는 남북한 및 해외불교도를 대표해 지난 3월 종단협의회와 조선불교도연맹이 합의한 공동발원문이 발표됐다. 발원문에서 남북불자들은 "분열의 고통과 대결의 역사를 극복하고 통일조국, 지상정토를 실현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용맹정진 할 것"을 다짐했다. <발원문 전문 본지 167호 3면> 공동발원문은 남북한과 해외에서 봉행된 봉축법요식에서 동시 발표됐다.

〈임연태 기자〉

부처님오신날 모범수 319명 가석방

법무부는 부처님오신날을 하루 앞둔 2일 모범 수형자 3백19명을 가석방했다.

이번 가석방에서는 이례적으로 무기수 3명과 징역 10년이상 장기수 29명이 포함됐다. 또 각종 기능자격 취득자 97명과 검정고시 합격자 28명, 기능대회 입상자 12명 등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과 관련 "부처님오신날을 경축하는 의미에서 무기수·장기수를 이례적으로 가석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합으로 국난극복"

여야 3당 봉축 성명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국민회의 자민련 한나라당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부처님의 화합중생의 가르침과 호국불교 정신의 발현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화합의 정신으로 다시한번 일어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초파일 휴무관계로 다음주 신문 쉽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지금의 어려움 이기고 다시 도약"

김대통령 봉축 메시지

김대중 대통령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봉축메시지와 불교방송 개국 8주년 축하메시지를 각각 발표했다. 김대통령의 봉축메시지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발표된 것이다. 다음은 김대통령 봉축메시지 전문.

오늘은 부처님이 오신 날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시며 인간존중의 참 뜻을 강조했던 바로 그 날입니다. 부처님은 2천5백여년 전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여 고난 속에 깨달음을 얻었고 인류의 대스승으로서 중생들을 제도했습니다.

불교는 혹독한 수행과 자기절제를 통해 이루어 낸 깨달음으로 자아를 발견하고, 나아가서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아 많은 시련 속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큰 힘이 되어, 우리가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고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희망의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지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합니다.

자비로운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이, 어려울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 온 우리 국민의 어깨를 어루만져주고 힘을 더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아픔을 함께 하고 불교계가 보여준 '빈자일등'의 정신으로 당면한 국난을 헤쳐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불교를 비롯한 우리 종교계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서로 화합하여 함께 노력해 온 것은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종교계가 화합하고 동서가 화합하고 남북이 화합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랑스런 민족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은 밝고 따뜻한 날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불기 2542년 5월 3일
대통령 김대중

부처님오신날 특집 28면 발행

불교 지금 서구에선 10면
불교 지금 한국에선 11면
새로운 세기와 불교 12면
봉축 방장 법어 3면
금산사 개산 1400년 27면
가정의 달에 쓴 편지 23면
스님같은 신부님 26면

어떻게 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맹란자 저〉 신국판/304쪽 값 7,000원

IMF가
서민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살아서 죽음을 실감하는
오늘의 보통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의심덩어리로 다가옵니다.

"여기 그 죽음이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죽음이 또하나의 삶인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가 있다"

〈고은 시인 추천사에서〉

역사속의 빛나는 인물 100인의 죽음
- 죽기가 힘들었던 사람들/ 세네카와 네로, 장해군과 부의 외 6인
- 사라진 사람들/ 빛속으로 사라진 황제의 유해 카이사르외 9인
- 죽음과의 악수/ 사약을 독촉한 소크라테스와 송시열
  깨달음과 죽음이 남달랐던 제논과 백종선사
- 죽음 또한 자연 아닌가/ 장자, 육상산과 왕수인, 소강절과 서화담
- 죽음보다는 철저한 삶을/ 니체와 파스칼, 토마스 카알라일과 소동파
- 예술, 그 광기와 죽음/ 정신병을 앓던 모파상, 슈만, 휨덜린, 뭉크,
  에드가 앨란 포우와 보들레르, 까미유 끌로델과 나혜석
- 희려한 멸성, 처참한 최후/ 칼레오파트라와 민비, 루미인과 양귀비, 사도세자와 소현세자
-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불교의 죽음관
  목련존자와 혜가, 공초 오상순과 망관선사, 마니 태제사

도서출판 세훈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전화 : 3462-2277 팩스 : 3462-2279

지금은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옷을 입읍시다.

우리옷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의 최일선에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단체복주문시 (30인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승복 · 유치원 · 사원복 · 음식점 유니폼 · 도복)

◐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

▶ 문의처 02)3461-8552~3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 02)732-8552

사 설

불교언론인의 사명

우리나라의 언론을 이끌어가는 신문·방송 언론인들의 전국적인 신행단체가 출범하였다. 지난 1일 불교방송 법당에서 "한국불교언론인회"가 창립법회를 가진 것이다. 우리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인 불자 지성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깊은 일이다. 우선 이번 언론인 불자들의 결속을 환영하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오늘날 언론의 힘은 대단하다. '제4의 권력'이라고 할 만큼 국가와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특히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됨으로써 언론매체들이 갖는 정보전달의 효과와 과장은 상식을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시대에 언론계의 지성불자들이 신심과 친목을 다지면서 불교발전을 위해 현신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우리 언론인불자들의 이러한 호법·호교적 서원에 바탕을 둔 범종단적 차원의 활동에 큰 기대를 걸지 않을 수 없다. 불교를 호지하고 불교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번 한국불교언론인회의 결성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

첫째, 언론포교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불교포교에 앞장서길 바란다. 오늘날 정보매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의 생산·저장 및 분배를 담당하고 있다. 이 정보매체를 이끌어가는 언론불자들은 어느 직업에 종사하는 불자들 보다 대중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크다.

둘째, 여론주도를 담당하는 사회지도자로서 수행을 통한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정도사회건설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불교윤리가 언론계에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며, 바로 행동하며, 바르게 생활하고, 바르게 노력하고, 바른 염원으로, 바르게 집중하는 팔정도의 실천을 보급시키는 사업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불교를 호지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불교를 비방하거나 특정종교 편향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종교적 갈등·대립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의 종교 편향정책으로 말미암아 불교가 많은 피해를 받아온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잘못된 정보의 생산과 유통으로 불교계가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교의 왜곡과 탄압에 대해 불자언론인들이 올바른 비관정신으로 잘못을 일깨워주고 바로잡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언론의 공익성·공공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다.

넷째, 불교계의 국가지도자들을 키우고 불교문화예술의 창달에 견인차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오늘날 정치가 가정의 부엌살림까지 파고 들고 있다. 정치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따라서 올바른 정치 지도자들의 양성은 어느 분야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올바른 정치인과 문화예술인들이 불교계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에 알맞은 전륜성왕의 출현으로 민주통일정토가 구현될 수 있도록 인재의 발굴과 양성에 힘을 모아주었으면 한다.

다섯째, 다른 직능불교단체등과 연대하여 범종단적인 차원에서 한국불교의 현실진단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계각층의 불교신행단체들과 연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서로서로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국립공원 환경우선 관리

환경부 개발억제 '국민학습장' 활용
공단직원 사법권 부여 범칙행위 단속

국립공원이 자연환경보존 중심으로 관리되고 관리재원도 국고에서 지원된다. 또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들이 사법권을 부여 받아 28일 사법경찰 발대식을 갖고 쓰레기 투기등 범죄행위 단속에 나섰다.

환경부는 4월23일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풍경지와 생태계의 보고이므로 공원자원과 생태계의 보전기능을 강화하여 자연환경보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관광 위락지가 아닌 국민의 진정한 학습장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탐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보전하고 인공시설은 최소한의 편의시설과 보호시설로 한정하는 한편 공원탐방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국립공원 종합탐방안내소 설치를 확대해 공원이용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안내책자 팜플렛등을 발간해 탐방객의 편의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공원 집단시설지역의 개발은 억제하고 편의 시설은 확대한다는 지침아래 각 국립공원은 성수기 행락인파 예고제 및 예약제 실시, 전산망을 통한 공원이용객 관리, 자연휴식년제 확대 등의 세부 계획도 수립했다.

한편 국립공원 지역내에서의 불법 오물투기 행위나 각종 범죄 행위를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법경찰 활동이 시작됐다. 4월28일 도봉산 국립공원에서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 사법경찰은 모두 113명이며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으로 구성됐다. 각 공원에 4~10명씩 배치된 사법경찰은 공원내에서 오물방치 자연훼손 음주소란등 19가지 범칙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환경부의 자연보존 중심의 공원관리 방침에 대해 교계와 공원내 사찰들은 적극 환영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의 활동과 관련 사법경찰이 자칫 공원내 사찰의 자율적인 종교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대한 사찰과 당국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요망된다는 지적이다. 〈임연태 기자〉



◇2003년 지상12층 지하2층으로 완공될 동국대부속 불교종합병원 투시도

동국대병원 16일 기공
벽돌 1장 동참운동 전개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16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병원건립부지 현장에서 불교종합병원 기공식을 갖는다.

동국대는 이날 기공식에서 병원건립 재원 확보를 위한 '자비의 벽돌 한 장 동참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김병조·홍진경씨의 사회로 국악인 신영희씨, 가수 최진희 설운도 김흥국 H.O.T 이지훈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서로 협력 존중 인류에 희망주자"
교황청 봉축메시지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로마교황청 종교간대화평의회 의장 프란시스 아린제 추기경이 경축 메시지를 발표했다.

프란시스추기경은 메시지를 통해 "저마다 영적인 길에 정진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불자들은 함께 협력함으로써 인류에게 더 큰 희망을 줄 수 있다"며 "우리의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상호 존중과 진정한 사랑을 서로 보여 주어야 하며 이것은 인류를 위한 희망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엄사·마곡사 차기주지 '경선'

불국사는 경선 미지수…총무원, 송광사주지 임명 보류

조계종 제21교구본사 송광사(주지 현고) 주지 임기가 3일로 종료된 가운데 아직 후임주지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이 현 주지 현고스님을 후임주지로 추천하는 추천서를 총무원에 제출했으나 총무원은 초파일 이후로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한편 7월 1일과 19일, 29일 각각 현주지 임기가 만료되는 화엄사, 불국사, 마곡사도 5월 25일과 6월 5일, 6월 1일 차기 주지 추천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가질 예정이다.

화엄사는 명섭스님(전 천은사 주지)과 종걸스님(태안사주지) 등 2명이상의 후임주지 추천자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불국사는 문중 합의로 추천자를 추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경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7일 회의를 갖고 불국사 교구종회의원 보궐선거와 후임주지 추천문제를 논의 할 계획이다.

마곡사는 현재 진허스님(동화사 금당선원장) 능엄스님(前 마곡사주지) 등 2명 이상이 후임주지를 겨냥하고 있다.

조계종 60여 전통사찰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조계종은 60여 전통사찰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고 4월29일부터 인터넷서비스를 개시했다.

교구본사와 주요 전통사찰의 역사와 전통, 성보문화재 소개등이 수록돼 있다. 조계종은 올내 1백여 사찰의 홈피이지를 개설, 서비스할 계획이다.

주소는 temple.buddhism.or.kr

"종교간 화합이 국난극복 열쇠"

실천승가회 종교계지도자 초청좌담
"자기반성 통한 정신각성 촉구"
'연대와 화합' 공동 인식 필요

IMF체제 이후 사회적 병리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그 고통과 좌절의 시대를 사는 종교인의 자세와 역할은 무엇인가. 각 종교계 지도자들은 그 원인을 정신적 공황에 따른 사회적 가치관의 군제라고 지적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에 따른 종교간 화합을 통해 국난극복의 단초를 제시해야 한다는 대전제에 인식을 같이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불교(청화·지선스님) 개신교(김상근 대한기독교서회 대표) 천주교(함세웅 정의구현사제단 고문) 원불교(김현 사회개벽교무단 부단장) 등 각 종교계 지도자를 초청, 4월28일 조계사문화회관에서 '이 땅에 자비와 평화를…'를 주제로 한 공개좌담회를 개최했다.

'국난극복을 위한 종교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청화스님은 "다종교 사회에서 자칫 경쟁에 빠지기 쉬운 종교계가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너'와 '나'라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닌 '우리'라는 참된 화합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며 원융화합을 통한 종교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종교인들이 현실의 문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종교인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자세를 강조했다.



◇28일 열린 '이땅에 자비와 평화를…' 공개좌담회.

"자유시장경제니 자본주의니 하는 것도 사람을 살리고 약소국을 일으켜 세울 때에만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당면한 과제는 제3의 이데올로기 창출"이라고 주장했다. 김목사는 "제3의 이데올로기는 연대 이데올로기요 유기체이데올로기며 유기적 공동체이데올로기"라 규정 종교간의 연대와 화합을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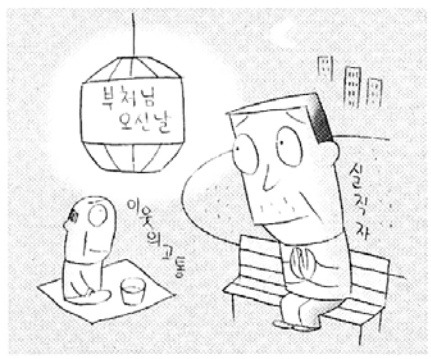
함세웅신부와 지선스님도 죽음과 소유에 대한 성직자와 수행자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도필선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항상 밝혀주소서

쌍계사 승가대학 학인모집

◐ 쌍계사 승가대학 1998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모집학과 사미과 ····· 00명
사집과 ····· 00명
사교과 ····· 00명

■ 입학자격 사미계 수계자로서 조계종 승려

■ 모집기간 수시접수

■ 준 비 물 대가사, 오조가사. 장삼, 발우, 기타 입학금 및 방부비 일체 없음
※ 교재는 사중에서 제공

■ 전형방법 서류접수후 면접

■ 제출서류 ① 승적사본 - 1부
② 각 과 수료증(편입생) - 1부
※ 승적사본 및 기타 서류는 내사 후 작성

■ 교과과정
1년 : 내전 - 치문
외전 - 불교학 개론, 불교의식, 영어회화, 서예
2년 : 내전 - 서장, 도서, 선요
외전 - 불교문학사, 불교의식, 영어회화, 서예
3년 : 내전 - 능엄경, 금강경, 원각경, 기신론
외전 - 선학개론, 불교의식, 영어회화, 서예
4년 : 내전 - 화엄경
외전 - 원시불교사상, 종교사회학, 불교의식, 영어회화, 서예

■ 교 수 진
⊙ 내전교수 ▶ 강주 : 통광스님(탄허스님으로부터 전강)
은해사 승가대학원 교수, 동국대 역경원 역경위원
현 칠불사 주지, 역서〈고봉화상선요·어록〉〈초의 다선집〉등
▶ 중강 : 월호스님
동국대 철학박사, 동국대 선학과 강사 역임
주요논문〈도원선사의 좌선관〉〈고려 혜심의 간화선 연구〉
⊙ 외전교수 ▶ 서예 : 선곡 스님(쌍계사 주지)
▶ 선학개론, 종교사회학 : 월호 스님(쌍계사 중강)
▶ 원시불교사상, 불교학 개론, 불교문화사 : 전재성
서울대 졸업, 동국대 철학박사, 독일 본 대학 강사, 동국대 강사
주요논문 - 〈초기 불교의 개급 평등론 연구〉
저서 - 〈빠알리어사전 Ⅰ(어휘편), Ⅱ(문법편)〉
▶ 영어회화 : 김승인(한국외국어대 영어과 졸업)
⊙ 특강교수 ▶ 고산 큰스님(쌍계사 조실) - 과목 : 화엄경, 불교의식
▶ 덕민 스님(전 쌍계사 강사)

■ 장 학 금 전원 장학금 지급

■ 특 전 ① 졸업후 각자 적성에 맞춰 유능한 강사(전강), 포교사, 율사, 예식종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
② 상급학교 진학시 장학금 지급

■ 문 의 처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쌍계사 승가대학 ☎ (0595)83-1906, 종무소 ☎ 83-1901

대한불교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주지 선 곡 쌍계사 승가대학 학장 통 광

불기 2542년 부처님오신날 방장법어 〈요지〉

"이름없는 풀이 병에 쓰이듯"

월하스님

〈영축총림 방장〉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참 뜻은 일체중생을 부처로 보는데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름없는 풀이 병에 쓰이면 약초가 되듯이 인생을 약초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이 시대의 살아 있는 부처님일 것입니다.

佛是自心作(불시자심작) 道亦非有爲(도역비유위)
溪美水聲遠(심계수성원) 山高月色遲(산고월색지)

부처는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며
도 또한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네
깊은 시내는 물소리가 멀리 들리고
산이 높으면 달 빛이 늦게 비춰오는 법이네

"모든 만물 한집을 이루었다"

원담스님

〈덕숭총림 방장〉



二五四二四八日(이오사이사팔일)
天下萬物共一家(천하만물공일가)
一聲天下大一聲(일성천하대일성)
萬古不滅永不昧(만고불멸영불매)

2542년 사월초파일에
천하 모든 만물이 한집을 이루었다
한 소리 천하가 크게 한소리를 이루었으니
만고에 멸하지 않고 영원히 매하지 않도다.

"사방 둘러봄은 한생각 일으킴"

법전스님

〈해인총림 방장〉



周行七步(주행칠보) 已入邪路(이입사로)
目顧四方(목고사방) 開眼尿床(개안뇨상)
指天指地(지천지지) 有甚巴鼻(유심파비)
唯我獨尊(유아독존) 圖箇什麼(도개십마)
일곱걸음 걸었다는 것은 이미 그른 길로 들어섬이요
사방을 둘러 보았다 함은 눈 뜬 자리에서 한 생각 일으킴이라
하늘을 가르키고 땅을 가르킴은 무슨 까닭이 있으며
'유아독존'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珊瑚枕上千行淚(산호침상천행루)여
半是思君半恨君(반시사군반한군)이라
산호 베게로 흐르는 천줄기 눈물이여
절반은 그대를 사모함이요 절반은 그대를 원망함이라.

"무엇이 세존의 진면목인가"

보성스님

〈조계총림 방장〉



세존은 태평시절의 간사한 도적인가
어지러운 세상의 영웅인가
둘 다 옳지 않으니 무엇이 세존의 진면목인고

塞外將軍令(새외장군령)이요 宮中天子勅(궁중천자칙)이로다
전쟁터에서는 장군의 명령이요
궁중에서는 천자의 조칙이로다

또 이르되,

丈夫自有衝天氣(장부자유충천기)하니
莫向如來行處行(막향여래행처행)하라
장부는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기상이 있으니
여래의 가신 곳을 향하여 가지마라



◇경제난 속 많은 사찰이 등값을 내렸지만 예년에 비해 적은 수의 등을 걸었다. 경제위기는 왜색등을 전통등으로 바꿔 다는 데도 어려움을 가져다 주어 대부분의 사찰이 기존의 왜색등을 다시 걸기도 했다

오랜만에 '방화없는 초파일'

사찰 燈 예년비해 줄어 IMF 실감

실직자 · 북돕기, 종교벽 허물기 '눈길'

"거리축제 이대로 좋은가" 찬반 양론

봉축결산 기자방담

36일간의 봉축기간(4월1일~5월5일) 동안 전국 불교계에서는 다양한 봉축 행사가 펼쳐졌다. 각 사찰은 경제난으로 인한 '봉축 특수'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예년에 비해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등을 밝힌 신도가 줄었다는 소식이다. 일부 사찰들은 등값을 인하하기도 했지만 등을 켜는 신도의 발길을 잡는데는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 경제난 속에 치러진 금년 봉축 행사를 결산해 본다.

○… 작년까지 봉축기간에는 서울 인근을 비롯해 적지않은 지역에서 방화사건이 있었으나 올해에는 동국대 코끼리상 장엄물이 불탄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는 화재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스러웠다.

○… 실직자와 북한동포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한 눈길을 끌었다. 각 복지단체들의 성금모금과 후원인 모집 캠페인과 봉축기간동안 이웃돕기·양로원 방문 등 행사가 풍성했던 것. 회향마당에서의 촛불기원 '함께 이겨 냅시다. 다시 일어섭시다'등 자비의 실천 의지는 축제의 마당에서 끝나서는 안된다. 불자들의 신행지침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해 나가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대불련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들의 봉축 프로그램은 상당히 의미 깊게 진행됐다. 자비실천단을 구성, 국난극복을 위한 오체투지 실시라든가 소외된 이웃과 북녘 동포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 헌혈 캠페인, 고아원등 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등은 청년불자들의 신선한 봉축의지를 십분 보여주었다.

○… 연등축제와 제등행진에 일부 사찰들이 많은 신도들을 동원해 참가 불자의 수는 예년에 비해 줄어들지 않았지만 단위 사찰들의 참여도는 낮았다. 더구나 종단협소속 전체 종단이 다 참여하지 않은 점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때문에 신도가 많은 사찰 위주로 축제가 진행된 느낌을 주어 소규모 참가 사찰들이 상대적인 위축감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 경제난으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봉축행사들이 치뤄졌지만 행사의 다양성은 기대에 못미쳤다. 봉축위가 기획한 일부 행사들은 불자들과 시민의 관심을 끌었지만 지방이나 각 단위 사찰들이 기획한 봉축행사는 의례적인 선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 위축과는 상관 없이 포교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알찬 행사 기획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 해마다 "시민들의 길을 막고 거리 축제를 벌여야 하느냐"는 지적이 대두됐듯 올해도 이에대한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일년에 한번 갖는 축제이고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더욱 짜임새 있게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시민의불편을 최소화하고 축제의 의미를 최대화 할 방안을 찾는 것은 올해도 중요한 화두로 제시된 셈이다.

○… 올 봉축기간동안 종교간의 화합을 위한 불교계의 의지가 분명하게 자리를 잡았다. 광주, 부산, 대구 등 지방에서 타종교 성직자의 강연을 마련하고 서울에서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평화방송에 출연해 부처님 오신 뜻을 설명한 것 등은 매우 성숙된 불자들의 종교관을 반영시킨 것. 이같은 불교계의 움직임은 전례 없이 대통령이 봉축 메시지를 발표하는데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연등축제에 해가 갈수록 외국인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올 연등축제에도 5백여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종로일대에서 펼쳐지는 봉축 잔치를 구경했다. 불교계와 정부가 연등축제를 특수한 관광자원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당위성을 보인 것이란 평가다.

○… 불교TV가 연등축제를 지방과 연계하며 실황 중계해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불교TV뿐 아니라 일반 공중파 방송도 연등축제를 실황 중계할 수 있도록 종단적 노력을 기울여 국민축제로서의 연등축제 위상을 다지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다.

○… 봉축위를 중심으로 '왜색등 안달기' 캠페인을 벌였지만 아직도 많은 사찰에서 왜색등에 불을 밝혔다. IMF시대에 갑자기 등을 바꾸기에 무리가 따랐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내년부터 점차 우리 전통등 달기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외국인 선호 봉축행사 놀이마당·제등행진 順

봉축위 행사동참 외국인 234명 설문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한 봉축행사는 놀이마당(100명), 제등행진(96명) 연등만들기(54명) 등이며, 봉축행사에 외국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홍보매체 다변화, 외국인 놀이마당 신설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봉축위원회가 26일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 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이번 설문지는 국적, 선호행사, 봉축정보 수렴방법 등을 묻는 총 8개문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118명) 유럽인(44명) 등이 가장 많이 참여했고 일본인 중국인 스리랑카인 등 아시아인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또 응답자중 154명이 주한 외국인이며 순수 관광객은 7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봉축행사 해외홍보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인들은 주로 신문·방송(66명), 서울시 관광정보센터(22명) 등을 통해 봉축행사 정보를 제공받은 반면 한국관광공사(6명), 여행사(0명) 등에서 관광정보를 제공받은 외국인은 아예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봉축위원회가 지금껏 봉축행사 관련 해외홍보를 의존해 왔던 한국관광공사와 여행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외국인들은 '직접 참가할 수 있는 행사' '제등행렬을 일찍 시작할 것' 등을 권유했다.

봉축위원회는 "내년에는 코리아 헤럴드, 아리랑TV 등 국내 영자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봉축행사를 관광패키지로 개발, 외국인 놀이마당을 마련하는 등 주한·해외 외국인들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축 불기2542년 부처님 오신날 · 동국대 개교92주년



1600년만에 피어나는 자비의 꽃봉오리

동국대학교 제3캠퍼스

불교종합병원 건립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는 동국대학교가
자비광명의 실천을 위해 일산신도시에 제3캠퍼스 및
불교종합병원 건립의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불교종합병원 건립은 약사여래의 12대원을 실천하는 자비도량을
구현함은 물론 나라의 위기를 구국대불사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온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의 경제위기를
이겨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건립기공식 및 축하공연

일 시 : 1998년 5월 16일(토)
기공식 15:00, **축하공연** 16:00~18:30
장 소 :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동국대 실험농장/고양 가구공단 입구)
사 회 : 김병조, 홍진경
출 연 : 신영희, 최진희, 설운도, 김흥국, 김혜연, 이지훈, 김수근, H.O.T, 태사자, O.P.P.A

행사 당일 교통혼잡이 예상되오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비의 벽돌 한장」 동참 안내
역사적인 불교종합병원의 건립을 2천만 불자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자비의 벽돌 한장」 동참 운동을 전개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문의 : 02)260-3300
입금계좌 예금주 동국학원
국민은행 068-01-0373-353
제일은행 107-10-119210
조흥은행 313-03-002943

동국대학교 불교종합병원건립행사위원회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불교진흥원 · 불교방송 · 불교TV · 불교신문 · 법보신문 · 현대불교신문 · 주간불교 · 대한불교 · 시대불교 · 고양시, 파주시 사암연합회 · 국민은행 · 제일은행 · 조흥은행

"불법대로 살때 인류 행복"

텝퐁스님 '우리는 선우'서 법문

캄보디아 불교 종정 텝퐁스님이 4월 27일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서)를 방문 특별법문을 했다. 이날 법문은 법륜스님(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의 질문과 영어·캄보디아어 통역으로 이뤄졌다.

텝퐁스님은 "불교는 인간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은 열반하셨지만 그 말씀은 남아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지까지도 상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이 지녀 계율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위해 보시하고, 참선 정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중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모든 국가가 찬탄하고, 그 가르침대로 따른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전쟁과 폭력, 환경파괴와 물질만능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스님은 설했다.

텝퐁스님은 4월 24일 한국을 방문, 연등축제와 봉축법요식 등에 참석했으며 5월1일 캄보디아로 떠났다. 〈은〉



모내기 하는 통도사 스님들

Focus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월파)는 4월30일 오전 9시부터 경내 경작지인 장발들에서 모내기 울력을 가졌다.

예년에 비해 보름정도 앞당겨진 이날 모내기 울력에는 방장 월하스님이 직접 나와 대중들을 격려했다. 모내기에는 통도사 주지 월파스님, 포교국장 원천스님, 교무국장 명현스님과 선원 강원 대중스님 50여명이 참석해 1백20 마지기의 논에 모를 심었다.

명현스님은 "경제적 어려움이 닥친 현실에 노동의 참된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승가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 모두가 분발하여 경제적 어려움 극복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도사=천미희 기자

"불법응용 사회문제 대안제시"

한국불교언론인회 초대회장 신광식씨



"그동안 언론인 불자들의 모임이 있어야 한다는 공감은 많았으면서도 잘 되지않았습니다. 일이라는게 누군가 나서야 되는 것이라 싶어 그 역할을 제가 하게된 것이고, 그저 의욕 하나로 추진해왔습니다. 언론인 불자들의 많은 협조와 함께 사부대중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5월1일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창립한 한국불교언론인회 초대회장에 선출된 신광식씨(KBS 보도국 연구위원)는 늦은 출발 만큼 많은 활동을 하겠다는 것으로 취임 인사를 했다.

"무엇보다 회원간 친목을 도모하고 각자의 신심을 심화시키는 것이 활동의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신회장은 어느정도 결속이 되면 뜻을 모으고 한목소리를 내는 힘이 길러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언론인불자회의 태동은 지난해 말 각 신문 방송사의 기자 PD 아나운서 등 언론인 불자들이 뜻을 내 발기하고, 때마침 조계종이 여의도에 언론 정치 경제인들의 교류의 장으로 불교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추진이 가속화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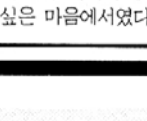
"급변하는 현실과 그 현실이 던지는 수많은 문제들은 언론인불자들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구현하는 대승적이고 대중적인 신행활동을 펴나가겠습니다."

신회장은 한국불교의 허약한 요소가 불자들의 신행에 대한 자신감 결여와 과거 틀에 얽매어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 하면서 불교언론인회는 올바른 신행방편을 정립하고, 그것이 불교교단 내외의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위영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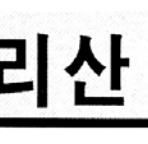
교 차 로

효성 가톨릭大서 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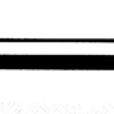
철웅 성전암 조실은 12일 대구 효성 가톨릭대학교에서 '무한성의 구현'이란 주제로 강연한다.

법보신문 창간 10돌 행사



설조 법보신문 발행인(불국사 주지)스님은 11일 오후6시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법보신문 창간10주년 기념리셉션을 갖는다.

경찰청서 초파일 법요식



자우 경찰청 경승실장(금강사 주지)스님은 4월30일 경찰청 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

잠실 고려선원 개원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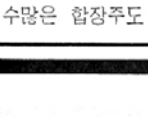


영산 잠실 고려선원장 스님은 3일 프랑스대사 부부등 20개국 주한 외국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잠실 고려선원 개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

혜은 마포경찰서 경승실장(마포사암연합회장) 스님은 4월28일 마포경찰서에서 '98 부처님오신날 기념 및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봉행했다.

불교방송에 기금 1억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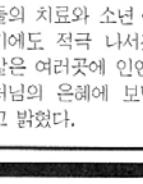
손현수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장(불교방송 이사)은 4월24일 불교방송 활성화를 위해 협찬금 3억원 중 1차로 1억원을 전달했다.

무주군 단체장 선거 출마

백왼승 새전북 포럼 여성위원은 오는 6월 실시되는 무주군 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한다. 백씨는 민불련 창립운영위원장이며 불교인권위사무처장인 박강희씨의 부인이다.

시민들 희망 갖기를…

시청앞 연등만든 진철문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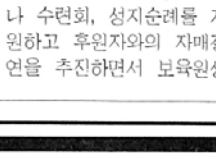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화사한 연등을 보고 부처님의 자비를 느끼고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 시청앞에 총 높이 8.5m, 폭 6m의 커다란 연등을 두동실 띄운 조각가 진철문씨(한국조형연구소 대표). 진씨가 2개월여 동안 제작한 연등은 108개의 대형 꽃잎 하나하나의 모양과 각도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금방 개화한 듯한 아름다움으로 서울의 밤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숙〉

"마음 닦아 깨끗한 사회 구현"

감사원불자회 초대회장 이금복씨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회가 청정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일 감사원불자회 창립법회에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이금복씨(60세·감사원 공보관)는 같이 신행하는 법우들과 친목을 도모하고 불교의 사회화로 사회봉사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감사원의 업무상 직원출장이 많은점도 있지만 정기법회를 월례화하여 신행을 활성화하고 교리공부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이회장은 밝혔다.

이회장은 불자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행정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행하겠다고, 또 감사원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불법에 기반하여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깨끗한 공직사회가 이룩되도록 감사원불자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고국경제에 보탬 됐으면…"

부산서 모임가진 재일교포 김정자씨



"고국이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번 중앙위원회 회의를 부산에서 갖기로 한 것입니다"

재일 대한민국부인회 중앙회장 김정자씨는 3백50여명의 회원들과 부산을 방문, 4월28일부터 5월3일까지 중앙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김회장은 당초 회의를 미국에서 가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산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고국의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3백50여명이 5일간 머물면서 관광과 쇼핑을 하게되면 우리나라에 다소나마 이익이 생기지 않을까요."

독실한 불자인 김회장은 부산 자비사(주지 삼중)와 봉사단체인 동심회(회장 천재숙)의 환영 속에 입국해 중앙운영회 회의와 사찰참배, 쇼핑 등의 일정을 마치고 3일 귀국했다. 〈태〉

"부처님 빛 갚을 수 있어 감사"

군법당 화주불모 이지성심보살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기를 좋은 인연 만나서 빚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4월24일 3사관학교 군법당 기공식에서 '군법당의 불모'로 통하는 이지성심보살(71세·심우회원)은 연신 눈물을 쏟으며 자신이 화주가되어 부처님을 모실 수 있도록 해준 모든분들께 감사했다.

이번 3사관학교 군법당에 삼존불과 후불탱화를 화주한 이보살은 12사단 종불사 9사단 군법당 건립불사와 장병들에게 수많은 합장주도 보시해왔다.

이보살은 "군장병들에게 할 수 있다면 떨어진 단추 하나라도 달아주고 싶다"라며 "지난세월 쌓인 업장을 다 녹일 수 있도록 보시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의 치료와 소년·소녀가장돕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이보살은 여러곳에 인연을 맺어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고 밝혔다. 〈원〉

결손가정 아이들의 참된 벗

어린이날 복지장관상 홍자운법사



"앞으로도 지역 보육원 원생들과 결손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아 충북 혜능보육원에서 '어린이날 유공자 포상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청주 관음사 홍자운(34) 상임법사. 4년전부터 어려운 청소년들을 돌보겠다는 원력을 세워 충북 혜능보육원과 대전 자혜원 등의 후원인이자 법사로서 생일법회나 수련회, 성지순례를 지원하고 후원자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면서 보육원생들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홍법사는 "장학복지재단을 설립,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법사연합회를 통해 법사가 필요한 곳에서 포교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0431)56-6254 〈재〉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개인모금 총액 681,000원(45명) △한 주 한끼굶기 975,000원(67명) ●나진 선봉시 북녘 어린이 결연 △개인결연 4,565,380원(49명) △정토포교원 아니룻다 일요팀 110,000원 정토포교원 청년회·승만회·대불련 서울지부 공동 모금액 534,960원

〈4월29일 현재 총 999,415,812원〉

·후원금 접수 (02)3672-5373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지리산 대화엄사 개금불사 모연문

화엄사는 백제성왕 22년(544)에 인도스님이신 연기조사께서 창건이후 3천 승려가 살면서 화엄종찰로서 명성을 이룩했으며, 자장율사, 원효성사, 의상조사와 더불어 도선국사, 의천국사께서 중건 중수하시면서 8원 81암자의 화엄불국세계인 대화엄사는 임진왜란때 소실된 후 벽암스님은 문도들에 의해 대웅전등 몇몇 전각을 중건하셨고 각황전은 계파선사께서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러 왔습니다.

본사 대웅전의 삼존불과 더불어 각황전의 삼존불·4보살 및 원통전, 명부전의 보살상은 원만한 덕상과 단아한 종호가 가히 비길데 없는 거룩한 존상이오나 개금의 연대가 너무 오래 되어서 퇴색하고 남루한 지경에 도달 되었으므로 부처님을 시봉하는 사문으로서 눈물겹고 부끄러움이 더할 뿐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지키고 불상을 금으로 단장하면 좋은 의식주를 얻으며 타인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며 높은 관직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불상을 장엄한다는 것은 곧 자기의 내면에 존재하는 청정법성을 장엄하는 것이며 개금으로 공양하는 것은 자신의 미혹함과 어리석음을 제거시키는 커다란 행원일 것입니다.

이 불사를 기어이 성취하여 부처님 은혜와 시주님의 은혜를 회향코자 하는 굳은 신념으로 불자님들께 간절히 호소하오니 다같이 청정법석에 동참하시여 무량 무변한 공덕이 성취되시도록 기원 하나이다.

1998년 3월 일

● 개금불사기간 : 2542년 1월 1일 ~ 5월 31일
● 회 향 일 시 : 2542년 6월 10일



◆ 개금불사예산액 ◆

법당명	부처님명	크기	소요예산액
대웅전	비로자나불	9.3자	21,000,000
〃	노사나불	9.0자	19,500,000
〃	석가모니불	8.5자	17,400,000
각황전	석가모니불	12.0자	37,000,000
	아미타불	10.5자	27,000,000
	다보여래	10.5자	27,000,000
	관세음보살	9.7자	18,000,000
	보현보살	9.7자	18,000,000
	문수보살	9.7자	18,000,000
	지적보살	9.7자	18,000,000
명부전	지장보살	5.0자	6,000,000
원통전	관세음보살	4.0자	5,000,000
계	12위		231,900,000

※ 전체 7회 옷칠 개금

■ 재무실 ☎(0664)782-0015, 원주실 782-0016
■ 종무소 782-7600 FAX 782-7601
· 은행온라인 : 광주은행 734-127-000740 (화엄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 엄 사**

주 지 국종열
신도회장 최종대 합장

우리 모임에선

불다클럽 국난극복법회

불다제주중앙클럽(총회장 홍재만)은 25일 제주 오리엔탈호텔 2층연회장에서 중원스님(관음사주지) 신구범제주지사 우근민전지사 고봉식제주관광전문대학장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난극복과 도민의 안녕을 위한 기원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서 홍재만회장은 "우리 모두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 서로 베풀고 질서와 법도를 따르며 참고 용서하는 불교정신으로 하나가 되자"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진관스님 출소법회

서울구치소 불심회(회장 임장수)는 9일 오후 4시 조계종총무원 1층법당에서 진관스님 출소회향법회를 개최한다.

설조스님(불국사주지)이 법문할 예정인 이날 법회에는 전국교정인불자연합 경기지부회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진관스님은 이날 참석하는 사부대중들에게 친필 학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0343)23-6107

세무사불자회 초파일 특강

세무사불자회(회장 송호승)는 8일 오후7시 서초동 마하연포교당에서 초파일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서윤길(동국대 불교학과)교수가 '불교유식학'을 주제로 강의한다.

한편 세무사불자회는 15일 국세청보리회와 칠보사에서 공동법회를 가졌다. '상호업무를 유기적으로 하자'는 취지로 열린 이번 합동법회는 4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불제자로서의 우의를 다졌다. 두 단체는 앞으로 합동법회를 정기적으로 갖기로 했다. (02) 585-3577

국립의료원 아기부처 봉안

국립의료원 불교법당법우회(회장 황영희)는 28일 4층 당뇨교실에서 입원환자 자원봉사자 불교자원봉사연합회 합창단원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꽃으로 장식한 아기부처님을 봉안하고 봉축법요식을 가졌다.

이날 법요식에서 지도법사 혜인스님은 "부처님처럼 우리가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모두 함께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며 "어려울수록 성숙되는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한 보살행을 실천하자"고 달했다. 〈명예기자=이희명화〉

불광사 거사림 노인잔치

칠곡 불광사거사림회(회장 이봉광)는 4월 26일 부처님오신날 봉축 노인위안잔치를 개최했다. 거사림회는 이날 관내 경로당과 양로원등에 거주하는 5백여명의 노인들을 초청 음식을 공양하고 염주 수건등 선물을 보시했다.

영·호남 '화합의 전파' 띄운다

KBS 불자방송인 10일 쌍계사서 법회
본사·지역국 유대 강화·국민화합 기원

영·호남 방송인 불자 화합법회가 열린다.

KBS 불교연구회(회장 김학선)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0일 하동 쌍계사에서 영·호남 방송인불자 화합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KBS 본사를 비롯하여 영·호남지역 KBS 부산 대구 창원 진주 포항 광주총국 목포 남원 김제송신소와 민영방송사 불자 방송인들이 대거 참석한다.

지역화합법회는 불자방송인들이 함께 정진하며 단결력을 공고히 하여 불심을 모으겠다는 것, 특히 본사와 지역국 직원간의 우의와 단합을 다지고 영·호남 연대강화를 통한 국민대화합을 기원하겠다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KBS불자회는 3년 전부터 방송인 불자회의 권역별 연합법회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에 불교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원주 치악산 상원사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본사와 지역국간 합동법회는 미창립 지역국 창립의 발판이 되고 회원간 유대는 물론 업무의 상호연대 강화로 이어져 방송국 발전에도 영향을 미쳐 공사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BS불교연구회는 현재까지 20개 지역국에 불자회를 창립해 조직을 강화했다. 특히 권역별법회에는 지역의 민영방송도 참여하여 전국방송인불교연합회의 단위조직 결성에도 큰 성과를 거둘 전망이다.

김학선회장은 "이번 행사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하나되는 국민의 대화합을 이루자는데 있다"며 "지역기반을 탄탄히 하여 방송계뿐 아니라 전국적인 불교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불법 따르는 깨끗한 공직자 서원"

감사원불자회 창립

회원 120명 보살행 다짐

감사원불자회(회장 이금복, 감사원 공보관)는 28일 감사원 신관대회의실에서 김동대 감찰관 신상두 신동균 감사위원 안법일 사무총장등 차관급 인사 9명등 1백2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법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정신을 실천하고 불자로서 신심을 두텁게 한다'는 취지로 결성된 감사원불자회는 앞으로 매월 정기법회와 분기별 불우이웃돕기, 사찰순례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이날법회에서 이금복 회장은 인사말에서 "불자회를 창립하는 좋은 시절인연을 만나게돼 기쁘다"며 "회원들에게 부처님의 대자대비정신이 골처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장인터뷰 4면〉

지도법사로 추대된 도문스님(대각사 조실)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이 나도 있다는 믿음을 갖고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마음을 잠깐이라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불자회 창립준비위는 26일 안산소년원을 방문하고 소년원생들을 위문했다.

한국불교언론인회 창립

전국신문방송 언론인 참가…초대회장 신광식씨

전국의 신문 방송사 언론인 불자들은 신심과 친목을 다지며 한국불교의 현실직시와 미래를 제시할 한국불교언론인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에 신광식 KBS연구위원을 선출했다. 〈관련 인터뷰4면〉

5월1일 불교방송 대법당에서 열린 창립법회는 회칙을 통과시키고, 고문 지도위원을 추대하는 한편 임원을 선출했다.

창립법회에서 월주 종단협의회회장은 법어를 통해 "급변하는 현실은 언론인 불자들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구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태고, 천태종 총무원장과 진각종통리원장, 국회정각회장은 각각 축사를 통해 "언론인 불자들의 활약이 불교교단 내외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부회장에는 유자효 SBS보도국장, 이계흥 前문화일보편집위원, 강신철 경향신문부국장, 최정희 현대불교신문편집국장이 선임됐다.

탐방 **광주불교운전자회**

친절·봉사 으뜸 '거리의 포교사'

92년 5월 창립…회원 80명
지역행사에 차량지원

"우리 불자들은 아상을 버리고 자기자신을 한단계 낮춰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부처님의 올바른 법을 수지할 수 있어요."

15일 광주 무각사 대웅전에는 60여명의 광주불교운전자회(회장 김용문) 회원들이 모여 지도법사 광민스님(무각사주지)의 법문을 듣고 있다. 법회가 끝나고 운불회 회원들은 10일 광주불자교사모임이 무등산 일대에서 펼치는 환경정화운동에 참석하여 자원봉사하기로 한 계획을 짜느라 분주하다.

봉사활동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광주불교운전자회는 지역내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교통정리를 해주고 차량봉사도 서슴치 않고 있다.

특히 광주를 찾는 불자들을 가장 반갑게 반기는 것은 광주불교운전자회의 회색빛 제복. 유기근 총무가 직접 도안한 회색제복에는 卍자 마크와 불교운전자회 명찰이 선명하다. 불자회회원 80여명 전원은 이 제복을 착용하고 있다. 그런만큼 친절은 두말할 나위없다.



◇광주불교운전자회는 15일 정기법회를 갖고 5월 봉사활동 계획을 확정했다.

1992년 5월 '달리는 법당, 자비의 봉사자'를 천명하고 창립된 광주불교운전자회는 매월 셋째 수요일 무각사에서 정기법회를 갖는 것을 비롯하여 연 2회 수련대회와 불우시설 방문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불교운전자회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총재스님을 추대키로 하고 광주사암연합회(회장 현지스님)에 천운스님(향림사 조실)을 추대한 상태다.

김용문회장은 "교리공부를 강화하여 불심을 키우는데 주력하겠다"며 "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을 광범하게 전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원효성사 열반 1312주 제향대재

원효스님의 열반 1312주년을 기리는 원효성사 제향대재가 25일 경주 분황사에서 봉행됐다. 원효학회와 원효학연구회가 주최한 이날 대제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성타스님 분황사주지 종수스님 원효학연구회장 김영태박사 이원식 경주시장 손호익 경주시의회의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종수스님은 봉향제문에서 "원효스님의 화쟁사상으로 自是他非의 2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화장세계를 실현해 나갈것"을 발원했다.



은평사암련 국난극복법회

서울 은평구사원연합회(회장 성운, 삼천사 주지)는 4월30일 수국사에서 봉축기념 국난극복·민생치안과 은평경찰을 위한 오찬기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회장 성운, 수국사 주지 자용스님, 김영호 은평경찰서장을 비롯한 불자 경찰공무원 1백여명이 참석, 사원련은 6백여명분의 위문품과 모범경찰자녀들에게 1백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태고종 승정 도봉스님 49재

태고종 승정 도봉스님 4월 49재가 23일 태고종 종정 보성스님, 태고종 승정 만공스님 혜경스님과 총무원장 인곡스님, 도봉문도회(회장 정암스님, 前 백련사주지)스님과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 백련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주지 운경스님은 "스님께서 사바세계로 다시오셔서 중생을 일깨워 주시라"며 "스님이 대중스님들에게 당부한 선, 조사스님과 신도들을 잘 공양하며, 사중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불교신문 제1기 명예기자 위촉

현대불교신문 제1기 명예기자위촉장 수여식 및 1차교육이 4월26일 편집국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29명의 1기 명예기자에게 위촉장과 불서 〈생활속의 불법수행〉을 전달했다. 또 회사소개와 불교계 언론현황, 명예기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명예기자들의 임기는 1년이다.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佛紀 2542年 부처님오신날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종정 한구하
의장 정희수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공익법인 대한불교화엄종장학회
이사장 정희수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3동 산21
TEL : 032-422-2066~7
FAX : 032-422-0413
■ 서울 사무소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빌딩 101호
TEL : 02-730-0798~9
FAX : 02-722-3205

(사)대한불교법사회
성보사 포교원
원장 구윤회
신도일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99-28
TEL : 02-381-1234, 2727 FAX : 02-371-1065

한국재가불자연합
공동회장 안동일 이종구 황석동 박정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웅전갤러리 4층
TEL : 02-732-1216 FAx : 02-732-1207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학장 무진장
이사장 김재일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반야회
회장 김재일
사무국장 구본설
기획실장 문종순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3
TEL : 02-732-1206~8 FAX : 02-732-1207

사단법인 한국불교금강선원
(불교정신문화원)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총재 안덕암
이사장 한정섭 원장 이월담
학장 전용만 대학원장 석성륜
이사 김도원 전태수 강혜원 송공면
감사 권용득 김차에 임직원 일동
계간 세계불교사
사장 정을수
발행인 한정섭
편집인 한수갑
월간 금강법보
발행인 한정섭
편집인 강신욱
한국불교금강선원 포교사·법사회
총회장 김성륜
포교사회장 고법성 포교사회부회장 김성주
법사회장 김호현 법사회부회장 강청작
감사 원종성 구자원 외 회원 일동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1동 54-6
TEL : 02-969-2410, 962-1666
FAX : 02-969-4981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 선학원
법륜사
대중일동
■ 대전광역시 중구 옥계동 173-47
TEL : 042-284-4278
법동사회종합복지관
관장 박보안
■ TEL : 042-633-1141~3

법성사
주지 이석천
신도일동
■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2가 산23-14
TEL : 02-651-4382(FAX 겸용)

보승사
주지 혜정
신도회 일동
■ 서울시 강북구 미아3동 123-5
TEL : 02-988-4526

법회안내



광덕스님(불광법회 법주)16, 17일 미국 시카고 선련사 보살계 수계법회. (773)528-8685



동승스님(영천 묘각사 주지) 매일 오전10시30분 백일기도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전11시30분 신도임원회 법회. 매월 음력 1일~3일 오전10시30분 신중기도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10시30분 보름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법회. 매월 음력24일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 법회. (0563)34-6633



법경스님(능인정사 주지) 매주 토요일 오후2시 무학여고 법회. 매주 월요일 오전8시30분 자양복지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일요정기법회. 매월 음력 1일~3일 오전10시30분 화엄신중기도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기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30분 중등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02)462-1335



환암스님(대구 법계사 주지)매월 음력 1일~3일 오전10시 초삼일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10시 관음재일 관음예문참회법회. (053)768-2251



송석구총장(동국대) 6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법당 5월 다보법회. (02)703-0108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국난극복 참회대법회

수덕사서 참선철야 합시다

불자들은 사찰에서 참선 철야정진하기를 발원합니다. 그러나 막상 인연이 닿기란 쉽지않은 현실입니다.

때마침 경허 만공스님의 법기가 서려 있는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국난극복을 위해 참선으로 철야정진을 합니다. 한국선종의 본찰에서 정통으로 하는 참선 철야정진에 적극 동참하셔서 지혜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일 시: 5월25일(월) 오후9시~26일 오전3시(출발 25일 오후5시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주관: 조계종 수덕사
후원: 국민회의 연등회 · 자민련불자회 · 한나라당불자회 · 군승단 · 경승단 불교방송 · 불교TV · 현대불교신문사

신행수첩

"마음자리 안에서 찾자"
송광사 · 대둔사 출가수련

"밖에서 찾지 말라"고 보조스님은 우리들에게 말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속에서 우리자신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정신없이 살아온 자신을 되돌아보고 참된 자신을 찾게 해주는 여름참선수련회가 준비됐다.

송광사는 오는 7월 5일부터 8월9일까지 총 6차에 걸쳐 '출가 4박5일 여름수련법회'를 실시한다. 60세 이하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0661)755-0407

대둔사는 오는 7월 5일부터 20일까지 3차에 걸쳐 '대둔사 참선수련회'를 운영한다. 19세 이상 55세이하의 수련회 무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0634)34-5502

묵언과 참선, 발우공양 등 한시적이나마 스님들과 똑같은 생활을 통해 이제까지 밖으로만 향해있던 시선을 본래의 청정한 불성을 지니고 있는 자신의 내면으로 돌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달리자 탁트인 세계로"
조계종 어린이지도자 연수

전국의 어린이지도자들은 모두 모여라!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제25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오는 6월6일~7일 1박2일간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연다.

'크게 보자, 달리자, 탁트인 세계로'를 주제로 내건 이번 연수회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 시대에 맞는 여름불교학교 준비와 운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과 질 높은 불교학교 개최를 목적으로 실시된다. 20일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051)808-4569

반야심경과 과학
부산 정토법당 19일부터 강의

바른 불교, 쉬운 불교, 생활불교를 실현하고자 하는 부산 정토법당 청년회에서 신심 깊은 젊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반야심경〉 강좌를 개설한다.

〈반야심경〉은 철저한 과학의 입장에서 공사상을 전개함으로써 알음알이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부처님 말씀이다.

이번강좌는 19일부터 7월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지장법사(정토법당 원장)와 보수법사(정토법당 상임법사)가 강의한다. 반복되는 일상의 단조로운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얻고자 하는 패기에 넘친 청년불자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051)557-2746

재가자 하안거 합니다
강남포교원 시민선방

'재가자도 하안거 결제를 한다.'

강남포교원(원장 성열)은 음력 4월 15일~음력 7월 15일까지 승가의 하안거 기간에 맞춰 10일~9월 5일까지 3개월 하안거 무료시민 선방을 개설한다.

안거란 출가한 스님들이 일년에 두번 산문밖 출입을 삼가고 한곳에 모여 참선수행 하는 것으로 여름과 겨울로 나눠 실시한다.

매일 오전 10시~12시 성열스님의 지도로 참선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하안거 무료시민선방은 부담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백일간의 수행정진 후 회향하게 된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든 요즘, 생활속 참선정진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자. (02)539-2631~4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
불교문화센터 다보강좌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종교화합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불교문화센터도 13일 '불교와 기독교'를 주제로 5월 다보문화강좌를 연다.

불교방송 3층법당에서 길희성교수(서강대 종교학과)가 진행할 이번 강연은 불교와 기독교 두 종교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리사회에서의 종교역할의 중요성을 실감케 해 줄 것이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확실히 배우고, 종교인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02)703-0108

옛선승 발자취 따라서…
광주불교교육원 명찰답사

화엄에서 선으로 가는 천년의 여정!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은 21일 전남 구례일대의 천은사-화엄사-연곡사 순례를 떠난다.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되어 화엄종을 선양했던 화엄사, 그 말사인 천은사와 신라말부터 고려초까지 수선도량(修禪道場)으로 이름이 높았던 연곡사는 수려한 가람과 조화를 이룬 자연속에 옛 선승들의 자취를 그대로 안겨 줄 것이다. (062)228-9098

나의 수행일기



신평 〈변호사 · 효성가톨릭대 교수〉

매일 반야심경 외며 '언행' 조심

기독교서 개종…"새로운 악연 만들지 말자"

불교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깨달음들을 얻도록 도와주는 가르침이라고 나름대로 해석한다.

나는 불교에 영혼을 적시게 된 이래, 과연 그 깨달음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명제를 붙잡고 살아왔다. 깨달음이란 내 일생의 화두인 셈이다. 나 역시 지극히 우매했던 중생으로서 불교의 가르침을 마음 속에 새기며 조금씩 어리석음의 껍질을 벗고 나오려고 무던히도 노력해 왔다.

원래 나는 기독교신자였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까지 했다. 하지만 교회에 나가면 웬지 석연치 않은 느낌을 가졌다.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의문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커다란 암흑의 구덩이에 빠져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그냥 발버둥만 치는 형국에 처해 있었다. 교회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큰 사람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린 시련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 자신이 그렇게 큰 사람이 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왜 이 시련을 참아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나로서는 단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는 작은 인간적인 행복, 삶의 가치 같은 것을 희구했다. 그것만 주어진다면 나는 다른 아무 것도 더 이상 바라고 싶지 않았다. 이 소박한 희망을 하나님이라고 한들 쉽사리 빼앗아서야 되겠는가?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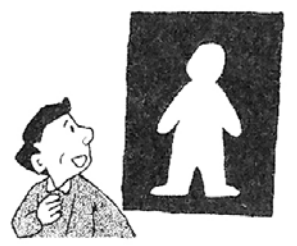
그러다 일본에 장기체재를 하며 일본이 갖는 불교적 분위기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귀국한 뒤 다시 공교롭게도 경주 분황사에 기거하게 되었다.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 열심히 부처님 앞에 절을 드렸다. 한번씩 참여한 새벽예불시 자신의 박복함을 한탄하며 눈물이 비오듯 흐를 때가 많았다.

우연히 오천 대흥사의 김윤보 스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분은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을 한 마디로, 내가 저지른 전생의 업에 대한 업보라고 하였다. 원인없는 결과가 없듯이 내가 알지못하는 전생의 업에 대한 고통이라는 것이었다.

윤보 스님의 말씀에 깊이 깨닫는 바가 있었다. 그래, 누구의 잘못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의 잘못, 그것이 내가 모르는 전생에 저질러진 것이긴 해도 내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되는 잘못에 의해 오늘의 이 상황이 초래되었다. 나는 이 과정을 참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무리 없이 이를 극복했을 때 나는 악연의 굴레를 하나 벗어던지고 새로운 삶의 계기를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조금만 더 참으면 업보는 나에게서 물러간다고 한다.

이 작은 깨달음은 삶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해주었다.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에 다시 싱싱한 바람이 불어와 살아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 불씨가 자신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다시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매일같이 반야심경을 암송하며 또 필사하였다. 조심스럽게 처신하며 새로운 악연을 만들지 않을려고 노력했다. 또 청정한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타인에게 공덕을 베풀어, 자신의 악업을 조금이라도 소멸시키려고 했다. 차츰 나는 업보에서 벗어남을 느꼈다. 그리고 오늘의 밝고 따뜻한 삶이 찾아왔다. 그러나 비참한 과거에서 벗어나게 해준 불교의 가르침을 잊지 않는다.

깨달음을 얻기 위한 긴 여정으로서의 삶을 생각한다.

항상 어리석음을 깨쳐나가려고 노력하는 중에서 우리는 차츰, 끝없이 업을 생성해가는 인연의 굴레,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점차 진정한 자유인으로 성숙해갈 것이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존재하며, 자비의 마음을 태양처럼 방사하는 존재로 말이다.

게 시 판

♣ 알림

△치밭기행=터사랑(대표 전숙희)은 9~10일 무박2일 동안 '우리 차밭을 찾아서'란 주제로 테마기행을 떠난다. 이번 행사에는 '장흥 보림사' '벌교 징광마을' '보성 차밭'등을 둘러보게 된다. (02)725-1284

△물품 후원=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이사장 각현)는 송파구내 무의탁 노인들의 매달 생신잔치와 봄나들이 행사(6월초)를 위해 음료수 빵 과자 등 간식과 생필품 내의 옷 등 후원물품을 기다린다. (02)203-3677

♣ 모집

△불교교양대학=포항고불선원은 제9기 불교교양대학 개설, 수강생을 모집한다. (0562)73-0108

△청소년 자원봉사자=경산 백천사회복지관은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무의탁 노인, 농촌일손돕기. (053)811-1347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불교사회복지회는 만성질환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53)427-1907

△불교교양대학=포항고불선원은 제9기 불교교양대학 개설, 수강생을 모집한다. (0562)73-0108

△청소년 자원봉사자=경산 백천사회복지관은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무의탁 노인, 농촌일손돕기. (053)811-1347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불교사회복지회는 만성질환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후원금, 물품, 자원봉사 모두 가능하다. (02)806-1375

△놀이치료 및 심리치료=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지능, 성격 검사, 놀이치료 등을 실시한다. (02)817-8052

△자원봉사자=인덕종합사회복지관은 말벗, 간병, 수지침, 이미용, 목욕 등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385-8205

△경로식당 후원자=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에 동참할 후원자를 모집한다. 후원금, 물품, 자원봉사 모두 가능하다. (02)806-1375

△참선교실=박민수 참선교실은 매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10시 까지 참선개인지도를 실시한다. (062)251-2733

△기초교리강좌=동화사포교원 관오사부설 불교사회교육원(원장 지도)은 7일부터 3개월간 불교기초교리강좌를 개설한다.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30분에 시작되며 수강료는 4만원이다. (053)784-3669

△한식조리사 · 제빵사 · 요리반=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5월부터 3개월과정으로 한식조리사반(월 · 목 오후1시30분 · 7시), 제빵사반(수 · 토 오후2 · 7시), 취미가정요리반(화 · 금 오후 1시30분) 수강생을 모집. 수강료는 7만5천원~9만5천원. (02)282-1100

△생활영어교실=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생활영어 기초반과 초급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매주 화, 금요일 오전10시. (02)817-8052

△고교무료영어지도=전북불교대학(학장 강건기)은 매주 금요일 오후7시 전북불교대 재학 및 졸업학인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영어지도를 한다. (0652)226-7878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2542 Buddha Birthday 부처님오신날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법 형 제 회
■ 대구시 중구 남산동
TEL : 053-426-2779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
선본사 갓바위
주 지 혜 창
사부대중 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리
TEL : 053-851-1869

한국불교사회연구원
이사장 성 타
원 장 돈 관
■ 경주시 동천동 790-5 3층
TEL : 0561-41-0762
※ 경북 불교대학 · 불광사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390-4
TEL : 053-792-1353

청구도시락
대 표 권오섭
■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757-4
TEL : 053-763-1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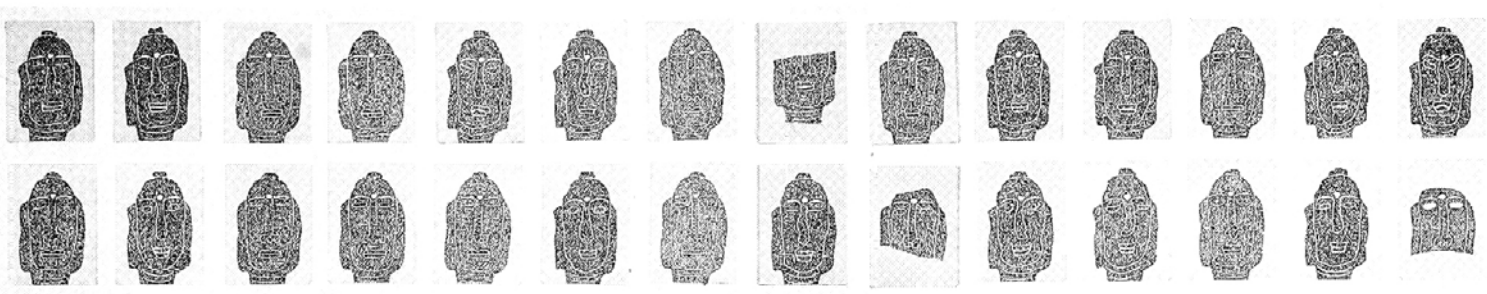
대구 영남불교대학
이번 신입생 3천명과
1만 2천명의 동문신도가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 TEL : 053-474-8228

대한불교 조계종 관음사
주 지 원 명
대 중 일 동
■ 대구시 중구 삼덕2가 24
TEL : 053-421-3700

재단법인 선 학 원
광 덕 사
주 지 운 성
대 중 일 동
■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동 190-1
TEL : 053-763-0068

대한불교 조계종 통천사
주 지 선지(善智)
대 중 일 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
TEL : 053-953-4481

대한불교 조계종 안흥사
주 지 장 적
대 중 일 동
■ 경북 경산시 상방동 71번지
TEL : 053-815-4030



"千佛에 한국인 얼굴 있다"

장백씨 '천불전' 9~13일 충주문화회관

가만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느낌이 풍부한 것이 불상의 표정이다. 어느 불상이나 원만하고 자비로운 상호는 공통이지만 보는 느낌에 따라, 각도에 따라, 빛의 밝기에 따라 각기 다른 표정을 보여준다.

웃는 듯, 행복에 겨운 듯, 우는 듯, 찡그리는 듯, 초탈한 듯, 놀란 듯, 성내는 듯 온갖 희로애락을 담고있는 각기 다른 표정의 천개의 부처님얼굴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9~13일 충주문화회관(0441-847-7228)에서 개최되는 장백씨의 '천불(千佛)전'.

이 얼굴들은 섬세하고 신비로운 신라불상의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가장 못 생긴 불상이라는 운주사의 투박한 불상의 얼굴을 소재로 응용했다.

흑백의 단순한 선과 면으로 표현된 이 불상들은 광목을 구겨 편 후에 물감붓으로 가볍게 터치를 가해 돌의 질감을 그대로 보여준다. '언터치 페인팅'이라는 독창적인 기법을 사용해 마치 탁본이나 관화와 같은 느낌을 준다. 운주사의 투박한 불상을 소재로 했지만 경주 남산 아기부처님의 귀엽고 천진한 모습이나, 서산마애삼존불의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까지 다양한 표정을 볼 수 있다. 장백씨가 불상얼굴들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한 것은 94년부터.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해탈'입니다. 그 해탈을 지향하는 마음으로 5년동안 불상의 얼굴에만 몰두해 왔습니다. 운주사 석불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오랜 풍상을 겪으면서 마모되어가며 축적된 아름다움이 있고 또 어리숙하면서도 고졸한 한국인만의 소박한 미가 느껴져 더없이 정겹고 친근합니다. 불상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 얼굴이 곧 한국인의 얼굴임을 알 수 있지요."

장백씨는 돌부처에서 한국인의 원형을 본다. 85년부터 '고통'시리즈와 이후의 '날개'시리즈를 하다 일체의 번뇌와 상념, 고통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해탈을 꿈꾸고 부처의 마음을 찾겠다는 염원이 불상 그리기 작업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석불을 찾아다니고 마침내 운주사 석불에서 모든 갈등을 넘어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미소와 근심과 공포를 무너뜨리는 친밀한 침묵을 느꼈다고 한다.

장백씨는 앞으로 전국 각처의 장승들의 다양한 표정을 담은 '천(千)장승전'과 천개의 탑의 모습들을 묘사한 '천(千)탑전'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경숙 기자

불심시심 〈127〉

모두가 다 불경

猿啼虎嘯鶴梳翎 (원제호소학소령) 원숭이 울음, 범 휘파람, 학 날개의 빗질
正眼看來摠是經 (정안간래총시경) 바른 눈의 살핌에는 볼수록 모두가 진리
菩薩神通何處在 (보살신통하처재) 보살의 신령한 회통 어디에 있나
落花飛盡舞청정 (낙화비진무청정) 지는 꽃 다 날리면 또 춤추는 나비.

연파대사(蓮坡大師, 1772~1811)의 시이다. 대사의 법명은 혜장(惠藏)이고 자는 무진(無盡)이요, 연파는 법호이다. 또 하나의 자호를 아암(兒庵)이라 하여 〈아암유집·兒庵遺集〉이란 유문집이 전해지고 있다.

대사의 비명을 다산 정약용이 썼는데 이는 다산이 강진으로 귀양갔을 때 하루 밤에 주역을 가지고 대담하면서, 대사의 깊은 논리에 감복되어 그뒤로 막역한 사이가 되어 그 인연으로 해서 썼던 것이다. 다산이 비명을 쓰면서 이 하룻밤의 느낌을 "정신으로 융통하였고 입에 발려서 한 번에 수 천 마디를 외우는 것이 마치 쇠탄환이 쇠관에 구르듯 하였다(神融口潤 一誦數十百言 如流丸轉坂)" 하였으니, 잡간의 만남에서 평생의 지기로 인정했던 사정을 짐작케 한다.

대사의 시는 개별적 제목 없이, 쓰여진 계기로 엮여 있다. 위의 시는 산거잡흥(山居雜興) 20수 중의 하나이다. 이밖에 '장춘동잡시(長春洞雜詩)' 12수도 있는데, 이 시가 중국에 전해져 당시의 대학자 옹방강(翁方綱)이 시인을 하나 얻었다 하여 추사 김정희가 사신으로 갔을때 자신의 시집 6책, 손수 쓴 〈금강경〉 한 권, 초상화 한 벌을 부쳐온 일이 있었으니, 대사의 시문에 대한 국제적 인정을 이해하게 한다.

이 시는 부처님의 말씀이 경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사물 어디에나 있는 것을 상징화했다. 원숭이의 울음 호랑이의 외침 그 자체가 자연의 실상이요, 외발로 서서 깃털에 빗질하는 학의 자태도 자연의 본연이요 또한 아름다움의 극치이다. 꽃이 지면 벌 나비의 날음이 없을 것이지만, 그 자리에는 다시 잠자리의 아름다운 비상이 있다. 이것이 자연의 실상이요, 법체의 여여한 현현이니, 이것이 바로 경전의 진리이다. 그러나 정법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뜨기 전에는 모든 것이 개체의 모습으로 보일 뿐이지, 법체의 진리로 보여지지 않는다. 여기에 바른 깨달음의 바른 눈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보살의 응회관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연사물의 실상에 있는 것이다. 이 실상을 바른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수선의 자세가 아닌가. 이를 실천하고 있는 대사의 수선적 자세를 보게 된다.

시는 또 시대로의 조화를 보이고 있다. 원숭이, 범, 학, 꽃, 잠자리 등이 자연스럽게 한 편의 시의 공간으로 모이고 있다. 인위적 흔적이 없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팔만대장경 주제음악 14일 발표



◇김수철씨

세계문화유산인 해인사 팔만대장경(국보 32호)을 주제로 한 음악이 완성돼 14일(목) 오후 3시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고불식 및 발표회를 갖는다. 가수겸 작곡가 김수철씨(41)가 작곡, 제작한 팔만대장경 음악 〈본지 119호 13면 참조〉은 민족의 성보 팔만대장경의 역사와 가치,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음악으로 표현, CD와 카세트테이프로 나왔다.

'고려대장경'으로 이름붙여진 이번 CD는 팔만대장경의 태동부터 수난, 이운, 현재와 전산화가 이루어진 미래의 모습까지 담은 연주시간 45분의 음악. 장중하면서도 심오한 선율의 우리 국악기와 경쾌하면서도 활기찬 서양악기, 중국악기까지 사용하여 동 서양의 음악이 절묘하게 조화된 것이 특징이다.

팔만대장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직후 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로부터 작곡의뢰를 받아 2년여만에 음악으로 완성한 김수철씨는 "부처님 가르침이 집대성된 고려 팔만대장경의 심오한 숨결과 이를 만든 우리 민족의 슬기를 깊이있고 다양한 선율로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조계사 대웅전
김수철씨 작곡

"연꽃사진 보며 청정심 찾았으면"

13일 연꽃전 여는 선암스님



'연꽃 사진' 하면 바로 떠오르는 스님이 선암스님(봉원사 사회부장)일 정도로 27년간 연꽃을 집중적으로 렌즈이 담아온 선암스님이 13일부터 19일까지 안국동 동덕 갤러리에서 연꽃사진전을 갖는다.

"연꽃을 찍는 일은 구도행각의 한 방편입니다. 연꽃은 단순히 불교를 상징하는 꽃을 넘어 진리와 순수, 즉 인간의 청정하고 맑은 본성을 상징합니다. 연꽃이 더러운 진흙탕에서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이 혼탁한 사바세계에 물들지 않고 본래의 진리와 순수한 마음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 렌즈를 통해 추구하는 나의 사진작업의 목표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가시연꽃 등 희귀한 연꽃들과 연꽃의 사계, 수련 등 국내 외 60여점의 다양한 연꽃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선암스님의 연꽃을 찾는 행각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 태국 스리랑카 일본 미얀마 등 세계 곳곳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꽃을 보며 이 어려운 시대에 희망과 용기를 새롭게 다지고 부처님가르침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한다는 선암스님은 이번 전시회에 맞춰 200쪽의 칼라사진집 '蓮'도 펴 낸다.

선암스님은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사진에도 독보적인 존재이다. (02)392-3007

〈숙〉

"美 스나이더의 詩세계 인간과 자연의 相生 담아"



'불교와 문화' 5호서 조명

시의 패턴을 선에 두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섬세하게 노래하는 시인. 단순한 자연에의 귀의가 아닌 인간 본연에의 복귀로서 구도정신을 지향하는 시인 게리 스나이더(Gary Snyder, 69세).

최근 발간된 계간지 〈불교와 문화〉(대한불교진흥원 刊) 제5호는 '선을 노래하는 무성(無性)의 시인'이란 호칭으로 게리 스나이더를 조명했다.

게리 스나이더는 지구환경과 생태계의 파괴가 극심한 현대사회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진 미국 현역 시인이다. 1956년 일본으로 건너가 10년간 참선 공부를 하는 등 선불교에 심취한 그는 그 영향으로 빛/어둠, 추위/더위, 생명/죽음 등의 상호적 의미관련을 중시하면서, 자연이 보여주는 총제적인 생명의 긴장과 대립과 조화의 관계에 늘 주목한다. 〈오지〉〈쇄석(碎石)〉〈신화와 텍스트〉 등을 비롯해 가장 최근의 시집 〈무성(無性)〉까지 그의 모든 시집에서 이같은 시각이 나타나 있다.

김영무교수(서울대 영문학)는 우주 삼라만상의 긴밀한 연대성과 관계성을 새로이 깨닫고, 자연 만물과 인간의 관계를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의 관계로 인격화할 때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상생(相生)의 믄을 열 수 있으며, 이런 생각의 탁월한 실천가가 바로 스나이더라고 말한다.

스나이더는 '생활이 곧 시고 시가 곧 선(禪)인 시인'으로 불린다. 그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반야심경과 다라니를 독송한다. 특히 불교의 명상은 자신의 시세계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독특한 자세와 호흡법, 그리고 마음을 다루는 법이 있는 명상은 아주 특수한 수행임을 강조한다.

고은 시인은 "그는 고대 중국과 일본의 선과 시를 만났으며 이미 선농일치의 중국의 임제선 전통과 방불한 선로(禪勞)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말로 스나이더와 만났던 당시를 술회했다.

그는 현재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시낭독을 하고, 대학에서 시를 가르치는가 하면 자연환경 보호자들과 토착민들의 그룹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우〉

문화 단신

티베트 불교미술전
보성 백민미술관

보성군립 백민미술관(관장 조규일)이 2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티벳불교미술 특별전'을 갖는다.

전국에서 유일한 군립미술관으로 정식등록한 것을 기념해 준비한 이번 전시회에는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이 다섯 차례에 걸쳐 티벳불교문화를 순례하면서 수집한 것들이 선보인다. 티벳 왕궁화가인 샹게에쉬의 만다라와 여러 형태의 불·보살상, 손때가 묻은 밀교의식 법구, 인골피리와 두개골로 만든 가면 등에서 독특하면서도 오묘한 티벳 불교미술의 향취를 느낄 수 있다. 또 만년설을 배경으로 한 '옴'자 만다라, 정교하게 조각된 티벳불교 수호신장, 마음의 번뇌와 수행의 장애를 소멸시키는 상징물인 법구 등에서는 우리와는 또다른 티벳불교미술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네팔작가 10인전
9일까지 녹색갤러리

녹색갤러리에서는 9일까지 네팔 현대작가 10인전시회를 연다. 한국과 네팔 수교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네팔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는 하레람 죠주 씨 등의 현대화 20점이 전시된다. (02)323-4941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대한불교 조계종 선산 원각사
주지 대혜
부설: 원각불교교육원
■ 구미시 선산읍 노산리 159
TEL : 0546-481-2363

망월사
주지 동진
신도일동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1동 421번지
TEL : 0545-972-2700

대한불교 조계종 최정산 법계사
주지 환암
신도일동
■ 경북 달성군 가창면 용계동 212-2
TEL : 053-768-2251

대한불교조계종
대구광역시신도회
회장 최동원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14
TEL 053-253-2886, 252-9485

금용사
주지 혜선
■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72
TEL : 053-628-5404

델리원제과
안법인
■ 대구시 달서구 본동 그린코아 지하상가내
TEL : 053-621-4315

사회복지법인
감천(복지고을)
이사장 오정
■ 대구시 동구 진인동 151-1
TEL : 053-981-1552

대한불교 조계종 제석사
주지 태경
신도일동
■ 경북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226-1
TEL : 053-852-2271

윤달에 수의를 구입하시면
삼베(염포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스님다비행사일체
재가 장의 업무일체
이장및 석물제작
지장불교상조개발(주)
부설: 불교장의사
■ TEL 053-654-0055, 629-1024

여래기획
대표 권기철
■ 대구시 중구 봉산동 235-11
TEL 053-426-3395

'월등삼매경' '대반니원경' 등 한글대장경 5권 출간



한글대장경 5권이 새로 나왔다. 동국대 역경원(원장 월운)에서 번역 출간한 한글대장경은 〈월등삼매경外〉 〈복개정행소집경外〉 〈대반니원경外〉 〈비나야外〉 〈미사색부화혜오분율2外〉 등.

인도의 나련제야사가 한역한 〈월등삼매경〉은 본래 이름이 〈입어대비대방등대집설경〉으로 흔히 〈대방등대집월등경〉이라고도 부른다. 삼매에 대한 수식어로 월등(月燈)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까닭은 삼매를 닦으면 마치 달빛이 길을 환히 비추는 것처럼 쉽게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다. 〈월등삼매경外〉에는 〈불설월등삼미경〉 〈불설관정경〉 〈불설약사여래본원경〉 〈불설방발경〉 등이 함께 번역 수록돼 있다.

〈복개정행소집경〉은 용수(龍樹)가 편찬한 원본을 일칭(日稱) 등이 한역한 것으로 전체 12권으로 구성돼 있다.복덕을 받는 바른 행위에 대한 가르침들을 모은 것으로, 곳곳에서 용수 특유의 사상적 묘미를 느낄 수 있다. 〈복개정행소집경外〉에는 구마라집, 보리류지, 진제가 각각 한역한 〈금강반야바라밀경〉 등이 번역돼 있다.

중극의 학승 법현이 한역한 〈불설대반니원경〉은 모두 6권으로 되어 있으며, 부처님과 열반 및 불성(佛性)에 대한 교리를 설하고 있다. 〈대반니원경外〉에는 〈대반열반경후분〉 〈불설방등반니원경〉 〈사동자삼매경〉 〈대비경〉 〈불설문수회과경〉 등이 실려있다.

중극에서 한역된 것으로 알려진 〈비나야〉는 비구와 비구니의 생활규범인 계율이 제정되게 된 인연을 밝혀놓은 율장으로 〈계인연경비나야〉라고도 불린다. 〈비나야外〉에는 〈마하승기비구니계본〉 〈미사색오분계본〉 〈마하승기율대비구계본〉 〈사분승계본〉 〈오분비구니계본〉 〈사분비구니계본〉 〈담무덕율부잡갈마〉 등이 수록돼 있다. 〈미사색부화혜오분율2外〉에는 불타집(佛陀什) 등이 공역한 〈미사색화혜오분율〉 16권~30권까지와 〈미사색갈마본〉이 한역돼 있다.

역대 종정스님 생애와 법어

정휴스님 '달을 가리키면…' 증보판 펴내

선사들의 짧막한 법어 한마디는 장황한 설명을 곁들이지 않아도 단박에 중생을 깨우친다.

출판시대가 출간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 있나〉는 역대 조계종 종정스님들의 생애와 법어를 담고 있다. 기존 청담 효봉 동산 서옹 고암 스님에 성철 월하스님을 추가한 증보판.

난해한 스님들의 법어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한 해설을 곁들여 정휴스님(불교신문사장)이 엮었다.

오늘과 같은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 종정 스님들은 목소리를 통해 해답을 구할 수 있다.

어린이 눈높이 문화유산 책

보고 배우는 문화유산



전국 40여 사찰
문화재등 소개
삽화 곁들여 '볼만'

덤벙이 세계문화유산 탐방



불국사·둔황석굴 등
만화로 떠나는
세계문화유산 여행

한국을 빛낸 우리문화 Best 10



석굴암·한글 등
문화관광부 선정
한국 빛낸 유산 소개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의 빼어난 문화유산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문화유산 책들이 나왔다.

우리나라와 세계문화유산에 관한 이 책들은 읽고 보는 재미를 통해 우리문화유산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를 배우고, 21세기를 짊어지고 나갈 균형있는 문화관을 지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생생한 자료사진과 현장감있게 구성된 삽화와 그림은 마치 문화유산을 직접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보고 배우는 문화유산〉(전4권, 여명출판사 刊)시리즈는 서울의 봉은사 조계사를 비롯해 수원 용주사 강화 전등사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상원사 신흥사 등 40여곳의 가볼만한 사찰을 소개하면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와 그에 얽힌 일화 등을 재미있게 구성해 놓았다. 이외에도 유적지 및 박물관, 공원과 유원지, 고건축물, 능과 묘소, 천연기념물 등을 고루 소개하고 있다.

서울편, 인천·경기편, 부산·울산·경남편, 강원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시도별로 가보아야 할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있어 자연과 지리, 역사를 배우는데도 도움을 준다. 특히 볼거리를 주제별로 선정하고 자료사진과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 형식의 삽화를 컬러로 함께 실어 흥미를 돋군다. 각 지역의 문화 유적 지도를 그려넣고, 유적지마다 교통편까지 안내하고 있어 현장학습을 위한 안내서로도 활용가능토록 하고 있다.

〈덤벙이 세계문화유산 탐방〉(전3권, 두산동아 刊)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에 얽힌 재미있는 역사·문화·인물 이야기를 만화로 엮었다. 이중 우리나라의 불국사 석굴암과 해인사 팔만대장경, 일본 호오류사, 중국의 둔황석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교 유적지로 꼽히는 인도의 산치 등이 소개돼 있어 불교문화유산의 특징과 함께 4개국의 불교문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편, 유럽편, 아메리카·아프리카편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중국의 만리장성, 그리스 아크로폴리스, 잉카문명 유적지인 페루의 마추픽추 등 40여곳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은 어린이들의 시각을 넓혀주기에 충분하다. 또 '이야기역사 교실' 코너를 마련해 해당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한국을 빛낸 우리문화 Best 10〉(다림 刊)은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세계에 한국을 빛낸 우리문화 10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불국사와 석굴암에 얽힌 전설을 재미있게 묘사하고, 석굴암 보존의 신비를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놓았다. 이 외에도 한글, 김치와 불고기, 태권도, 한복, 고려인삼, 탈춤, 종묘 제례악, 설악산 등을 사진과 예쁜 그림으로 설명해놓아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한명우 기자

박문열교수 '백운화상'에 매료

'불조직지심체요절' 이어 '어록'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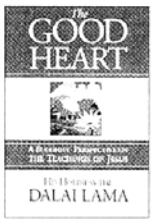
백운화상이 지은 〈불조직지심체요절〉의 자매편이라 할 수 있는 백운화상의 어록이 번역돼 나왔다.

박문열 교수(청주대 문헌정보학과)가 펴낸 〈백운화상어록〉(범우사 刊)은 석찬선사가 저술한 〈백운화상어록〉 상·하권을 1378년 여주 취암사에서 간행된 목판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권상, 권하를 차례로 수록했으며, 어려운 용어마다 각주를 달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애썼다.

"백운화상의 행장이나 수도상(修道相), 활동상을 포함한 선관(禪觀)을 알리기 위해 어록을 번역했습니다" 박교수는 지난해 〈불조직시심체요절〉을 번역해 냈다.

백운화상(1298~1372)은 태고국사 혜근화상과 더불어 고려말기 선교사(禪敎史)에서 삼대선걸(三大禪傑)의 한 명으로 꼽히는 스님으로 간화선을 고양시킨 태고국사와는 달리 무심일도(無心一道)로써 간화선을 배제하고 선교일치를 주장해 독보적인 선풍을 진작시켰다.

태외신간



선한 마음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최근 펴낸 〈선한 마음(The Good Heart:A Buddhist Perspective on the Teaching of Jesus)〉은 성경의 가르침을 불교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불자들의 진심어린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서문을 통해 "다양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종교인의 위대한 가치"라고 말한다. 美 Wisdom 刊. 〈224 pp. ISBN 0861711386〉



떨어져 나올 때

"삶의 고통을 벗어나는 길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영역에서 바로 서야 한다." 美 여성불교계를 대표하는 페마 쵸드론스님이 최근 발간한 〈떨어져 나올 때(When Thing Fall Apart:Heart Advice for Difficult Times)〉는 현대사회의 문제의 해답으로 삼을 수 있는 티벳불교의 은유적 깨달음을 현대적 어감을 사용해 설명해 놓고있다. 美 Sounds True 刊. 〈310 pp. ISBN 157062285X〉

저자의 삶을 선사어록과 대비 서술

화제의 책



선사들이 가려는 세상 — 신규탁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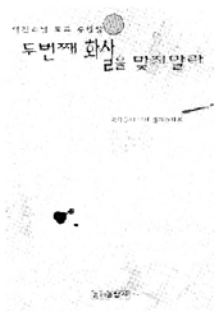
선사들의 자취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일터에서 그리고 여행길에서도 얼마든지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 〈선사들이 가려는 세상〉은 바로 그런 얘기들을 담았다.

법어나 일화를 단순히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저자가 공부하고 생활하고 여행을 다니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선사들의 가르침을 대비시키고 있다.

신규탁 교수(연세대 철학)는 갈 길을 못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길이 저멀리 어딘가에 있다고 믿어 그 길에 홀려 일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한다. 용담선사 일화 등 52편의 이야기가 바로 그 깨달음의 길을 보여준다. '육조단경' '마조어록' '벽암록' 등을 쉽게 설명하면서 선어록을 읽는 방법도 제시했다. 〈장경각, 5천원〉

"부처님 말씀 귀 기울이면 악운 없다"

두번째 화살을… — 덕진스님 지음



"곗돈을 떼인 사람이 잠을 못자고 밥을 못먹는다면 첫번째 재앙의 화살을 맞는 것이요, 그래서 건강을 해쳐 병이 나면 두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며, 건강이 나빠져 자신의 직무나 가정일을 못하면 세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 된다."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16년째 어린이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덕진스님의 포교와 수행담을 엮은 수상집. 두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일을 예전보다 두 배 열심히 하고, 건전한 취미활동을 할 것을 권한다. 출가수행에서부터 포교일선에 이르기까지 겪은 갖가지 이야기들이 삶의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극락문은 언제 열리는가요' '똥싸서 위안하다' '인생묘약' 등의 주제아래 짧은 글들이 재미있게 엮어져 있다. 〈우리출판사, 8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생활속의 불법수행	현대불교신문사	여시아문
2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 현 준	효 림
3	남산이 북산을 보고 웃네	맹 란 자	세훈출판사
4	불보살 명호이야기	이 윤 수	민 족 사
5	화엄의 세계	해 주	민 족 사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 을 순	신 우 당
7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백가지	성우·지현	민 족 사
8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9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10	알기쉬운 불교미술	동국불교미술인회	반야판사

구입문의:(02)737-0695

성하출판 TEL : 273-4451~2 FAX : 273-4450

봉축. 불기2542년 부처님 오신 날

그대의 내면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당신도 깨달음을 얻고 성취를 맛볼 수 있는 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사람들은 비참함과 고뇌, 고통과 삶 자체를 피하려 애를 쓰고 있다.
주위 환경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피하는 것, 그것은 포기이며 결국 겁쟁이, 도피주의자로 남게 된다.
그대가 어디를 가든 그대의 마음을 떨쳐 버리고 자신을 단념하지 못한다.
시간과 공간은 중요하지 않다. 그대는 결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
단순히 존재한다. 실체는 그대 내면에 감추어져 있다.
그대는 내면을 향해 가야 한다. 그대 안에 우주의 중심이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류원정 옮김 / 값 9,000원
이것! 이것!
THIS. THIS. A THOUSAND TIMES THIS.

禪

선은 신에 대해 논하지 않는다.
선은 당신이 신이 되도록 한다.
선은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한다.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송대 임제종의 원오스님이 운문계의 선사인 설두스님의 송고집에 평과 해설을 붙여 만든 〈벽암록〉은 종문제일서라 불리며 선서의 왕좌를 차지한다.
성철스님께서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격찬한 선서의 백미이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류원정 옮김 / 값 9,000원
살아 있는 선

말없는 자의 말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철학과 신을 바라본 인도의 명상가 오쇼 라즈니쉬의 생애 마지막 영상록. 인간 존재, 철학 그리고 존재에 대한 색다른 깨달음의 글과 함께 그의 생애와 임종의 순간을 담고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옮김 / 값 4,800원

42장경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질 때, 인도의 스승들은 불교의 정수를 모아 42편의 시로 구성하였다. 오쇼 라즈니쉬는 특유의 페이소스 넘치는 우화를 곁들여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경옥·황광우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중국의 작은 부처 앙산
위산의 법제자로, 마조선사의 많은 선 지식을 두루 만나 법을 구하였고 탐원을 만나 혜충국사의 원상법문을 전해 받았는데, 한 번 보고 단박에 깨쳐 그 자리에서 태워 버렸다. 스승 위산에게 머물면서 진리를 깨친 그는 중국의 스석기로 불릴 만큼 총중하였으며, 후에 스승과 더불어 중국 오가종(五家宗)의 하나인 위앙종(潙仰宗)의 문을 열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김희영 옮김 / 값 6,500원

학술단신

'空과 緣起의 현대적 조명'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는 '공(空)과 연기(緣起)의 현대적 조명' 제 1차 학술세미나를 9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갖는다.

이번 세미나에는 △불교와 마음의 진화(윤혜린 · 이화여대) △상호적 인과로서의 연기(박소정 · 이화여대) 등이 발표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같은 주제로 올 한해 동안 5차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학술연구비 지원 공모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묵정배)은 98년도 학술연구비를 지원할 연구 논문과 윤독모임을 공모한다.

연구논문은 불교학과 그 관련 분야로, 지원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및 전문강원의 강주 이상이며 5월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총 3백만원. 또 윤독회는 선어록 및 불교 원전을 강독하는 5명 이상의 윤독회로 5월 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각 1백만원.

한편, 연구원 신임운영위원으로 원영스님(동국대 강사), 은정희(서울교대) 최일범(성균관대) 조성택(뉴욕 주립대) 고수 등을 위촉했다. (02)265-5215

"의례는 신앙과 사상 결집체"

한국종교학회 9일 '종교와 의례' 세미나

종교에 있어 의례가 차지하는 위상과 의의에 대해 각 종교별로 연구한 학술발표회가 한국종교학회(회장 금장태) 주최로 9일 오전 10시 서울대 인문관에서 열린다.

'종교와 의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발표회의 불교분과로는 △한국불교 의식문에 보이는 화엄신앙과 사상-대웅전 예경문을 중심으로(해주스님 · 동국대) △밀교의궤의 수행관(정성준 · 동국대 강사)이 발표된다.

교계 처음으로 한국불교 의식문에 담겨있는 화엄신앙과 사상을 대웅전 예경문을 통해 고찰한 해주스님은 미리 배포된 논문에서 "종교에 있어 의례는 그 종교의 신앙과 사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를 유포시키고 교단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석문의범(釋門儀範)〉에 의거, 대웅전 예경문에 녹아있는 화엄신앙과 사상을 분석한 해주스님은 〈석문의범〉 '예경권' 고찰을 통해 "예경문에 수록된 각 단의 명칭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신앙해왔던 불보살과 신중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석가모니불 · 아미타불 · 미륵불 · 약사여래불을 주로 모시며 화엄법계를 상징하는 제망찰해의 일체 삼보를 믿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해주스님 —

"한국불교 의식문 화엄사상 바탕둔 통불교적 성격"



— 정성준씨 —

정토신앙 실천법 밀교관법 수행에 직접적 영향

즉 일체 삼보를 시방삼세의 모든 부처님세계에 상주하시는 삼보로 일컫고 있으며, 제망찰해도 중중무진의 화엄세계를 드러내주는 말이라는 것. 또 대웅전 예경문의 오분향례(五分香禮) 향수해례(香水海禮) 소례참례(小禮懺禮) 대례참례(大禮懺禮) 등에 나타난 화엄신앙과 사상의 측면도 연구했다.

특히 오분향례의 경우, 처음 오분향을 올리는 내용에서부터 화엄사상이 짙게 깔려있어 "화엄법계에 두루한 오분향을 시방에 계시는 삼보께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주스님은 "〈석문의범〉에 실린 전통적 오분향례는 정화이후 칠정례로 바뀌기 전보다 화엄적 측면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덧붙이며 "우리나라에 화엄이 전래된 신라 이후, 화엄은 불교의 식에 있어서도 매우 주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밀교의궤의 수행관-성립과 전개를 중심으로'를 발표하는 정성준씨는 "밀교의 유가관법을 이루는 외형적 요소들은 근본적으로 초기불교의 선정수행과 대승불교의 유가관법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대승불교 가운데 정토신앙의 실천법인 관불(觀佛)과 관정토(觀淨土)의 수행은 밀교의 관법수행 탄생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대승경전속에 등장하는 진언과 다라니, 불형과 인계, 장신구 등은 모두 밀교관법의 대상으로 밀교의 경궤 가운데 섭수되어 의궤화된 소재"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황필호 교수(강남대)의 '분석철학에서 본 종교와 의례관계-윙가레트의 공자해석을 중심으로'와 윤이흠 교수(서울대)의 '종교와 의례-문화의 형성과 전수' 주제발표 외에도 기독교, 유교, 도교, 무속, 인도종교, 종교심리 · 종교교육, 신종교, 한국종교, 종교현상학 · 비교종교학 분과로 나뉘어 분과별 연구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은 기자

"화엄일승사상 고찰 탄허스님 업적 계승"

내년 5월 국제 학술세미나 준비 원행스님



"화엄사상이 인류화합의 사상이자 미래문화를 열어갈 수 있는 선구적 사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5월 오대산 월정사에서 개최되는 '오대산 화엄사상과 탄허대선사' 국제학술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원행스님(동해 삼화사 주지)은 4월2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대산에 주석하며 21세기를 창도해가는 사상은 화엄의 일승사상과 삼성원융사상임을 설파하신 탄허스님의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됐다"며 "한국의 오대산과 중국의 오대산이 화엄 일승사상을 중심으로 같은 불교문화를 형성했음을 조명하고 '오대산'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미나 준비를 위해 4월27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본 화엄학연구소 소장 코지마다이잔(小島岱山)씨를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오대산 화엄사상과 탄허대선사' 세미나는 △21세기와 화엄사상 △동양사상과 화엄사상 △중국 오대산 불교문화와 한국 오대산 불교문화 △탄허대선사와 화엄사상 등을 고찰한다는 계획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불교석학들이 대거 초청된다.

원행스님은 "물질만능주의와 환경오염, 경제위기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구촌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상은 '화엄사상'뿐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지눌스님의 정혜결사 정신 현대사회 병폐 치유책

김방룡씨 논문발표

보조국사 지눌(1158~1210)의 '정혜결사'의 이념과 사상을 수심(修心)과 융회(融會), 이타자비(利他慈悲)로 분석하고, 이를 현대사회 병폐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논문이 발표됐다.

김방룡(원광대 동양종교학과)씨는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한국종교〉 제22집에 발표한 '지눌의 정혜결사 이념과 성격'에서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자비를 실천한다면 이데올로기의 대립, 지역감정, 학연과 지연에 의한 분열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자연히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선 · 교의 갈등 등으로 당시 고려불교의 타락된 현실을 직시한 지눌은 정혜결사운동을 통해 불교계 내외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했다"며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로 이뤄진 정혜결사의 이념과 사상을 되살린다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병폐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혜결사의 성격을 △근기(根機)의 중시 △이론과 실천의 통일 △회통(會通)불교적 결사 △대중불교적 결사로 분석하고, "대중들의 자발적 참여로 정과 혜를 닦으면서도 노동과 운력을 통해 교단을 유지하고, 청규를 정해 정법불교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대중적 불교'의 전형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방룡씨는 "정혜결사가 던져주는 교훈은 현실에 대한 통찰과 정법불교를 위한 실천, 더불어 사는 삶의 자세"라며 "이러한 정신에 바탕해 지금의 한국불교도 불교본연의 모습으로 일신하려는 결사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광법사는 김대문의 종증조부"

명성스님 주장

화랑 세속오계를 지은 원광법사가 화랑세기를 저술한 김대문의 종증조부이자 승려낭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성스님(운문사 승가대학장)은 경산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경산문화연구〉 제2집에 게재된 '원광법사와 운문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원광스님은 진골귀족으로서 어린 나이에 경주 황룡사로 출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광스님의 성씨가 박, 설, 김 씨의 3성으로 문헌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 의해 외조부 등의 성씨도 계승한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명성스님은 "중국문헌인 〈속고승전〉과 우리 문헌인 〈해동고승전〉 〈고본수이전〉 〈삼국유사〉 〈화랑세기〉 등에 원광법사의 성씨와 가계, 출가년도와 장소, 입적한 연도 등이 조금씩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면서 "원광법사는 중국 유학에서 귀국하여 운문사를 처음으로 중창한 뒤 인근의 가슬갑사로 옮겨가 귀산과 추항에게 화랑의 실천규범인 세속오계를 가르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미국불교계 호스피스

'부처의 죽음' 등 7개 사이트 암 · 에이즈환자 등 봉사 활동

죽음에 대한 종교적 관심은 동 · 서양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한국불교계가 장묘 · 영가천도 등으로 인간의 죽음에 다가선 반면 미국불교계는 편안한 죽음을 돕는 호스피스(Hospice) 활동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미국불교계 호스피스는 총 7곳. 이중 △부처의 죽음(Belly of the Buddha-The Buddhist AIDS Network)과 △선(禪) 호스피스(The Zen Hospice Project) 등이 두드러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선(禪) 호스피스'는 불교적인 관점과 방편으로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이트. '선 호스피스'는 샌프란시스코 불교계가 1987년 호스피스 사업을 전개하면서 만든 비영리 법인으로 자원봉사자 훈련, 유관 단체들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세계적인 호스피스 모델이 되고 있다.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문헌정보'에는 죽음과 호스피스에 관한 많은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뉴스레터 '패러다임(Paradigms Magazine)'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체험과 환자들의 수행생활을 엿볼 수 있다.

'부처의 죽음'도 미국 불교인들의 에이즈에 관련한 봉사활동 상황을 소개하는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봉사활동과 불자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 다양한 전통에 기반을 둔 불자와 불교단체들이 에이즈 예방과 치료, 환자들에 대한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HIV와 에이즈에 관련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에이즈 환자들(PWA)이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맥리건(52)는 "우리의 수행은 우리 눈앞에 닥친 것을 돌보는 것이며 에이즈가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다. 우리의 호스피스 활동은 일상의 수행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에이즈에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는 도시빈민들은 에이즈에 감염되어서도 정상적인 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바로 진정한 신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뉴욕에서 에이즈 환자들을 구호하는 △The White Plum Buddhist AIDS Network, 로스앤젤레스에서 암환자를 돌보는 △The Buddhist Aids Project, 뉴욕에 거주하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주택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The Greyston Health Services, 메릴랜드의 닝마파 티벳사원에서 살고있는 게이들과 레즈비언들의 수행 · 치료를 소개하는 △Kunzang Palyul Choling 등이 호스피스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Belly of the Buddha-The Buddhist AIDS Network
http://www.itp.isoa.nyu.edu/~faulty/pato/

△The Zen Hospice Project
http://www.well.com/user/devarja/

출판시대 TEL (02)3443-4307 FAX (02)3443-4308
Paramita Books
파라미타 북스는 불교 및 불교관련 저서 시리즈입니다. 좋은 원고가 있으시거나 책을 출간하시려는 분은 출판시대 편집부(02-3443-43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歷代宗正法語集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 있나



겨레의 정신적 지도자 역대 종정들의 삶과 가르침!

2천만 불교인 뿐만 아니라 겨레의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한 역대 종정들의 삶과 가르침을 한데 모은 역저.
현 종정이신 월하 스님을 비롯하여 성철, 청담, 효봉, 동산, 서옹, 고암 스님 등 역대 종정 법어집은
현대 한국 불교사에 있어 처음 보이는 견성체험(見性體驗)의 어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역대 종정 스님의 법어(法語)는 한국 선종의 독특한 오도(悟道)의 육성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우리는 역대 종정 스님들의 어록 앞에서 어떨 때는 영혼이 상처를 입고, 자성(自性)이 붕괴되는 충격을
만나게 된다. 왜냐하면 실존적 자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다.



월하—마음 밖에 부처가 존재치 않으니
성철—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청담—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효봉—부처와 중생의 모양이 다르지 않으니
동산—부처 없는 곳을 향해 간다
서옹—선(禪)이란 참 나를 찾는 길
고암—부처님은 광명이요, 불변의 진리

● 김정휴(불교신문 사장) 편저/496면 값 15,000원 ● 법보시용으로 주문하시면 할인해 드립니다.

우리시대의 걸승(傑僧) 정휴 스님의 불교신문 인기칼럼 모음집
천수천안(千手天眼)
· 김정휴(불교신문 사장) 지음/280면/값 6,000원



되살아나는 붓다의 가르침
석가의 본심
석가(釋迦)의 출가(出家)와 득도(得道)의 과정을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번역한 것. 괴정(苦)와 유마라(有魔羅) 공(空)의 사상, 인기법(因緣法) 등 석가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풀어 이 책을 통해 한 사람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불(成佛) 가이드
● 오카와 류호 지음/김영숙 옮김/값 10,000원



불교TV회제의 프로그램 드디어 출간
밀교강좌
한국불교와 밀교(密敎)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높은 밀교 안내서. 밀교란 무엇이며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밀교의 유래적인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성불(成佛)에 대한 밀교의 견해 등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불교TV에 방영되어 화제가 되었던 내용을 단행본으로 엮었다
● 대한불교진각종 혜정 지음/값 12,000원

절망 뒤에도 희망은 있다
'억척의 대가'로 알려진 백운학 운명감정 40년 상담 에세이
절망 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인생상담에 응한 사례를 엮은 책
● 백운학 지음/266면/값 7,000원

너의 運命 얼골에 있다
마의천(麻衣天) 선생의 얼굴빛 관상학!
제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해도 사람을 볼 줄 아는 혜안(慧眼)이 열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 마의천 지음/400면/값 15,000원

T 3443-4307
F 3443-4308
출판시대



불교 지금 서구에선...

"神 없는 신앙 실재 찾자" 열풍

"문명은 그 기반으로 삼고 있는 종교의 질에 의해 결정난다"는 관점을 견지해온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1889~1975)는 그의 말년에 문명과 종교에 관한 매우 의미있는 발언을 남겼다.

"현대인이 가져야 하는 종교는 '법(法)'을 근본으로 하는 종교이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종교는 유다계의 일신교이고, 탈그리스도교적인 무신론에 선 과학적 진보에 대한 신앙이다.…야훼같은 유일신보다는 불교에서 말하는 보편적인 생명의 법체계 쪽이 '궁극의 정신적 실재'를 보다 그르침이 없이 나타내고 있다." 〈21세기와의 대화〉 '종교의 역할' (일조각, 1986)

'타임'지 불교관련 표지

토인비의 충고 때문이었을까. 지난해 10월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는 '미국의 불교에 대한 관심(America's Facination with Buddhism)'이란 기사를 커버스토리로 장식했다. 불교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함께 유명 연예인 및 체육인들의 불교에로의 개종과 불교에 대한 관심을 소개했다.

이를 두고 조성택교수(뉴욕주립대)는 "미국인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미국 주류사회의 큰 흐름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음을 말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 불교인구는 2백만명, 불교센터 및 사원의 수는 1천62개로 추정하고 있다(미국불교의회). 1백50여년 전 아시아 이민과 함께 상륙한 불교가

美 불자 2백만명…불교센터 등 1천여곳
유럽 불교확산 "20세기 놀랄만한 현상"

이제 미국 주류사회의 새로운 종교·사상적 흐름을 형성하면서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다. 앞으로는 불교인의 숫자에서는 물론이고 불교학 연구의 중심지로서의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인도에서 발생, 아시아를 중심으로 퍼지며 각국의 전통과 상호교감하면서 불교문화가 꽃피었듯 '미국 불교'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는 얘기다.

그런 징후는 출판, 영화, 인터넷 사이트 등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불교 책 한두 권은 꼭 들어 있다. 지난 해 가을 베트남 출신의 틱낙한 스님의 〈살아있는 붓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판매부수 1백만권을 돌파해 밀리언셀러로 기록됐다. 출판 분야에서 카프라와 초프라를 빼놓을 수 없다.

오스트리아 태생의 물리학자로 '신과학'의 대표적 인물인 프리초프 카프라.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으로 대표되는 현대물리학을 불교, 도교, 힌두교 등 동양사상으로 접근하고 이론적으로 해명해냈다. 카프라의 사상은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뉴턴의 고전물리학에 압착한 기계론, 결정론, 환원주의적인 패러다임으로부터 유기체적, 시스템적, 전체론적, 생태학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탁월한 지혜〉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 〈생명의 그물〉 등 카프라의 저서는 미국 및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어 전세계의 과학계와 사상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신과학 운동, 신생활 운동 등을 촉발하게 하였다.

인도 태생의 의학박사 디팩 초프라는 미국 터프스의대와 보스턴의대 교수를 지낸 내분비내과 전문의로 '대체의학'의 권위자. 1백60만부 이상 팔린 그의 저서 〈성공을 부르는 마음의 법칙 7가지〉는 불교의 선과 공자, 노자사상을 통해 진정한 성공의 길이 인간의 본성과 그 안에 담긴 순수한 잠재력을 깨닫고 자연법칙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데 있음을 강조한다. 지난해 펴낸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7가지 정신적 법칙〉 역시 이같은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더 앞서는 20세기 서구 사상가들에게 '이성 중심의 서구문명의 대안으로 불교정신'을 알린 헤르만 헤세, 보르헤스, 옥타비오 파스, 토마스 머튼 등 작가와 사상가들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90년대 들어서는 '인터넷으로 만나는 불교'가 큰 흐름을 이끌고 있다. '부디즘(Buddhism)'으로 검색되는 사이트만도 2만7천여개에 이른다. 물론 정보제공보다는 단순한 단체 소개에 한정하는 곳도 있지만, 말 그대로 키보드만 누르면 불교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미국불교가 티벳과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았듯 인터넷 불교도 이들 나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불교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4백77개, 티벳은 3천5백11개, 일본은 6백73개이다.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수행자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80년대 이후 헐리우드 영화의 주요한 특징으로 얘기된다. 인생의 선을 찾아 구도행각을 나서는 한 청년의 일생을 그린 철학적인 작품 '면도날'(존 바이런 감독)을 비롯 '환생' '리틀부다' '티벳에서의 7년' '비욘드 랭군'이 대표적이다. 지난 해 미국에서 개봉된, 달라이 라마의 일생을 그린 영화 '쿤둔'에 이르기까지 그 행렬은 계속되고 있다.

헐리우드의 불자 스타들

왜 헐리우드에서 불교영화인가. '쿤둔'의 감독 스콜세지는 말한다. "물질을 넘어선 정신의 세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점이 항상 나를 끌어당겼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이같은 이유로 그들은 불교에 다가오고 있다.

리처드 기어는 헐리우드의 수도승으로 불린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불교야말로 최고의 종교"라고 말한다. 장 끌로드 반담, 키아누 리브스, 조디 포스터, 산드라 블록, 수잔 서랜든…, 미국 프로농구팀 시카고 불스의 코치 필 잭슨, 영화 '베어'의 감독 베르톨루치. 항상 대중적 관심의 중심에 놓여 있는 이들이 모두 불교인이다.

60년대 미국의 선센터 20여개 가운데 대부분이 일본불교였다. 스즈키 다이세츠에 의한 선열풍이었다. 지금도 일본 선이 미국불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달라이 라마로 대표되는 티벳불교가 최근 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대학은 3천여곳인데, 티벳불교를 배운 사람들이 교수진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90년대 이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참여불교(Engaged Buddhism)의 중심에는 인권과 평화의 이미지를 획득한 달라이 라마가 있다.

틱 낙한도 미국불교의 중심이다. 그의 책 〈살아있는 붓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미국인의 의식을 흔들고 있다.

여기에 '서구에서 서구에로의' 불교 전파인 웨스턴부디즘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세계에 160개 지부를 두고 각종 예술활동을 펼치며 서구인들에게 불교를 전하는 '서방불교의 친구들(Friends of Western Buddhist Order)'의 활동이 최근의 두드러진 움직임이다. 이 모임은 영국인 상카라시타가 지도하고 있다.

서양의 신비주의적 전통과 동양적 사고가 혼합된 뉴에이지 신앙운동도 미국불교의 한 유형이다. 뉴에이지 신앙의 구체적인 실천방식으로는 명상법(meditation)이 중시된다. 70년대 활성화되었다가 이후 침체기를 거쳐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신앙운동이 활발하다. 이 운동을 전통적인 개념의 종교로서보다는 정신치료 또는 인간 잠재력 개발로 보기도 한다.

유럽도시마다 불교단체

현능스님에 의하면, 미국의 불교는 이민자들에 의한 '보따리 불교'에서 한국의 숭산스님, 일본의 스즈끼 다이세츠로 대표되는 포교 차원의 '수출불교'를 거쳐 미국인들 스스로가 한국인도 일본 등을 찾아 불교를 배우러 가는 '수입불교'의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은 이미 독특한 '그들의 불교'를 뿌리내렸다.

유럽에서는 학문적 대상으로 불교가 연구되다가 19세기 말에 이르러 종교로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다. 독일의 사상가 쇼펜하우어를 비롯한 몇몇 사상가들은 이미 불교사상의 진가를 인식하고 있었다. 베를린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등 주요 도시마다 불교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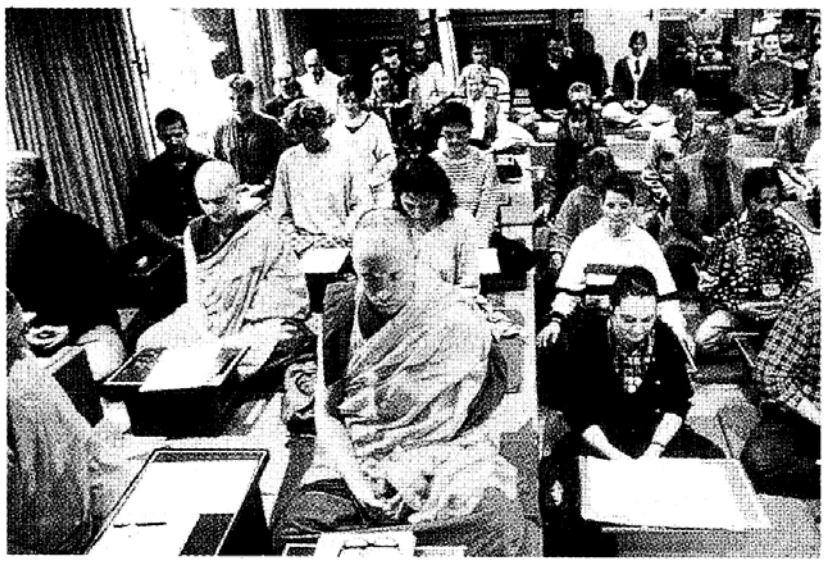
영국은 1924년 유럽 최초의 불교단체인 불교협회(The Buddhist Society)를

불교관련 출판·영화 인터넷 '급증세'
카프라, 동양사상 접근 '신과학' 창출

비롯 티벳불교명상센터, 런던불교센터, 중관불교센터를 중심으로 불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많게는 1백60개까지의 지부를 영국 내 또는 해외에 설치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책상다리를 하고 새벽 좌선을 하는 광경은 더 이상 신기한 뉴스거리가 되지 못한다. 프랑스 불교신자연합에서 파악하고 있는 신도수는 60만명으로 94년 수만명에서 몇 년 사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언론은 불교의 확산을 '20세기 후반 프랑스 사회에 가장 놀랄만한 현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서구에서 불교와 선은 '새로운 자유정신' '무한한 내적 자유의 추구' 등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불린다. 저만치 떨어져 있는 연구 대상의 불교에서, 그리고 문화와 철학으로서의 검증을 거쳐 이제 그들은 삶의 지표와 '탁월한 지혜'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4월 13일자에 '신이 없는 신앙, 불교'를 특집으로 꾸며 불교에 대한 독일인의 관심을 반영했다. 사진은 함부르크 티벳선센터의 좌선 모습.



◇프리초프 카프라



◇디팩 초프라

서구속의 한국불교



◇숭산스님



◇삼우스님



◇도안스님

현재 전세계로 진출해 있는 한국사찰은 2백10여개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미국 1백45, 일본 10, 독일, 캐나다, 아르헨티나 각각 3곳 등 15개 나라에 분포하고 있다.

숭산스님은 1972년 미국 프라비던스 선원을 설립한 것을 비롯해 미국 전역에 50여곳의 선센터를 운영하고있다. 한마음선원도 미국과 아르헨티나 독일 등에 11개 선원을 설립,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LA 관음사(주지 도안)는 교포사회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 진출 한국사찰의 숫자는 적은 것은

15개국에 210여 사찰 진출
교포사회 구심점 역할
현지인 포교는 초기단계

아니지만, 대부분 교포 대상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어 현지인에게 한국불교를 알리는 데는 아직 초기단계라는 지적이다.

로버트 버스웰교수(캘리포니아주립대학 한국학연구소장)는 "미국에서의 한국불교는 교민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하기 때문에 미국인과의 교류는 제한적이다"며 미국 본토 문화와의 폭넓은 대화를 통한 토착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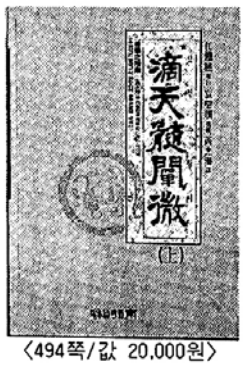
버스웰교수는 숭산스님의 사례를 하나의 모델로 제시한다. "숭산스님은 미국인 학생들을 포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거기서 뿌리를 내린 후에 한국 이민사회로 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러한 포교방식이 양쪽 사회의 이질감을 줄이고 미국에서의 포교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했다.

1967년 미국으로 건너간 이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선수행도량 선련사를 세워 한국불교를 전파하고 있는 삼우스님은 "기복불교는 서구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이들은 스스로 불교의 사상과 정신을 공부하고, 참선을 통해 자아를 제득하고자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한다.

이와 함께 지식인·상류층 중심에서 중·하층민 포교를 통한 대중화도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서출판 좋은날 (02) 393-0417~8, 팩스 (02) 313-0104
'문화 유산의 해' 기념 출판
'9시 뉴스'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발간즉시 4쇄 돌입
법정스님이 추천한 책!
경허스님이 깨달음의 노래를 부르던 눈 속의 천장암, 성철스님의 '삼천배'가 화두로 전해지는 백련암,
꿩들이 마중하는 법정스님의 불일암, 한강의 발원지에 너와집으로 선 오대산 염불암,
산벚꽃이 만개한 설악산 오세암 … 그 물 흐르고 꽃 피는 청산으로 가고 싶다.
작가 정찬주가 〈중앙일보〉에 1년간 연재한 정신문화 성지순례 수상집. 마음이 허허로운 이들을 보듬어주는 어머니 같은 곳들, 청산에 안겨 있는 암자들이 손에 잡힐 듯이 눈앞에 펼쳐진다.
정찬주 지음 · 김용희 사진 / 올컬라 고급 반양장 / 값 9,500원
책속에 암자엽서가 들어있습니다.
암자로 가는 길

장가 안가길 잘했네
베스트셀러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의 저자
· 우학 스님의 새 수필집 ·
"장가 안가길 잘했네!"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과 함께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전 2권 각권 6,500원)
-도서출판 좋은인연-
053)475-3707
우학 스님의 책
☞ 삼천배 삼천부 처님(신간) 삼천배를 쉽게 하는 책
☞ 마음을 밝혀주는 새 법구경(신간) 현실에 꼭 맞는 아름다운 법구경 모음집
☞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 (전 4권) 불교가 이렇게 재미있군요…
☞ 새롭운 불교공부 전국 불교 교양대학의 기초교리 입문서
☞ 불자수행지침서 모든 불교 의식을 알기 쉽게 총 망라!
☞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상·하)
☞ 불교 EQ ❶❷
☞ 불교 한자 시리즈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사경, 초발심자경문, 증도가 외 다수

명리서의 백미, 命學之書의 교과서
滴天髓闡微

〈滴天髓〉는 치밀하고 적확한 이론과 사리에 부합되는 명리서의 백미이며 命學之書의 교과서.
芮光海 譯
〈494쪽/값 20,000원〉
● 통신판매 ●
· 조흥은행 : 436-04-054683
· 국민은행 : 833-24-0147-067
· 서울은행 : 39807-0602412
· 축 협 : 047-11-12095-316
(예금주 : 서 찬 배)
도서출판 指南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196-4(3층)
TEL : 02)387-8429, 264-1757
FAX : 357-7493, 264-5139

"부처님 법따라 자비·행복 추구"

'세계평화를 위한 2차 불교도대회' 발표
러시아·인도·프랑스 불교 복지 환경운동 실태

참관기고



김 동 혼
〈경불련 운영위원장〉

구랍 24일부터 28일까지 타이완의 수도 타이페이(臺北) 근교에 있는 보련사(寶蓮寺)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제2차 불교도대회'가 열렸다. 한국을 비롯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캐나다, 프랑스, 독일, 홍콩, 말레이지아, 네팔, 러시아, 스리랑카, 타일랜드, 타이완, 미국, 베트남, 인도 등 16개국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참여했다. 세계 평화를 위해 불교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각 국의 불교도가 서로 연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인류의 최대 현안인 자연 생태위기, 전쟁과 빈곤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다. 참가자는 스님, 사회활동가, 불교학자 등이었고 각 나라별로 불교현황과 사회를 위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노동자마을, 불교환경교육원, 불교자원봉사연합,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프랑크 테데스코 교수(세종대)가 참여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김동혼 경불련운영위원장을 통해 대회에서 발표된 러시아 인도 프랑스의 불교계 복지·환경운동 실태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구랍 25일, 대회 기간에 맞춰 대만 보련사에서 새로 지은 불사리탑 낙성식이 있었다. 네팔에서 고승중의 한 분인 초기 트린첸 린포체(Chogey Trinchen Rinpoche)가 승려들을 이끌고 참석하여 전통 티벳의식으로 행사를 주관했다.

티벳에서 태어난 그는 7세 때 출가하여 많은 공부와 수행을 한 14대 달라이 라마의 세스승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한다. 원형 사리탑 안 불단 정면 유리관에는 오색 찬란한 부처님 진신사리, 가섭존자 사리, 금강사리, 나한 사리 등이 봉안돼 참배할 수 있었다.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 온 불자들로 새벽부터 경내는 인산인해를 이뤘고, 불자 모두에게 3과씩 사리를 나눠줘 사리가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세계평화를 위한 2차 불교도대회'에는 16개국 스님·재가불자가 참여 "우리는 부처님 법따라 자유와 행복을 찾는다"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러 불자 1백만명…바이칼호 생태계 보존 앞장
인 사회교육센터 히타이운영 '더 나은 삶' 모색
프 개발·정복등 지양…생명존중 인성회복 중시

러시아 러시아에는 약 3백년 전 티벳과 몽고로부터 불교가 전래됐고, 1917년 공산혁명 전에는 70여개의 사원과 4만명의 스님이 있었다. 1930년대 초에 모든 절은 파괴되고 스님들은 죽거나 피신했으며, 1946년에야 두 개 사원이 다시 문을 열수 있도록 당국이 허가했다.

지난 5년간 불교가 부흥하여 지금은 50여개의 사원과 1백만명의 불자가 생겼고 53명의 스님이 해외유학 중이며 150여명이 국내에서 불교교육을 받고 있다.

불자가 많은 우란 우드(Ulan-Ude)지역에서는 병원(병상 70개, 의사 5명)을 운영하고 어린이 교육에도 관여한다. 특히 바이칼 호수(Lake Baikal)의 생태보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 호수는 세계 맑은 물의 20%를 저장하고 있으며, 호수 남쪽 지역에 위치한 16만5천헥타에 이르는 생물보존권에는 7백87종의 식물과 3백 종류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환경보호가 어느 곳보다 중요한 곳이다.

그들은 생태보호 문제에 불교가 정신적 측면과 행동덕목에 있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인 도 불교의 기원지인 인도는 힌두교와 카스트 관습 때문에 지난 1천년간 불교의 불모지였다.

56년 10월 위대한 인도 민중의 지도자인 암베드카르박사(Bhimrao Ambedkar)에 의해 50만명의 불가촉 천민이 불교로 개종하면서 비로소 불교가 고향에 되돌아왔고 지금은 불자가 2천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인도 독립 후 초대 법무장관이 된 암베드카르 박사는 미신과 계급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불교가 오랜 관습에 찌든 인도사회를 변화시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믿었다.

그의 인도주의와 개혁정신에 감화된 서양의 불자들이 위대한 승단에 귀의하는 사람들의 모임(TBMSG)을 만들었다.

이 기구는 불교를 가르치는 다르마 센터(Dharma Center)와 사회복지와 교육을 위한 바후쟌 히타이(BAHUTAN HITAY)를 설립해 운영한다. 전국 20여개의 다르마 센터에서는 명상, 범인류적인 사랑과 친절, 기초교리를 가르친다.

'더 많은 사람의 복지를 위해'라는 모토를 가진 히타이는 교육기회를 상실한 빈민가의 어린이를 상대로 운영하는 49개의 유치원과 소녀들을 위한 비정규교육기관(예를들어 넘마 쫍기를 하는 소녀들), 어린이 도서관, 탁아소, 여성 자립을 위한 봉제학교 등을 운영하면서 동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사는 천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사회개혁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를 대표한 베트남 출신의 티치후엔 비(Thich Huyen-Vi) 스님은 석가모니는 모든 인류의 행복과 선을 위해 태어났으며, 비폭력과 자비, 범인류적인 사랑, 불법의 가르침을 통한 인성의 변화가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성이 세계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며 대규모의 개발과 정복은 지구를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끝으로 이번 대회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우리는 부처님의 법에 따라 자유·선한 삶·자비심을 수행하고 최고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교육제도 개선을 통해 불공정하고 폭력적인 사회구조와 국제경제질서를 개혁한다. 참가자와 각국 불교지도자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연대하여 세계 만방에 불법을 포교할 것과 인류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기를 기원한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성냄의 장 *



진실로씨
거짓을
이기라

이 향 원



대중불교는 옳지못한 것을 가려내는데 그치지 않고 바른것을 더욱 바르게 피는 일을 함께 합니다.



월간 대중불교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재)대원정사

〈대중불교〉를 만나고서야 나는 마침내 말씀의 꿈틀이는 맛을 느낄 수 있었다!

곧은소리
불가의 잣대는 언제나 부처님 마음입니다.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대중불교〉는 그 잣대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시사, 쇠북소리, 귀담아듣고 새겨볼 이야기, 연중기획, 특별기획 …

깊은 풀이
해석이 없는 경전은 없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옛것을 옛것으로 놔두지 않고 현실로 끌어와 오늘을 움직이게 합니다.
수행칼럼, 세계의 선지식, 에세이 보살불교, 불교교리 산책, 법당이야기, 불교와 민속, 얼과 문화, 페사지를 찾아서 …

넓은 만남
경전이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곧장 부처를 만나는 길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방송교재 경전강의, 교리강좌, 불교 영어 한마디

정기구독문의:전화(02)773-5731, 752-7047, 754-1614
팩시밀리(02)771-6796

밀교학의 근원과 최신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밀교학 입문서

밀교, 그 위대한 가르침을 읽는다

B.밧따짜리야 지음
장익 옮김

밀교입문

밀교의 근원, 특히 인도교 탄트라와 불교 탄트라를 비교분석해 놓은 밀교학 입문서이다.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을 인도고대문화와 결부시켜 상세히 언급하고 특히 인도교와의 상호연관성에 관하여 상세히 분석해 놓은 원저작 이후 최근까지 30여 년의 연구성에 따른 학계의 다양한 학설을 께 실어 20세기 이후 밀교학 연구의 진척과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오늘날 인도의 일상생활과 풍습 및 관습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문화이며 인간의 정신적 완성과 심적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인 밀교. 밀교의 역사적 생성과정과 인도의 고대문화, 그 정신세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국판 284면/ 값 6,000원

최신간 中論頌研究 ●김인덕 지음/ 양장/ 376면/ 값 12,000원

불광출판부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160-1 전화 420-3200, 3300 / 팩시밀리 420-3400

새로나온 책…

▲마음의 비밀 2(성운스님 법어·이인옥 역)=불광산에서 대만 불교를 이끌고 있는 성운스님의 법어집을 우리말로 옮겼다. 스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신심과 기쁨, 편리함과 봉사를 펼것'을 강조한다. 〈토방, 6천원〉



▲오세동자의 오도(백운스님 지음)=불교사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큰스님들의 이야기를 소설화 했다. 세상을 가장 멋지게 살았던 고승들의 발자취를 설화형식으로 흥미있게 재구성했다. 〈불광, 6천원〉



▲전등록 2(문재현 옮김)=송나라 진종경덕 원년에 오나라의 사문 도언(道彦)이 석가이래 조사의 법맥을 체계화하고 법어를 기록한 〈경덕전등록〉을 번역했다. 〈바로보인, 1만8천원〉



▲두손 모은 곳에 자비가(불교문화진흥회 엮음)=부처님의 가르침과 생애, 절에서의 예절, 기초교리 등을 알기 쉽게 풀이한 불교 입문서. 〈관음, 6천원〉



▲죽음의 길을 어떻게 잘 다녀올까(전이창 지음)=죽음은 내가 떠나온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죽음은 삶의 막다른 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영가천도의 중요성을 에세이식으로 서술했다. 〈솝리, 7천원〉

청소년 불서포교 '거북 걸음'

작년 불과 15종 출간…상업성 고려 외면

포교원 '추천제' 검토…올 만화출판 활기띨 듯

불교 경전 속에는 아동에게 좋은 정서와 인성을 심어줄 수 있는 수많은 재료가 있다. 선재동자의 구도행각이나 본생담, 신비하고 재미있는 불교설화 등 불교 내의 소재만도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실제 이런 내용을 어린이·청소년들에 맞게 불서로 출판된 도서는 크게 미비해 청소년 포교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책방 여시아문과 불서총관 운주사의 도서목록을 분석한 결과(1월6일 현재), 교계출판사에서 펴낸 어린이·청소년불서(이하 아동불서)는 260여종이며, 이중 순수 불서는 130여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한해 출간된 아동불서는 15종 18권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한출판협회가 지난 9일 발표한 95년 출판통계상의 아동부문 신간발행 종수 4,163종의 0.36%에 불과한 수치다.

내용별로 보면, 교리서는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좋은인연) 〈어린이불교〉(동국역경사업진흥회) 〈청소년 불교수련의 길잡이〉(정토) 등 4종이며, 동화책은 〈부처님의 땅 3·4〉(불지사) 〈코끼리의 눈물〉(밀알) 〈지혜로운 바람이 들려주는 불교이야기〉(가리온) 등 5종이다. 또 전기는 〈석가모니의 생애와 가르침〉(밀알) 〈어린이를 담은 큰스님 상·하〉(우리출판사) 등 2종이며, 만화책은 〈만화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사사연) 〈만화 화엄경 5·6〉(불교만화사) 등 3종, 동요는 〈피아노 찬불동요〉(현대음악출판사) 1종 등이다.

새싹불자를 키우자
현대불교 연중 캠페인

1월6일 현재까지 나온 아동불서를 출판사별로 살펴 보면, 룸비니불교동화 시리즈를 펴낸 고려원미디어가 14종으로 가장 많은 책을 펴냈다. 불광출판부가 10종, 햇빛출판사가 10종, 우리출판사가 9종, 불지사가 7종, 불교만화사·관음출판사가 6종, 창작과비평사·교학사가 5종씩을 각각 출판했다.

'잘해야 본전'이란 아동불서 출판시장의 현황을 볼 때 올해도 그 전망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하지만 최악의 출판시장을 경험한 교계출판사들은 비디오 세대를 위한 불교만화 출판을 중심으로 포교용 아동불서의 출판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출판사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춰 지눌·경허·성철스님 등의 전기를 소설화한 청소년불서 〈고승의 발자취〉 10권을 1차로 펴낼 예정이다. 또 불교만화사는 3월경 〈만화 화엄경〉 7~10권을 발행, 화엄경시리즈를 완간하고 대원정사는 종립고등학교 교재를 펴낼 예정이다. 고려원미디어는 〈만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5권을 곧 발간하며, 밀알출판사도 〈청소년을 위한 불교이야기〉 시리즈 4~6권인 〈화엄경〉 〈아함경〉 〈유마경〉을 발간한다. 불지사는 3월경 만화 〈화이팅 손오공〉을 펴낸다.

한편 금년을 불교청소년 해로 지정한 조계종 포교원은 2월초까지 〈청소년법요집〉 발간을 마무리지으면서 교계출판사의 의견을 수렴, '불서 추천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재경 기자

"포용·실천 두드러진 화엄사상에 매료"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 김두진 교수



"독특한 포용성과 강한 실천성을 지닌 의상의 화엄사상에 매료되었지요."

제36회 한국출판문화상 저작상 수상자로 선정된 국민대 김두진(50·국사학과)교수는 "불교사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종사상과 화엄·유식 사상이 조화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됐다"고 말했다.

수상작 〈의상 그의 생애와 화엄사상〉(민음사)은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의 화엄사상과 신라중대의 전제정치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저서. 의상의 생애, 화엄사상의 논리구조와 역사적 의의 등 전체 8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라 화엄사상을 고대의 사회사상으로 정립하려는 시도의 산물이다. 〈균여화엄사상연구〉등의 저서와 수십편의 논문을 발표해 온 그는 현재 불교신앙과 토착신앙과의 융합현상 등을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재〉

95년 종교서적 중 불서 24%차지

지난 95년 새로나온 불서는 모두 443종으로 지난해 신간 종교서적(1834종)의 24.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책방 여시아문 불서신간목록과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의 '95년 출판통계'상의 수치를 비교한 것.

한편 '95년 출판통계'에 따르면 발행종수는 2만7407종으로 94년(29,564종)에 비해 7.2%가 줄었으며, 부수도 1억4418만3607부가 발행되어 94년보다 5.3% 감소했다. 이중 종교서적 발행은 94년 1941종에서 5.5% 감소했다.

'문화대국으로…' 펴내

문체부의 중견관료들이 우리나라 문화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 정책집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을 지식산업사에서 펴냈다.

화제의 책

보살사상 경구선집 — 월주스님 편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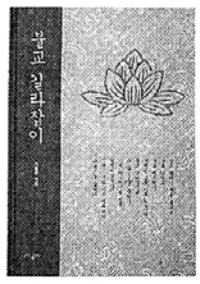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등 보살행의 실천에 앞장서 온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유마경 법화경 화엄경 등 8편의 대승경전 중 보살사상이 담긴 경구들을 가려뽑아 해설을 덧붙인 〈보살사상 경구선집〉을 펴냈다.

"보살행이란 진리를 현실속에서 구현시키는 불자의 임무이자 의무로서 중도적 연기관에 입각한 이타행이요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라고 강조해 온 월주스님은 지난 89년 경실련 공동대표를 필두로 불교인권위, 공추불, 시민단체협의회 등 여러 시민단체의 사회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보살행을 고무하는 첫 시도'란 스님의 설명처럼 이 책은 〈6백부 반야경〉 중 공관사상에 기초한 6바라밀의 보살수행을 강조하고 있다. 또 〈법화경〉에서는 보살행이 일승행 즉, 성불행에 귀일됨을 표방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운주사, 1만5천원〉

보살수행 가르침 한권에 결집

불교 길라잡이 — 곽철환 지음



불교에 처음 입문한 이들에게 불교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풀이해 엮은 〈불교 길라잡이〉(곽철환 지음)가 나왔다.

이 책은 불교에 대한 자의적인 해설을 피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경전과 어록, 고승들의 저술과 비문을 인용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초심자를 위해 많은 도표와 사진을 실었다.

초심자위한 교리·의식등 해설

제1장 '인류의 벌 석가모니'에서는 붓다의 생애를 중심으로 연기, 사성제 등의 기본교리를 서술했다. 제2장 '꺼지지 않는 등불'에서는 초기교단과 경전의 성립, 대승불교의 출현, 대장경의 성립을 서술했다. 제3장 대승의 세계, 제4장 선, 제5장 불교의 세계관, 제6장 간추린 한국불교사, 제7장 불교의 식, 제8장 사찰을 찾아서, 제9장 불교에 대한 99가지 문답과, 부록 '불전 다이제스트'로 구성돼 있다.

〈시공사, 1만8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 타	효 림
2	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쳤겠나	서 암	동 지
3	돌부처	이 근 후	여시아문
4	금강경강의	무 비	불 광
5	무소유	법 정	범 우 사
6	신통	혜 윤	청 마
7	방한암 선사	김 호 성	민 족 사
8	등신불	석 용 산	문학수첩
9	불교의 이해와 실천	이 중 표	대원정사
10	평화로움	틱 낙 한	대 원 사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승찬대사 '신심명'

신심명(信心銘)은 중국 선종의 3조인 승찬(僧璨)대사가 지은 글이다. 내용은 불법의 근본사상인 중도(中道)를 4언절구(四言絶句) 146구 584자(字)로 읊은 짧은 운문(韻文)이다. 선(禪)에 관한 중국에서 성립된 문헌으로는 초조 달마(達磨)의 남긴 글이 몇편 전하나, 대부분은 위작(僞作)이라고 하며, 2조 혜가(慧可·487~593)의 글은 한편도 없음으로, 3조 승찬(?~606)의 '신심명'은 중국 선승이 찬술한 최초의 글이다. 달마가 전한 대승선(大乘禪)의 오묘한 선리(禪理)가 '신심명'에 의하여 명확하게 표현되었으니 실로 중국 선종사상 획기적인 글이다.

신심명은 가장 짧은 글이나 그 의의에 있어서는 부처님 일대의 설법을 위시하여, 8만4천법문, 5천7백여권의 경전및 조사(祖師)들에 의하여 검토된 1,700공안(公案)도 다 이 146구에 불과한 짧은 글속에 남김없이 설파되었으니, 실로 '신심명'은 불법의 요약이요, 대승선·조사선의 원천이요 귀결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큰 사찰이나 선원에서 예불때에 독송하는 좌우명(座右銘)이 되고있다. 내가 이 같이 소중한 '신심명'을 평생토록 수지 독송하게 된것은 30여년전 부터이다. 1960년경에 조계종 종정으로 재차 추대된 하동산(河東山)큰스님께서 조계사에 주석하셨을 때이다. 번뇌를 씻기 위하여 찾아 뵙고 청법하니, 스님께서는 즉석에서 '신심명'의 첫구인 '지도무난 유혐간택(至道無難 唯嫌揀擇)' 8자를 화두로 써주셨다. 그후 여러해 지난 후 우연한 기회에 신심명 전문(全文)을 얻게 되었는데, 그때에 어찌나 기뻤든지 146구 584자로 된 전문을 깡그리 외운것이다. 그후 오늘날까지 항상 낭송하면서, 불법의 오묘한 중도사상을 참구하고 있다. 동산큰스님의 이처럼 크신 법은(法恩)을 갚을 길이 없어 조석예불을 모실때에 명복을 빌 뿐이다. 그러면 '신심명'의 내용은 어떠한가? 그 요지는 첫머리에 든 '지도무난 유혐간택' 1구에 다 설파하였다고 할수 있다. 즉 본심 자리(至道)를 깨치는 일은 어려울 것이 없다. 오직 간택을 싫어한다. 즉 본래심은 이지불이(理智不二)의 분별없는 반야지(般若智)인데 자타의 차별상에 집착하여 득실 시비를 가리게 되고, 밉다 곱다는 증애(憎愛)하는 망심을 내어서 본심을 잃게 되니,



박 관 섭
(건국대 명예교수)

中道 4언절구로 읊은 선종서

경전·공안 핵심내용 빠짐없어

오직 증애심만 없으면 청정한 본래 마음이 환하게 현전(現前)한다고 설파했다. 이런 요지를 이모 저모로 40번이나 거듭하면서 간절하게 서술한 우아하고 운치있는 글이다. 승찬대사는 일체의 차별이 되는 두변(二邊)은 상호 의존의 이지불이(理智不二)에 즉(卽)한 하나로 통일된 원융무애한 공(空)이기 때문에, 양단(兩端)이 동일함으로, 삼라만상을 모두 다 포함하였다고 갈파하였다. 그러므로 일체의 두변에 집착하지 말라, 분별심 때문에 생긴 망견(妄見)은 꿈속에 꼭두각시나 허공꽃을 파악하려는 어리석음과 같다고 하였다. 진여 법계에는 〈자〉도 〈타〉도 없다고 하였다.

요컨대 '이것'에도 '저것'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불이(不二)에 즉한 중도의 이치를 알게 되면 해탈한 대자유인이 된다고 설파한 것이다.

大韓國人 安重根 義士
일본 헌병의 존경과 참회의 생애
日本에서는 佐木隆三(사키류조)가 쓴 "伊藤博文과 安重根", "曠野의 烈士 安重根" 등 10여 종의 서적이 발간되었으며 安義士의 생애와 사상(東洋平和論)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작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무관심 속에……
자매결연으로 인연을 맺은 日本 仙台(SENDAI)소재 大林寺 주지 齊勝(사이또 다이켄) 스님의 권유로 八公山 藥師庵의 一如스님이 번역하여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자료들, 놀라운 장면들!!
見利思義見危授命
이로움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주라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네가 공소를 한다면 그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되고 만다.
네가 나라를 위하여 이에 이르렀은 즉 죽는 것이 영광이나 모자가 이 세상에서는 다시 상봉치 못하겠으니 그 심정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으리……"
(安義士 어머니가 상고를 포기하고 죽음을 택하라는 충고)
-본문 중에서-
연락처 : (053) 825-0803, 藥師庵 一如

이시대 최고의 충격적인 신간
신비한 부적의 세계
부적이란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운담 엮음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행운은 이 책안에 있습니다
▲신년 대운을 잡는 비결부
▲입학, 취직, 승진 등 각종 시험에 합격하는 비결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비결부
▲연예인을 비롯한 인기인이 되는 비결부
▲운동선수가 되는 재능을 얻는 비결부
▲부자가 되는 비결부
▲귀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인연성취 비결부
▲사업을 성공시키는 만사형통 비결부
▲삼재소멸 비결부
▲팔리지 않는 집, 땅, 점포를 잘 팔리게 하는 비결부
▲화·재앙을 피하는 법과 방해꾼
운담 엮음/신국판/328쪽/값12,000원
침묵의 소리 값 8,000원
여보게, 무엇을 그렇게 고뇌하는가 값 7,000원
침묵의 소리 신청 02)444 3575 5310 입금 02 5436 1064 종로서적 신청 02)732 5381 입금 02)732 6202

●참은 남의 외로움이 이 작은 책에 사리사리 서려져 저 허공에 데이리처 울려 퍼지리라
▶용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권하는 도서!!
72년 ○월 ○일
녹슬은 철조망에 비가 내린다.
녹슬은 철조망에 참새가 앉았다 날아간다.
-본문 중에서-
스님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한 원납용사로서, 한 젊은이의 외로움과 공허가 여기 담겨져 있다.
지금 어느 누가 이 젊은이만큼의 넓은 눈과 넓은 마음을 가졌을까?
당신이 젊은이라면,
이 책은 당신이 모르는 또다른 당신을 얘기한 것이다.
호 반 출 판 사
☎ 02) 3673-0224
※ 교보·영풍문고에 있습니다 정가 5,000원
허공에 서려 묻혀진 세월

탈 종 공 고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번지 152호
■사찰명 : 원효사
■주 지 : 한영호 (학봉)
상기 사찰 및 주지는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탈종하오며, 그 증거로 탈종서를 공고합니다.
1996. 1.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법하

정정공고
본지 60호 신년축하광고 중 「부산불교실업인회」 광고에서 부회장 최참을 최찰로 바로 잡고 사무차장 이해윤이 누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찾·습·니·다
전통불화 배우실 분
전통불교미술의 맥을 이어 기도·정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대 佛事의 새 영역을 개척하고자 불광미술원이 새 가족을 찾습니다.
■성별 : 남
■연령 : 만 18세 ~ 25세 (군필 또는 면제자)
■학력 : 제한 없음
■기타 : 신심 돈독한 불자
■문의 : (02) 477-9178
불광불교미술원

포교 및 기도의 원력을 가지신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종무행정을 담당할 여법우룰 모집합니다.
• 문의 (051) 625-2253 625-2254
불교교육회관 부산공덕원
주지 석효선 합장

시방세계

불사의 현장
불·교·조·각·원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내무장엄불사, 불교목공예품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TEL : (02)738-8447~8



◇경복사지 계곡의 초입. 경복사는 보덕스님이 평양 연복사를 공중으로 날려 완주군 고달산으로 옮겼다 하여 '비래방장'이라고도 불린다. 앞으로 보이는 고달산은 8만9천개의 암자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사찰이 많았다고 전해진다.



◇보덕스님을 항상 바라보며 수행하겠다는 염원으로 제자들이 고달산 건너편 모악산 기슭에 세운 대원사. 경내에는 열반종의 창종과 보덕스님의 행적을 적은 사적비와 고구려계 석탑이 남아있다.



◇목정밭으로 변해버린 고달산 중턱의 건물터에 축대가 옛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고달산 전역에서 이런 절터가 20여개나 확인됐다.

'완주 고달산' 경주 남산 버금가는 부처님나라

경복사지 복원 움직임



◇경복사지를 홀로 지키고 있는 폐가. 기둥, 축대, 주춧돌 등 모든 유구가 경복사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가공한 흔적이 있는 주춧돌. 중앙의 홈으로 보아 2자 정도의 기둥을 받치던 주춧돌로 추정된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전북 완주군 구이면 고달산 서쪽 기슭에 자리한 경복사지(景福寺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따르면 경복사는 원래 고구려의 보장왕이 도교를 숭상해 불교를 탄압하자 보덕(普德)스님이 650년 열반종 사찰인 평양 반룡산(盤龍山) 연복사(延福寺)를 옮겨 창건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 보덕스님은 제자 6백명을 거느리고 백제 땅 완산주(지금의 전주)로 망명하면서 공중으로 사찰을 날려 옮겨 비래방장(飛來方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재 가람이 있었던 곳곳의 너른 터는 밭과 무덤으로 변했다. 여기저기 나뒹구는 주춧돌과 석축, 기와편들이 아니었다면 절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돼 있던 경복사 복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반종 혜곡종정은 경복사에 대한 문헌 및 현장 조사를 실시, 한국불교사적으로 매우 가치있는 폐사지라며 발굴조사와 함께 복원사업이 시급하다고 2월20일 문화재관리국에 건의했다. 문화재관리국은 2월24일 원상태의 원형보존이 가장 바람직하며 유적보존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 향후 보존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전북도와 완주군도 현지 실태조사를 벌인 끝에 3월14일 경복사지에 대한 발굴조사의 의지를 표명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수립시 경복사 복원의 기초가 되는 지표조사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 사실 경복사와 보덕스님에 대한 연구는 이미 40~60년대 포광스님, 권상로박사 등에 의해 시작돼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됐었다.

복원논의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사찰의 중심지라 추정되는 곳에는 폐가 한 채가 홀로 옛 절터를 지키고 있다. 기둥이며 주춧돌, 축대 등 모든 것이 옛 경복사 유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1척2촌의 거대한 기둥에 남아있는 짜맞춘 흔적(홈)이라든지 건물에 비해 규모가 큰 주춧돌이 이 사실을 말없이 전해주고 있다. 폐가 옆 숲속에는 가공한 흔적이 있는 주춧돌 2기가 넝쿨에 가려져 있는데 2자 정도의 기둥이 섰을 법하다. 그러나 다른 뚜렷한 성보문화재는 없다.

1976년 전북대박물관은 전북의 문화재를 조사하면서 완주군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했다. 17개소의 건물지가 확인됐으며, 석등대좌의 유구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고덕산 경복사 만력40(高德山 景福寺 萬曆四十)'이라는 명문이 씌여진 기와편을 수습해 사찰의 이름을 확인. 기록에만 전해오던 경복사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워낙 외지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도굴꾼들에 의해 훼손을 입게 됐다. 한 마을주민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독(부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같은 게 있었지만 누군가 와서 가져갔다는 말을 전해준다.

1300년전 보덕스님과 제자들 수행처
삼국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거찰 위용
건물지 확인…명문기와 석등대좌 발견

경복사가 자리한 고달산(일명 고대산·해발 603m)은 경주 남산에 버금가는 부처님의 나라다. 신라인들이 남산을 불국정토로 여기고 산과 바위에 온통 부처님을 새기고 탑을 세웠다면 보덕스님과 그의 제자들은 삼국의 환난을 하루바삐 벗어나 불국정토에 태어나길 염원하며 이곳에서 불법을 닦고 후진양성에 힘썼다. 고구려에서 제 뜻을 펴지 못하고 이국땅으로 망명한 그들에게 고달산은 극락세계라기 보다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하던 곳이었다.

고려때 대각국사 의천이 경복사에 봉안돼 있던 보덕스님 진영을 참배하고 지은 시에는 원효와 의상 두 스님이 보덕스님에게 〈열반경〉과 〈유마경〉을 배웠다는 내용이 전한다. 이로 보아 경복사는 고구려·백제·신라의 수많은 학승이 모여 〈열반경〉을 배우고 공부하던 당시의 대표적인 승려교육기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뒤 경복사의 교세는 반창혜 통일신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 세종 6년(1424) 선교양종으로 통폐합될 때까지 교종계의 강력한 교파를 형성했다. 비록 숭유억불 정책으로 교세가 다소 미약해지기는 했지만 당시 나라에서 승려의 수 및 토지의 결수를 정할 때만 해도 승려수 70명, 전지 50결의 대찰이었다. 정확한 폐사연도는 알 수 없지만 1799년 편찬된 〈범우고〉에 경복사가 존재한다고 나와 있어 조선후기에도 법맥이 이어져 왔음을 알수 있다.

현재 고달산 경복사 주변에는 20여개의 건물지가 있다. 전해오는 이야기는 8만 9천개의 암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대로 믿을 바는 못되지만 상당히 규모가 컸던 것만은 틀림없다. 더욱이 보덕스님에게는 개심(開心)·명덕(明德)·무상(無上)·적멸(寂滅)·의융(義融)·지수(智藪)·일승(一乘)·수정(水淨)·심정(心情)·사대(四大) 등 10대제자가 있어 완주군 등지에 많은 사찰을 창건, 오늘날까지 법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일승, 심정, 대원 등은 멀리서나마 스승인 보덕스님이 계신 경복사를 바라보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건너편 모악산 기슭에 대원사(大院寺)를 창건했다. 이곳에는 열반종의 창종과 보덕스님의 행적을 적은 사적비와 고구려계 석탑의 흔적이 남아있다.

지금은 폐허가 된 채 내버려진 땅. 그러나 고달산 경복사지에는 이땅에 불국정토를 세우려던 보덕스님과 그의 제자들의 염원이 깃들어 있다. 발에 채이는 기와편, 주춧돌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사진=윤기석 기자



◇보덕스님 진영

경복사 창건 보덕스님은 누구

열반경 정통…열반종 시조로 추앙
원효·의상스님에게 영향 미쳐

〈삼국유사〉에 따르면 보덕스님은 법명이 지법(智法)이고 고구려 용강 출신이다. 우리나라 열반종의 시조로 추앙받을 정도로 열반경에 정통했다. 항상 평양성에서 살았는데 산방 노승의 간청에 못이겨 〈열반경〉 40권을 강의했고, 대보산 바위굴 밑에서 참선하다가 땅속에 묻혀있는 8각7층석탑을 발견, 거기에 영탑사(靈塔寺)를 세우고 머물렀다.

보덕스님은 국토의 모든 중생들이 늘 서로 화합하고 정법을 말하며 살기를 바라는 서원을 세우고 그 어려운 시기에 정법을 수호하는 일에 정진했다. 또 권력에 눈먼 지배자들의 잘못된 종교정책으로 인해 현실도피의 잘못된 신앙에 빠진 고구려 백성들을 정법으로 인도하고자 직언도 서슴치 않았다. 왕이 이를 듣지 않자 650년 주석하던 평양 연복사를 날려 하룻밤 사이에 백제의 완산주 고달산으로 옮겨 경복사를 창건했다는 이야기는 스님의 강직한 기풍과 법력을 말해준다. 망명후에도 백제의 권력자와 결탁하지 않고 제자들을 양성하며 열반경을 가르치기에 힘썼다. 제자들도 스님의 깊은 뜻을 이어받아 무상은 금동사(金洞寺)를, 적멸과 의융은 진구사(珍丘寺)를, 지수는 대승사(大乘寺)를, 수정은 유마사(維摩寺)를, 일승은 삼장대원 등과 대원사(大院寺)를, 사대와 계육은 중대사(中臺寺)를, 개원은 개원사(開源寺)를, 명덕은 연구사(燕口寺)를 각각 창건했다.

보덕스님은 비록 당대의 삼론종 계통 스님들처럼 '종'을 개창하지는 않았지만 스님의 열반사상은 제자들에게 계승돼 후대(통일신라)에 열반종으로 결실을 맺었고, 원효와 의상스님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大韓佛教涅槃宗

● 寺刹登錄申請案內 ●

대한불교 열반종은 삼국시대 고구려 보덕성사께서 창종한 종단으로서 백제의 고대산 경복사(서기 650년)를 창건하고 적멸, 의융등 십육대 제자와 원효, 의상대사 등 수많은 고승을 배출하고 전국에 수백여 대가람을 창건하여 현재까지도 일백여 사찰이 남아있는 오교종중의 대표적 종단이었습니다. 조선조시대 세종(서기 1407년) 불교단압으로 조선불교선교양종된 이후 통합 종단인 교종은 단일종단으로서 유지되어 왔습니다.

서기 1954년 불교정화에 이어서 통합종단인 조계종이 서기 1962년에 창종되었으며 서기 1970년 이후, 교종인 열반종을 중흥 하였으나, 정통의 법맥을 면면히 이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에 중흥한 지 벌써 30여 성상이 되었습니다.

본종은 현재까지 많은 발전을 하였으며 열반종의 총본산 연화산 와우정사는 재단법인이며 본종은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협의회의 회원종단으로서 포교, 교육, 보살행, 자비인욕 등을 실천하는데 기여하며 인도(INDIA)의 불교단체와 미얀마(MYANMAR) 불교종단, 스리랑카(SRI LANKA) 불교종단, 태국(THAILAND) 불교종단, 대만(TAIWAN) 불교종단등과 교류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불교발전을 위하여 노력함과 청정한 불교도로서의 귀감이 되고저 교학의 연구와 수행정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승적 사상으로 동참하여 본종의 종도로서 상구보리 하화중생 포교전법과 정진을 함께할 승려와 사찰의 등록을 환영합니다.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불기 2542년 5월 3일 부처님오신날



■ 대한불교열반종 총무원 전경 ■

敎 祖 : 釋迦牟尼佛
本尊佛 : 釋迦牟尼 涅槃佛
宗 祖 : 高句麗 普德聖師
創 宗 : 西紀 六二三年
中興祖 : 海巖海谷 三藏法師
中興年 : 西紀 一九七十年
宗 旨 : 一切衆生 悉有佛性
所依經典 : 大般 涅槃經

● 大韓佛教涅槃宗總務院 ●
■ 宗 正 : 海巖海谷 三藏法師 ■ 院 長 : 金 海 月
· 總務院 : 경기도 용인시 해곡동 223번지
· 電 話 : 0335)32-2472, 0335)39-0101~3
· 院長室 : 0335)39-0048, FAX : 0335)39-0104
· 郵便番號 : 449-800

● 總本山 財團法人 蓮華山 臥牛精舍 ●
· 住 所 : 경기도 용인시 해곡동 산43번지
· 電 話 : 0335)32-2472, 0335)39-0101~3
· FAX : 0335)39-0104 · 郵便番號 : 449-800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이양품(利養品) ①

芭蕉以實死 파초이실사
竹竭實亦然 죽노실역연
駑騾坐妊死 거허좌임사
士以貪自喪 사이탐자상

파초는 열매 맺어서 죽고
대와 갈대의 열매도 그러하며
버새는 새끼를 배면 죽고
사람은 탐욕으로써 스스로를 죽인다

如是貪無利 여시탐무리
當知從癡生 당지종치생
愚爲此害賢 우위차해현
首領分于地 수령분우지

이와같이 탐욕엔 이익이 없으니
어리석음을 좇아 생기는줄 알라
어리석은 이는 탐욕때문에 어진이
해치다가
땅을 나눠 받아 묻히게 된다

天雨七寶 천우칠보
欲猶無厭 욕유무염
樂少苦多 낙소고다
覺者爲賢 각자위현

하늘에서 칠보의 비가 내려도
욕심은 오히려 만족하지 않으니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만 많다
이를 깨달은 이 현자가 된다

雖有天欲 수유천욕
慧捨無貪 혜사무탐
樂離恩愛 낙이은애
爲弗弟子 위불제자

비록 하늘같은 욕심이 있더라도
지혜로운 이 이를 버려 탐하지 않아
은애 여의는 걸 즐거워 한다
그는 진정 부처님의 제자

遠道順邪 원도순사
貪養比丘 탐양비구
止有堅意 지유간의
以供彼姓 이공피성
勿猗此養 물의차양

도를 멀리하고 삿됨을 따라
이양을 탐하는 비구여
아끼려는 그 생각 버려서
남들을 공양하고
그 이양엔 기대지 말라

爲家捨罪 위가사죄

此非至意 차비지의
用用何益 용용하익
愚爲愚計 우위우계
欲慢用增 욕만용증

집을 위해 죄를 버림은
지루한 뜻이 아니다
애쓰고 애쓴들 무슨 이익 있으랴
어리석은 이 어리석은 꾀로
욕심과 교만만 날로 더한다

異哉失利 이재실리
泥洹不同 니원부동
諦知是者 체지시자
比丘佛子 비구불자
不樂利養 불락이양
閑居却意 한거각의

이상하도다 이익 없음이여
그들은 열반에 같이 들지 못하리니
이 이치를 분명히 아는 이
부처님제자 비구라
이양을 즐거워 하지 않고
고요히 살면서 뜻을 물리친다

自得不恃 자득불시
不從他望 불종타망

"탐욕엔 이익이 없고 괴로움 많으니 욕심을 버리고 버려 남들을 공양"

하늘에서 칠보의 비가 내려도
욕심은 오히려 만족하지 않으니
즐거움은 적고 괴로움만 많다
이를 깨달은 이 현자가 된다

望彼比丘 망피비구
不至正定 부지정정

스스로 얻되 남의 것 믿지말며
남의 소망도 좇지 말라
그런 것 바라는 비구는
바른 선정에 이르지 못한다

夫欲安命 부욕안명
息心自省 식심자성
不知計數 불지계수
衣服飮食 의복음식

무릇 제 명에 편안코자 하거든
생멸심 쉬고 스스로를 살피되
의복이나 음식 따위
수량을 셈하여 알려하지 마라

夫欲安命 부욕안명
息心自省 식심자성
取得知足 취득지족
守行一法 수행일법

무릇 제 명에 편안코자 하거든
생멸심 쉬고 스스로를 살피되
얻는 그대로 만족할 줄 알아
오로지 도의 길을 지켜나가라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눈에 보이는것 집착하니

벽암스님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약력
- 1924년 경남 남해 生
- 45년 일본 관서공업전문대 졸
- 47년 적음스님 은사로 매명스님 계사로 구족계 수지
- 49년 서울 호국사 역경원 대교과 수료
- 60~66년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
- 68~73년 동국학원 이사장
- 68~75년 조계종 선학원 원장 및 이사장
- 72~75년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 78년 조계종 총정 직무대행
- 86년~現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 現 공주 신원사 조실

사월초파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절기로도 만물이 소생해 물오른 때입니다. 꽃들은 갖가지 빛깔로 만발하고 나무들도 싱멍력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포함해서 만물이 살기좋은 때입니다. 반드시 불자가 아니어도 초파일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의욕을 보이는 기운이 감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작년말부터 듣도 보도 못한 IMF인가 뭔가 하는 경제한파가 몰아닥쳐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살림이 펴지지 않으니 마음들까지 위축돼서 궁색해 합니다. 이렇게 인간들이 사는 사바세계는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또 자신이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자신의 업과도 관련돼 있습니다. 이렇게 업연에 의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중생세간이라고 합니다.

중생세간에는 육신을 가진 생명, 또 감각을 느끼고 생각을 하는 생명 등 많이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생명만도 땅 하늘 바다를 포함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종류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마어마한 숫자의 생명을 한데 묶어서 무리 중(衆)자 날 생(生)자를 써서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생세간이구.

그러나 이렇게 많은 중생들이 생명을 가지고 살지만 그 누구도 자기의 생명이 어디서 오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생명이 떠난 육신은 그대로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물질이다 이겁니다. 물질에 불과한 육신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 코로 냄새도 맡고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비로소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의 출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심지어 불교를 좀 안다하는 사람들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봐 왔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생명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으면, 아무 생각없이 내 몸 속에 있는 나 라는 몸 전체가 생명이라고 답하거든요.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인연에 의해 생멸변화하는 것일 뿐이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我)라는 존재가 있다고 집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루살이의 수명이 하루라면 하루살이는 그 속에 기간이 하루인 생명이 있을 뿐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생각더로라면 인간 생명의 공간을 자로 잰다면 여섯자도 못되고 시간적으로는 60~70년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천만의 말씀이지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생명은 횡변시당이요 수궁삼제라는 말과 같이 옆으로는 시방에 가득 찼고, 위 아래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정체를 잘못 알고 사니까 바른 생활이 어렵고 어긋나는 생각이 이어져 나와 그것이 입으로 가면 구업(口業)이요, 행동으로 나타나면 신업(身業)이요, 생각으로 가면 의업(意業)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신·구·의 3업이 생명의 본질과 맞지 않아 나오는 셈이지요. 그러다보니 중생의 삶은 공연히 전후사방의 좁은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시간과 공간 속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공기가 눈에 보인다면 제대로 숨도 못 쉬고 살테지요 이처럼 집착이 삶의 큰 장애"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신후 중생세간을 살펴보니 내 몸속에 따로 내가 있다는 망상을 하고 있더라 이말입니다. 나라는 분별을 가져 구분을 하고 집착을 하면 탐심과 진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모여 나라는 집착을 한다고 해도 생명의 본질은 원융한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것을 법성(法性)이라고 하는데 가히 시간적으로 끊을 수도 없으며 나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은 세상의 과거 미래 현재를 한꺼번에 보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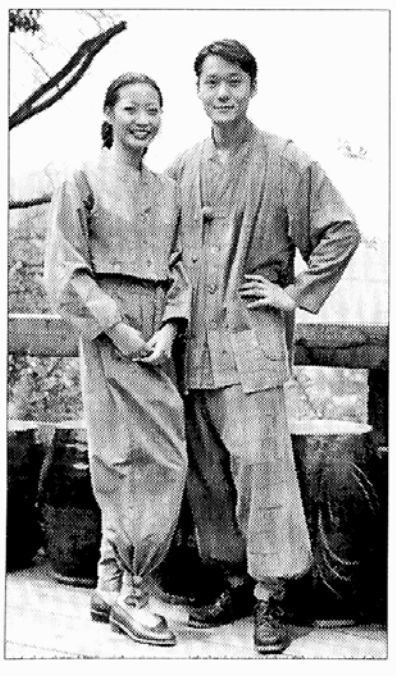
그런데 중생들은 그저 이것을 자꾸 나누고 끊어서 자기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체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자연히 법성의 자리와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의 병통입니다. 중생들은 과거에서부터 미(迷)한 상태에 처해서 앞으로 몇겁 몇천겁 후에까지 윤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나라는 집착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을 아집(我執)이라고 하는데 아집으로 인하여 생사를 두려워하고 자기의 생활이 욕망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고통과 번뇌에 싸여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양, 이와 같은 성질 이와 같은 중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꺼번에 도장찍어 놓은 것과 같이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은 저마다 다른 업을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공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공기속에서는 자재함을 얻지요. 반면 물고기는 물 속에서 자재합니다. 올빼미나 박쥐는 어둠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이 다르기 때문이예요.

그런데 만약 공기가 사람의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 봐요. 또 물고기의 눈에 물이 보인다고 가정해 보자구요. 그러면 분명히 사람이나 물고기들은 공기와 물에 부딪칠까봐 제대로 숨조차 쉬겠습니까. 행동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착을 하면 오온이 개공할 수 없고 따라서 자재하기란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말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모든 감각이 각자의 업대로 나타나거든. 같은 사람일지라도 업이 다 다르니 우리가 이 업을

매월 첫째 토요일은 '한복입는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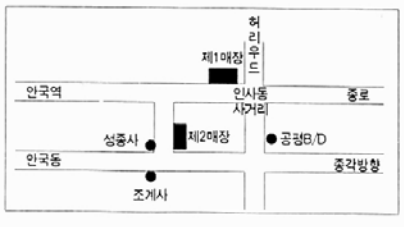
민족의 멋 우리의 옷 예 맥 생활한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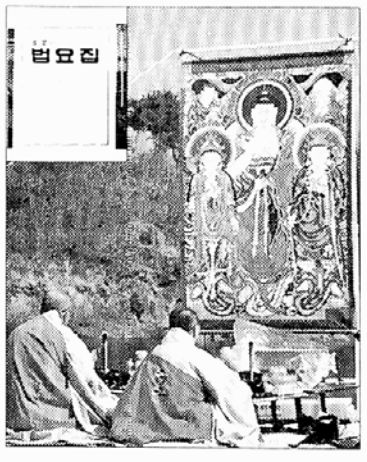

우리옷 "예맥"의 제품 구성
- 수준 높은 천연 염색 실크 제품
- 가벼운 소재와 전통미의 생활 한복 및 아동복
- 각종 연회 예복 제작
- 스님들의 간편복
- 신도님들의 단체복, 기도복 제작
- 기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원하시는 대로 제작해 드립니다.

본 사 : 조계종 포교원 앞 위치
직영매장 : 인사동 4거리 위치
전국대리점모집 : 佛子로서 본찰 주지 스님 추천서 요
※ 판매책임자 구함(여 30세 이상 불자)

본 사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9(원당BD 202호)
(株)예맥 어패럴
전 화 : 737-0804~6 팩스 : 723-4599
제1매장 : 서울 종로구 인사동 1-4번지
☎ (02)723-4600
제2매장 : 서울 종로구 견지동 68-1 ☎ (02)738-3939



다중용 법요집 및 괘불



〈 괘 불 〉
- 규 격 : 높이 7자, 폭 4자 5치
- 특 징 : 방수완벽, 조립간편
- 가 격 : 90만원(괘불대 포함)

▶ 괘도내용 : 법회식순과 찬불가, 기초교리
감 수 : 암도 큰스님

佛教布教資料院
서울特別市 龍山區 厚岩洞 195-6
電 話 : (02)772-9052, FAX : (02)755-0479
(02)672-1333, 723-4599

큰스님 수행한담

고통과 번뇌의 삶 연속”

“생명은 시공을 초월하는데 60평생 70평생 하며 사니 신·구·의 삼업 지어요”



◇1985년 서울 휘경학원 체육관 기공식에서 숭산스님(앞줄 왼쪽), 외국인스님들과 함께 한 벽암스님(앞줄 오른쪽).

깨고 그 불성(佛性)에 합하여질 때 기운이 옳게 만들어지며 바로 이를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경제적 어려움이 깊어져 너 나없이 우울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되고 못 되는 것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된 것 모두 우리나라 정계 재계지도자는 물론이고 국민 스스로 이렇게 오도록 행동했던 인과입니다. 콩의 씨앗을 뿌렸기에 콩의 싹이 돋았다는 말이예요. 분수는 생각 않고 사치와 허영에 날뛰었던 거지요. 지금이라도 또 그렇게 행동하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몸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한사람이 병에 걸리면 비로소 전염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전염도 없는 것이거든. 그런데 병걸릴 환경이 됐기 때문에 순식간에 온통 전염되고 마는 것이지요. 생각해봐요. 그동안 우리는 100원이 있으면 더 붙여서 자랑부터 했다 그겁니다. 허풍이고 가식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분에 넘친 생활을 말아야 합니다.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공동책임이 있는 공업(共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경제난이 불변의 상황이 아니라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진리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고정된 것이 없는 변화하는 흐름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기 때문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진리에 희망의 마음을 싣게 되면 이 경제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생각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마음은 평정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거든요. 그것은 비로소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아 극복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합니다.

모든 것은 고정되지 않고 변하기에 우각하면 하루도 속 편할 날이 없어요.

나도 천성이 지는 것 싫어하고 성질이 급해요. 그러다보니 어려서부터 매사에 내 주관대로 끝장을 내야했고 해서 싸움도 잘했던 성품이예요. 몸집은 이렇게 작아도 보통학교시절부터 유도부에 들어갔고, 친구들하고도 문제가 생기면 항상 먼저 때렸어요. 급한 성미에 이기고 싶었으니까. 늘상 급장했어도 싸움에 빠지지 않았지요.

어쨌든 인연이 묘하고 엄격해요. 내 속가 고향은 기독교 천도교가 성했던 남해이고 집안은 유교집안이라 불교 믿을 생각도 할 수 없던 환경입니다.

그런데 나는 출가하려고 한암스님을 찾아 뵙고자 강원도로 가는데 누가 그래요, “서울 역경원으로 가라”고. 거기에 우리나라 일류 학승이 다 모여 있다고. 그길로 역경원으로 갔습니다. 당시 원장이셨던 은사 스님(적음스님)을 친견했고 스님이 상좌로 거둬주신 것이지요. 우리 스님은 대범한 분이십니다. 희 로 애 락을 얼굴에 안 나타내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고 반갑게 해도 얼굴만으로 정화불사에 열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겁니다.

사실 나도 큰스님을 닮아보려고 해도 잘 안돼요. 그나마 큰스님 덕분에 급한 성미는 많이 고쳐졌습니다. 지도자는 코끼리나 황소처럼 용심으로 행동하며 그 반경만큼이나 포용할 줄 알아야 하거든요. 종단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와달라는 요청으로 참여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쓸데없는 짓거리라. 한암스님처럼 가만히 있어야 했거든. 중벼슬에 담을 쌓고 살아야 하는건데.

그런데 요즘 보면 너도나도 큰스님입니다. 심지어 대조사라는 호칭도 쓰더라구요. 과거 역대조사가 그런 식으로 교화하셨거나 호칭되지 않았어요. 아랫사람 또는 신도들에게 문제가 더 있는것 같아요. “과공(寡供)은 비례(非禮)”라 했습니다. 어른을 아무리 존경해도 어울리게 앞뒤가 맞도록 해야한다 이말입니다. 조작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돼요. 수덕사 고봉스님이나 한암스님은 절대로 조실소리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유언의 감화보다는 무언의 감화가 더 크다는 것을 일깨우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포교도 말많은 것보다는 말없이 믿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처럼 행동하나하나가 바로 가르침이고 전법이고 포교였으니까요. 옛 스님들은 이렇게 포교하셨습니다. 한암스님이 오대산에 계실 때 40여년간 밖에 나온 일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수행하시면서 품었던 뜻은 네가 자취를 감추어 천년의 학이 될지언정 백년동안 공교로이 말하는 꾀꼬리를 배우지 않겠다는 말씀은 참으로 귀감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나라 일도 그렇고 종단 일이나 개인사도 주의와 이념으로 흐려가야 합니다. 제대로 좋게 되기 위해서는 네게 손해가 있더라도 대의와 명분으로 임해야 하거든. 그런데 요즘 세태가 어디 그래요?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하고 무엇을 위해 뭉쳐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무엇이 어떻고를 말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상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과거 큰스님들이 입다물고 있는 것이 다 그런 이유에섭니다.

그저 나는 유구무언일 뿐입니다.

정리=위영란 기자

‘제행무상’ 바로 알면 절망 이길 수 있어

“웃고 사세요…웃고 살면 여유 생겨요”

리는 희망을 지닐 수 있는 것이고 그 여유 속에서 극복이 가능합니다. 마음의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의 일체는 마음에 달려있어 자꾸 희망을 가지면 나쁜 기운은 가 버리고 간절히 바라는 바는 성취됩니다. 그리고 많이 웃으세요. 나는 요새 자꾸 웃어요. 또 자꾸 웃으면 다시 웃음이 나오거든. 전화 오면 노래도 불러요. 가사도 리듬도 모두 내 방식의 노랩니다. 요 며칠전에도 외국에서 서양사람들에게 포교하고 있는 숭산스님이 안부전화하는데 노래를 불러주었더니 놀라면서도 같이 좋아하더라구. 오랜 지기들은 사실 내 웃는 모습 보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면서 많이 변했다고 해요.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인간 사는 곳에 속상한 일 많아요. 속상한 대로 생는 가늠을 못했지요. 한마디로 마음의 평정을 이룬 큰 인물이셨습니다. 그 마음을 살필 수가 없어요, 하도 넓고 깊어서… . 열반드시기 전 3년동안을 내가 시봉했는데 법명 그대로 적음(寂音)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음식타령 한번을 하신바가 없으셨으니까. 그러면서도 침술을 익히셔서 중생을 이롭게 하셨습니다. 당시만 해도 먹고살기 힘들어 가난한 이들은 병원은 고사하고 약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실정이라 스님의 인술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됐지요.

스님께서 선학원에 계실 땐데 스님의 덕망으로 신도들이 선학원 시주에 대단히 적극적이었어요. 살림살이가 어려워 대중들이 변변히 공양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도량도 정비하고 대중들과

나와 경전 52

부증불감경



김 주 곤
경산대 교수·국문학

어느날 ‘문학과 종교’ 강의시간에 한 학생으로부터 “진여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다. 나는 “자네는 진심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 학생은 그가 지니고 있는 불교지식을 동원해 대답했다. 대답을 들으면서 그 학생은 유일무이의 일법계를 보지 못하는 까닭에 사견의 마음을 일으켜 더(增)와 덜(減)의 견해에 빠져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 학생의 그릇된 견해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명쾌하고 속시원한 견해를 제시해주지 못했다. 여러날을 ‘어떻게 하면 번뇌에 얽혀있는 것을 풀어줄 수 있을까’ 고민끝에 경전을 살피기 시작했다. 혹시 학생에게 해줄만한 가르침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정신수대장경 16권에 수록돼 있는 〈불설부증불감경〉을 만나게 되었다. 읽고 또 읽을수록 심오한 뜻에 매혹되어 자비는 관음이요, 남과 나를 따짐은 수미산이요, 삿된 마음은 바다물(苦海)이며, 번뇌는 물결이요, 탐심과 성내는 마음은 지옥임을 알게 해 주었다.

〈부증불감경〉은 산스크리트본이나 티벳역본은 존재하지 않으나 〈구경일승보성론〉의 산스크리트본에 일부가 인용돼 있으며 한역만이 존재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여래와 중생계는 일계(一界)여서 증감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범부는 여래와 중생계가 일법계임을 알지 못하고, 일법계를 보지 못하는 까닭에 사견을 일으켜 증감의 견해를 가진다는 것이다.

증견(增見)이란 열반이 비로소 생긴다는 견해다. 열반이 본래는 없었다가 지금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무 인연도 없이 홀연히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연기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감견(減見)에는 단견(斷見) 멸견(滅見) 무열반(無涅槃)의 세 가지 견해가 있다.

단견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는 견해이며, 멸견은 열반을 가리키고, 무열반은 열반이 없다는 견해 즉 열반을 공적한 것으로 보는 견해로 소극적인 열반관이다.

이상과 같이 여래계와 중생계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서로 다르다는 사견을 품게 되는데 〈부증불감경〉은 그 이유를 불료의경(不了義經)에 의지하고, 공의 견해를 멀리하며, 초발심을 알지 못하고, 무량한 법을 알지 못하며, 여래의 무량한 힘과 경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등의 13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 13가지의 이유는 초발심에서부터 대열반에 이르는 순서를 나열한 것으로 중생들이 여래의 특질을 알지 못하여 이러한 사견을 범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증불감경〉에서 말하는 중생계는 일체 중생을 의미함과 함께 그 일체 중생에 있어서의 공통의 본질인 본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중생계는 여래장이며, 여래장은 법신이다. 이 법신이 항하의 모래와 같이 많은 무변한 번뇌에 얽혀서 비롯함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지금의 세간에 순수(順守)하여

여래와 중생계 증감없는 한세계 초발심서 대열반 이르는 순서 밝혀

파도에 표류하면서 나고 죽음에 왕래함을 이름하여 중생이라 한다. 이와같이 중생은 법신이 번뇌에 얽혀있으나 법신은 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는 법으로서 과거제도 아니며 미래제도 아니다. 과거제가 아니라 함은 낳은 때를 떠난 까닭이며, 미래제가 아니라 함은 멸하는 때를 떠난 까닭이다. 법신이 어리석지 않음은 곧 반야요, 반야가 집착 없음은 곧 해탈이요, 해탈이 적멸함은 곧 법신이다.

〈부증불감경〉은 적은 분량의 경전이지만 불도를 수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본성이 진실한 것임을 망각하고 진아(眞我)에 대한 사견을 나타내어 아집과 법집(法執)을 야기하지 말기를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청정하고 지혜로운 마음이 부정하게 되어 진리를 올바로 관찰하지 못하는 번뇌를 끊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경전이다. 신에 종속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완전한 존재로서 서는 것이 불교의 근본 목표라면 우리 인간이 우주 법계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경전대로 실천한다면 세계 인류의 정신적 등불이 되어 무명의 세계를 광명의 세계로 만들 것이다.

건강에의 신비! 옥

御川玉山家玉

태교에서 무덤까지 玉을 달고 산 한국인들

玉 보석인가 ‘영험한 치료제’인가

❋ 처녀가 옥을 접하면 신비한 여인이 되고 중년여성은 피부가 고와지고 건강해진다. 양귀비는 진옥을 노상 입에 물고 살았다고 한다.

❋ 옥을 경락이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몸에 지니고 살면 난치병에 이롭고 옥판위에 손바닥 발바닥을 마찰하면 노인도 회춘한다 (「王室養命術」에서)

❋ 옥도자기 타일위에서 흰쥐를 기른 결과 숫놈 쥐의 정자가 40%증가했다(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창규박사팀)

❋ 특히 심장질환, 두통, 불면증환자의 그 절반정도가 완치 효과를 보았다(북경중의병원 임상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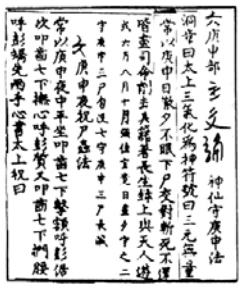
제품 옥목걸이와 장신구, 침대침구류, 기초화장품, 옥도자기등

* 옥의 명성은 2000년전 중국 신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진옥(眞玉)은 이제 전설속으로 사라지고 오늘날은 지구상 유일하게 한국기옥만이 강한 기(氣)가 방사될 뿐입니다. 이옥의 효능과 명성을 모방하여 외국에서 수입된 옥들이 춘천옥 자연옥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오-링테스트 한가지 만으로도 쉽게 구분됩니다. 진옥이라야 승패가 결립니다.

玉山家 777-0105 (백오옥)

卍 無爲眞人(무위진인) 대도통 입문 卍
제2회육신통(육경신)·정진대법회

천안통·천안신 지안신 삼십팔 6천 개안통을 하시여 제불신장을 부릴 수 있는 대대인의 도를 통하여 직접 성불할 수 있는 법과 영혼이 영생할 수 있는 법과 영가를 직접 천도시키는 법을 득도하려면 육신통기도에 입문하여 천안통, 타심통, 천리통, 신족통, 숙명통, 루진통을 성취하여 1만 2천 도인·신선·선사경지에 득도하시고 이기도는 외도나 시도나 잡신수행을 물리칠 수 있는 도통법을 도인들께서 비전으로 직송하는 도장경의 주문과 10장생건강 비법의 심기선법기공과 복식호흡과, 잡귀나 좌충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주문법등을 지도하여 금년 윤달 드는해에 입문하시면 도통은 물론 소원을 성취하며 조상산소, 이장, 사초, 묵은혼례등을 해도 아무 마장이 없으며 경신일 정오와 범자시에 천문과 천복을 받고 수미신제석 천궁신중과 8만 4천 화염신중,



법회성중 모든 신중들이 옹호하여 득도대도인이 못되더라도 한가지 소원을 이루는 날이 오니 두루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금년기도 6회가 들었으며 두달에 한번이 듭니다.
특히 이번 정진법회는 천부경, 지부경, 인부경을 직접 특강 주문강의!

●입제일 : 양 98년 5월 12일 해시(음. 4. 17.)
●해제일 : 양 98년 5월 13일 해시(음. 4. 18.)
●회 비 : 1박 2일 침식제공, 편한 옷차림, 5만원,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
(구모자원고개 삼성 A.P.T.앞 하차)
●전 화 : (주)02-821-6622 (야)02-923-3110
●휴대폰 : 016-239-3110
육신통(육경신)도통 회장 태일법사 합장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 어느날의 외로움 -

슬픔 한조각
바다위로
홀로 떠가는 부표처럼

외롭게 가슴에 머물고
소리없이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

고독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바람소리 흔들리며

노 젖는 이
그림자 등 뒤로
소슬한 바람 맞는다



원장 이 영 숙(본명)

大卒, 초·재혼 신원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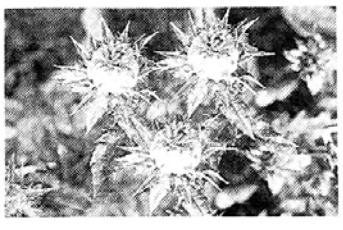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질공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민속 홍 화 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02)3431-0743/0522)61-4424
FAX 053)943-9371



◇부처님이 득도후 녹야원에서 설법하는 장면.



◇병든 비구를 간호하는 부처님. 옆에 놓인 뒤주기 재미있다.



◇외도인 우파카가 부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토속적 정서로 재현한 부처님 일대기 60장면

인형작가 김영철씨 전시회 준비

마치 이웃집 아저씨를 보는 듯한 토속적인 얼굴. 금방이라도 말을 걸 듯한 살아있는 표정. 상투를 틀고 한복을 입은 우파카가 길에서 부처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옆에는 장승 한쌍이 바라보고 있고….

디오라마(소형으로 축소하여 실경(實景)을 보여주는 것)로 재현한 부처님일대기가 꾸며지고 있다. 김영철씨(한국디오라마연구소장 · 46)가 마야부인의 태몽에서부터 부처님의 열반까지 부처님의 일대기를 60장면으로 나누어 인형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 김씨는 한국적인 풍

초가 · 장승등 한국미 물씬
당시 상황 생생…학습효과 높아

토에 초가집 기와집과 한복, 짚신, 뒤주, 장승 등을 등장시키고 인형의 얼굴도 우리나라 전형적인 농부의 얼굴을 차용해 친근한 모습의 부처님과 제자들을 보여준다.

원래는 이번 부처님 오신날 인형전을 열 계획이었는데 협찬하기로 한 모 방송사가 재정난으로 지원을 못해 할 수 없이 연기했다. "박물관에 가면 거의가 디오라마로 당시 상황을 재현해 놓잖아요. 인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들 좋아하고 학습효과도 높습니다. 부처님일대기를 이렇게 디오라마로 해 놓으면 아마 책을 읽는 것보다 더 가슴에 와 닿는것이 빠를 것입니다."

인형제작과 소품은 튼튼하기 이를데 없는 우레탄 호마이카 같은 건축자재를 쓰고 또 조금만 표정이 잘못돼도 버려야 하는 등 제작비가 수월치 않게 드는데 자비로 하다보니 일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

김영철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잊혀진 옛놀이'란 제목으로 제기차기, 천렵, 까막잡기놀이, 땅따먹기 등 우리의 옛놀이 인형전을 재현해 큰 호응을 받았다. 자신을 얻은 김씨는 오래전부터 구상했던 부처님일대기를 시작했는데 재원마련과 설치할 장소 구하기가 난감해 불교계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02)696-2660, 647-6835

"누구든지 불교에 대해 알려면 부처님의 일대기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일대기 인형을 심혈을 기울여 평생의 대작으로 만들어 내년 부처님오신날에는 꼭 대중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이경숙 기자

불교문화 체험기행

신록의 계절 5월, 경상과 전라를 잇는 지리산 자락 하동땅에 싱그럽게 펼쳐진 차밭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5월의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우리나라 차의 시배지 쌍계사 '茶 축제와 제다현장'을 찾아 갑니다.

쌍계사에 들어서면 신라때 김대렴이 당나라에서 차종자를 가져와 처음 심은 것을 기념한 차 시배비와 이절의 창건주인 진감선사의 공덕을 기린 진감선사대공탑비(국보 제47호), 대웅전(보물 제500호) 등이 여러분을 반길 것입니다.

그윽하고 은은한 차향기를 즐길 수 있는 이번 체험기행에서 다선일미(茶禪一味)의 세계를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5월 '다선일미의 세계를 찾아서'

'쌍계사 茶 축제, 제다현장'

◇출 발: 5월16일(토) 밤11시 · 조계사 앞(무박2일)
◇회 비: 4만원(점심제공)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02)72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단체참가 적극 환영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초여행사

茶한잔에 中正 얻으면 곧 '해탈'

월 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7

차



◇차공양을 올리는 석굴암(국보 24호) 보현보살.



◇차를 공양하며 어머니를 봉양하는 연기조사의 설화가 스며있는 화엄사 효대.

차잎을 따는데 그 묘(妙)를 다하고
만드는데 그 정(情)을 다하고
물은 진수(眞水)를 얻고
끓임에 있어서 중정(中正)을 얻으면
체(體)와 신(神)이 서로 어울려 건실함과 신령함이 어우러진다
이에 이르면 다도(茶道)는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초의선사의 〈동다송〉에서

불교에서 차는 깨달음의 본질을 암시하는 초월적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 언어적 표현을 초월한 경지와 그 이후의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진실한 삶의 방법을 차와 함께 이야기한다. 부처와 내가 하나되는 삶, 자연과 내가, 차와 선이 일여되는 생을 살았던 선사들의 삶이 '다선일여(茶禪一如)'의 사상으로 녹아내린다.

신라 신문왕의 아들 보천태자는 오대산 신성굴에서 50년동안 문수보살에게 차를 달여 바치고 수진(修眞)하였더니, 결국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차를 얻어 마시는 보살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전해진다. 석굴암 본존불의 왼쪽 벽에 새겨져 있는 보현보살이 오른손에 찻잔을 들고 있는 모습에서 차를 마시는 일은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과정이라는 인식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승려가 차를 마시면 부처가 된다는 생각은 백성들의 민요에서도 나타난다. 화엄사에 있는 효대(孝臺)는 창건주인 연기조사가 석등아래 한쪽 무릎을 꿇고 찻잔을 손에 든 모습을 하고 있다. 부처님에게 차공양을 올리며, 어머니에게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진리공양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차는 머리와 눈, 귀를 밝게 해주고 잠을 적게 해주며, 피로를 풀어주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아홉가지 큰 덕을 사람에게 베푼다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이뿐만 아니라 치매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 다례

불가의 다례의식은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진다. 부처님이나 신명에게 올리는 봉헌다례, 입적한 승려나 불자의 영혼을 위한 제사다례, 혼자 혹은 손님 접대시의 일상다례, 그리고 사찰 내의 크고 작은 행사시에 다공양하는 의례로, 부처님에게 차를 공양하며 현세의 복을 기원하는 풍습은 고려의 왕실에서 조선 민가에까지 폭넓게 퍼지며 일반의 차례(茶禮)로 자리잡았다.

■ 다책(茶冊)

초의선사(1786~1866)의 〈다신전〉〈동다송〉과 육우(726~804)의 〈다경〉은 차를 말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교과서. 〈다신전〉은 찻잎의 채취에서부터 차를 반드는 법, 차의 품질 식별, 차를 보관하는 법, 차 마시는 법, 다구, 찻잔, 차의 위생관리 등 22개의 항목에 걸쳐 차의 모든 것을 소개하고 있다. 〈동다송〉은 한국 다도에 있어 불후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명저. 오늘날에도 차와 선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감로수와도 같은 없어서는 안될 지침서다. 모두 18송(頌)으로 이루어져 있는 〈동다송〉은 신이(神異)한 전설을 중심으로 차의 효능, 생산지에 따른 차의 이름과 품질, 다도(茶道)의 구체적인 방법과 초의선사 자신의 다선삼매(茶禪三昧) 경지를 노래하고 있다.

차의 성인이라 불리는 당나라 육우도 〈다경〉에서 "차를 오래 마시면 신선이 된다"고 적고 있다. 차의 교본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차잎을 따는 것에서부터 만드는 일, 불과 물에 관한 일, 차를 보관하는 일 등 차의 모든 살림살이를 자세하게 얘기하면서, 선과 차의 오묘한 정신을 조화시키고 있다.

■ 연등회 · 팔관회

신라와 고려시대에 열렸던 팔관회는 불교의 팔관재계(八關齋戒) 형식을 띤 국가적 행사로 왕과 신하들이 서로 권하며 차를 마시는 팔관재 다례행사가 열렸다. 소회일(하루전)에는 차와 술도 함께 먹고 마시며 식사를 했으며, 대회일에는 신하들이 임금에게 꽃을 받아 꽂고 임금에게 차를 올리면서 나라의 광안을 기원했다.

연등회는 고려 불교와 차와 국가정책이 한데 어우러진 국가적 문화행사로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며 부처님께 일반 백성들이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기원했다. 왕궁과 마을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등불을 밝히고 임금을 비롯해 민중전체가 술과 음악 가무로 일심동체하여 즐기며 차를 마시는 민족의 대축제였다.

■ 끽다거(喫茶去)

당나라 조주 종심(778~897)선사는 찾아오는 사람마다 차를 권해 조주청다(趙州請茶)의 고사를 낳았다. 조주선사는 처음 와서 도를 묻는 납자에게도, 또 몇 번이고 오는 납자가 도를 물어도 "끽다거(차나 마시게)"라고 답했다.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차나 마시고 가라 하느냐고 묻는 원주에게도 "끽다거"라고 답했다.

일상에서 차를 마시는 일처럼 바로 평상(平常)에 도가 있음을 깨우쳐 주는 선가의 유명한 공안.



◇차와 예의 관계를 보여주는 조선말기 작품 '예자(禮字)와 다동(茶童)'.

■ 차로 유명한 절

쌍계사는 차 시배지로 유명하다. 사찰 입구에 서 있는 바위에 새겨진 '쌍계'(雙溪)와 '石門'(석문)이라 새겨진 큰 바위를 지나면 신라 때 대렴이 당나라에서 차 종자를 가져와 처음으로 심은 것을 기념해 세운 차 시배비와 함께 차밭이 펼쳐져 있다.

송광사 경내에는 향나무림이 우거져 있는데 송광사 스님들은 이 향나무림에서 자란 차나무로 죽로차를 만들어 마시고 있으며, 다솔사도 사찰 뒤에 야생 차나무밭이 있어 차를 만들어 마신다. 영광 불갑사 역시 아름다운 야생차밭을 가지고 있는데, 사찰에서 전해 내려오는 특유의 전통 방식에 따라 작설차를 만들고 있다. 장성 백양사는 사찰 언저리 1만여평의 숲속에서 자라는 야생 차목에서 채취한 차잎으로 만든 백양차가 유명하며, 양산 통도사는 뒷산의 야생 차나무에서 스님들이 손수 차잎을 따서 만든 녹차가 일미다. 한국 전통차의 맥을 잇고 있는 다지(茶地)가 있는 울산 동축사는 사찰 앞쪽에 작은 차밭이 있어, 이곳에서 화후차를 만든다.

이밖에도 순천 선암사, 동해 대원사, 경주 분황사, 구례 화엄사와 천은사, 불회사 등이 차로 유명한 절이다.

한명우 기자

"차마시면 부처된다" 설화 전래

피로 풀고 눈귀밝게 하는 9덕 지녀
쌍계사 · 선암사 등 茶재배지 유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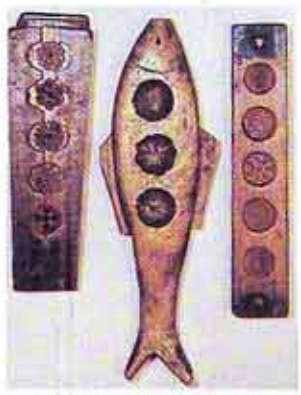
◇10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한 꽃과 열매가 맺어지고 나서 3개월쯤 지나면 새 순이 돋는다. 차는 새 순을 따는 일부터 정성을 들여야 한다.



◇차생활의 멋은 바른 마음가짐과 정성에서 피어나 茶道에 이른다.

스님들이 절도 있게 차를 마시는 집호다례가 있다.

봉헌다례에는 예배드릴 때와 불공할 때의 두가지 경우가 있다. 예배시에는 반드시 다계(茶偈)를 받들었는데 증명(證明)다계와 삼보(三寶)다계, 영산법회다계가 있다. 대개 사미나 스님이 차를 들고 오면 다계를 느리게 노래 부르고, 차를 부처님전에 놓는다. 불공다례는 현세의 복과 소원을 빌기 위해 부처님에게



◇조선시대 다식판. 차와 함께 다식을 곁들이면 일미다.



◇고려시대 청자 상감 국화문 탁잔. 사원과 궁중에서 헌차례때 사용했다.

지장스님 - 중국에 금지차 보급
의천스님 - 신선 즐기듯 茶음미
초의스님 - 한국다도의 중흥조

■ 다인(茶人)

가장 오래된 다시작품의 주인공인 신라 김지장스님은 우리 차문화의 첫장을 연 다인이다. 지장스님은 금지차를 중국으로 가져가 전했다는 기록도 있다. 신라의 다인으로는 원효대사와 최치원을 들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이나 귀족들 사이에 차가 유행했고, 특히 사원에서는 차를 즐겨 마셨다. 대각국사 의천과 진정국사 천책, 원감국사 충지, 진각국사 혜심은 이 시대의 대표적 다승(茶僧)들. 의천과 천책의 다시에는 신선의 경계가 어른거리고, 충지와 혜심의 다시는 차와 선이 한맛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기의 문인들중에서도 다인들이 많았다. 임춘과 김극기 이규보 이연종 이인로 이제현 이숭인 등은 다시를 주고 받으며 스님들과 교류했을 뿐만 아니라 차 끓이는 소리를 즐기고 차을 마시며 '다선일여'의 다생활을 했다.

조선시대 다인들로는 서거정 김종직 남효온 정희량 김명희 정약용 신위 김정희 이상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다산 정약용은 초의선사로부터 차를 배워 차와 차시에 대한 40여편의 글을 남길 정도로 차에 대한 조예가 깊었으며, 추사 김정희는 예술가와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다인의 풍류와 선학



◇초의스님

자(禪學者)의 면모를 동시에 간직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다산과 해장선사의 차로 맺은 인연은 이후 추사와 초의선사로 이어진다.

차를 말하면서 빼놓아서는 안될 인물은 차에 관한 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조선후기 대선사이자 한국 다도의 중흥조인 초의스님. 스님의 선은 다선이요, 스님의 시는 다시이니 이른바 선다가 되고 다시 일여가 된다. 근세의 최범술스님은 〈한국의 다도〉를 저술하며 차의 맥을 이었다.

새로운 재테크로 각광 받는 불교신협예금
(신협의 예금 전액을 정부가 보장합니다.)
확정수익률 1개월 연 20.0 %
비과세 (세금감안시 25.13% 효과)
불자님을 위한 은행
부산불교신용협동조합
상담전화 051)633-9120
범일동 지하철 현대백화점 맞은편 2층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 2동 834-20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마음에서 피는 연꽃 진짜 보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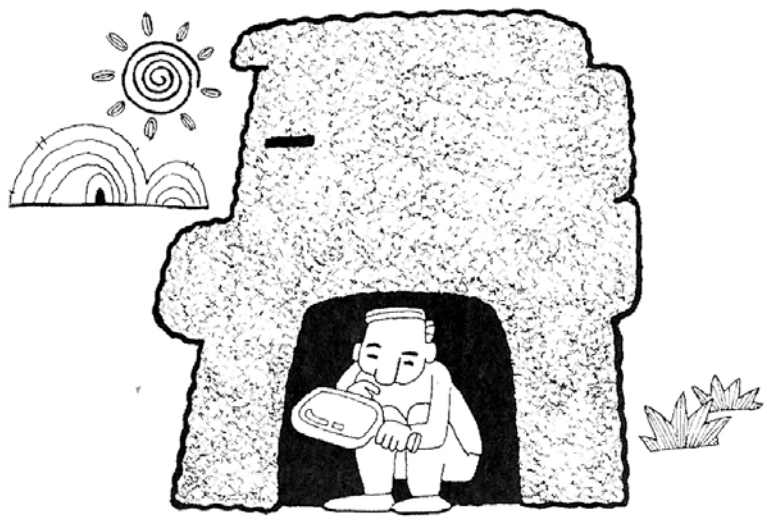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 몸속을 세계라 생각하고 나를 찾으러 들어가 보세요 그것을 苦라고 하시겠습니까"

"발자국 떼어 놓듯 살림도 그렇게 사세요"
"자기가 자기를 못믿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우리가 함께 이 자리를 하게 된 것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세계를 돌아봐도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그 과정을 그대로 가르쳐주는 곳이 별로 없고, 또 스님네들이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의 방편을 자꾸 쓰시니까 현대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고 해서 큰 걱정입니다. 세계를 따지고 전 우주를 다 따져봐도 모두가 한 생명 한 교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뜻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먼 데서 찾지 마시고 아주 가까운 나에게서, 못났든 잘났든 내가 나온 자리에서 바로 나를 찾도록 하세요. 아랫눈썹과 윗눈썹이 깜짝거리듯 정신계와 물질계가 즉 육신과 정신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항상 활용하고 사시건만 너무 가까워서 찾지 못하는 경향이 많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 몸 속에 들어가서 나를 찾지 않고 타의에서 나를 찾는다면 영원히 찾지 못한다구요. 그러면 몸 속에 들어가서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 소임을 맡은 구비구비 그 개체의 소임자들을 다 만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게 됩니다. 만약, 우리 정신계가 저 벼룩만 하다면, 벼룩만하게 축소해서 들어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산도 있고 물도 있고 진흙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뭐 온통 난리일 겁니다.

세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나를 찾으러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 구비구비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자갈밭을 걷고 가시밭을 걷고 흙탕물에 빠져가면서 걷고 할 때에 그것을 고(苦)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한마음의 생활은 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구비구비 넘어가면서 닥쳐오는 모든 것을 거기 놓고 가거라 이랬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비유해서 이 속에 들어가서 구비구비 걷고 빠지고 나오면서 온통 이렇게 돌아치는 경로를 얘기했는데 우리 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고'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어떠한 일이 닥치든, 안에서 일어나든 바깥에서 치고 들어오든, 모든 것을 나오는 자리에다가 되놓으라고 했습니다. 고등동물이란 모든 것이 자동으로 입력이 돼서 누적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례차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의식처인데 생명의 의식들이 하는 농간에 속지 마세요. 이 의식들이 모두 입력이 돼서 차례차례로 나오게 되니 그 헤아릴 수도 없이 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결을 못하니까 그걸 팔자다 운명이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나오는대로 다시 그 속에다 놓으면 앞의 입력이 없어지고 현실에 내가 새롭게 입력하는 것만이 나오기 때문에 팔자운명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듣기는 들으나 실천에 옮겨지지 않음으로써 해결이 되지 않는 경향이 여간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다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이 세상에 자기 빼놓고 바깥으로 믿을 데가 누가 있습니까. 부처도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부처를 따르되 믿지는 마라. 먼저 너를 알아야 부처의 마음도 알고, 부처가 공체로서의 몸이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는 도리도 알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몸 속에 들어가서 겪어야 할 문제를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겪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활에서 겪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을 돌로 보지 말고 자꾸 거기다 놓고 가고 또 놓고 가고 한다면 바로 홀연히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진짜로 믿지 못하고 놓지 못한다면 아니 놓는다는 말도 이게 아닙니다. 뭐 놓는다 단 놓는다 이런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리죠. 왜냐하면 저 나무들 보셨죠. 뿌리가 전부 줄기하고 맞붙어 있어요. 흙이 덮여 가려서 안보일 뿐이지 맞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한테는 그 흙이 무명이 되고, 무명이 가려서 자기 뿌리를 못보게 되고, 인간은 자기의 그 무명이 나무에 흙이 덮인 것처럼 관습, 욕심, 착을 버리지 못해서 자기를 못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모든 고난을 다 겪고나면 홀연히 연꽃이 피게 됩니다. 진흙 땅에서 연꽃이 피는 것이죠. 그냥 진흙 땅에서 연꽃 피는 거야 누구나 보고 말하고 행할 수 있지만, 내 몸 속의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은 더러운 물이 묻지 않으니 아주 귀한 것이 되죠.

마음은 체가 없으니 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수억겁을 살던 관습과 집착과 욕심과 애정과 원한 이런 것들이 쌓여서, 꽃이 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진흙 땅에서 피는 그 연꽃은 더러운 물이 묻지 않는다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새겨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꽃이 즉, 마음에서 홀연히 피는 그 마음의 연꽃이야말로 진짜 보배임을 알게 될 겁니다.

마음의 연꽃이 피면 그것을 견성이라고 하는데 참나라고 이름 해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참나를 찾는데 방편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누진이라고 하는 그것을 찾게 됨으로써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도 일곱 걸음을 걸으실 때 한 발자국 뗄 때마다 연꽃이 그 발밑에 피어서 그걸 밟고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한발짝 떼어놓을 때에 그것도 말하자면 '용무'입니다. 내가 이 발자국을 떼어놔야겠다 하고 떼어놓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가겠다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말도 없이 갈 때가 되면 그냥 걸어 갑니다. 발자국을 하나하나 떼어놓을 때에 뒷발자국은 자꾸 없어지면서 새로 앞으로 한발짝씩 걷는 것이 바로 용무입니다. 바로 '공법'이다 이 소립니다.

내 몸 속에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들어있는 한 개체가 떼어놓을 때 그것을 연꽃에 비유한 것은, 내 마음이 바로 움죽거리는 연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움죽거리며 피어나는, 그리고 한발짝 떼어놓을 때마다 하나씩 피어나는 연꽃처럼 움죽거리는 연꽃이란 얘기입니다. 지는 연꽃이 아니라 움죽거리는 연꽃 말입니다. 연꽃이 피게 되면 지는 것도 없고 피는 것도 없는 것이 연꽃이니까요.

부처님께서 마음의 연꽃을 밟고 일곱 발자국을 떼놓으셨다 이러는 건 우리가 육체에서 벗어나야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 근본 뿌리가 즉 '불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곱 발자국을 떼어놓는다고 방편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타의에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속에서 그렇게 찾아야 하는데 내 몸이 한발짝 한발짝 떼어놓을 때에 여러분은 떼어놓는 그 발자국을 마음으로 붙잡고 갑니까, 그냥 놓고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없이 그냥 떼어놓고 마음은 아무 동요없이 그냥 떼시죠? 그것처럼 살림살이도 그렇게 사시란 말입니다. 왜냐? 살림살이가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발자국 떼어놓는 것처럼 순간순간 이것 보고 흘러가고 저것 보고 흘러가고, 저것 듣고 흘러가고 이것 듣고 흘러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치가 있는데 여러분은 좋으면 좋다고 붙들고, 언짢으면 언짢다고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게 놔지지를 않는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짢아도 한 찰나 좋아도 한 찰나인 것을요. 그것을 좋다고 붙들고 즐겁다고 붙들고 행복이라고 붙들고 또 언짢으면 언짢다고 울고 가슴 아파하고 붙들고 늘어진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부도가 났다 할 때도 얼른 놔버려야 할텐데도 내내 그 과정을 붙들고 울고 거기에만 매달리니 일이 더 안풀리게 되는거죠. 그거 하나 뿐 아니라 일체가 다 그러합니다.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부도를 맞아서 순가락 하나도 건질 수 없다고 하길래 몽땅 놔버리고 그냥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자리에 놓고 뛰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다 해결을 하고선 참 고맙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오히려 내가 고마워 해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붙들고 늘어져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흙탕물이라면 흙탕물대로 놔버리세요. 새 물을 또 쓸텐데 흙탕물을 계속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새 물이 들어올 사이가 없죠. 이것은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사에도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세생생에 어떡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도 심각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물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의 불교 (168)

다만 묵연한 발걸음이 당당해 보일 것이니….

"재화를 움켜쥐려는 마음의 무게만큼 도의 마음은 반대로 적어진다. 영예를 뒤쫓는 발걸음이 바쁘면 바쁜 만큼 도의 마음은 멀어지게 된다. 가는 것 붙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으며 지혜롭게 둥글게 살아야 한다.

이익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다. 손해만 보고 살라는 것도 아니다. 이익과 손해는 동전의 앞 뒷면 같은 것이어서 짝으로 다니지 홀로 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서 늘 그 뒷면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이익을 보아도 이익에 빠지지 않고 손해를 보아도 손해에 낙담하지 말라. 자기 마음의 중심자리를 묵연히 지키면서, 이익과 손해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 속에서 분별을 쉬고 침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중도의 길을 걷는 사람의 발걸음이라 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을 오가게 하는 대상들은 많다. 돈 · 명예 · 사랑 · 건강 · 능력 등…. 아니, 삶 가운데 부딪히는 모든 대상과 사건들은 하나같이 우리들에게 모종의 감상을 느끼게 한다. 이래서 행복하다느니, 저래서 불행하다느니 혹은 이래서 괴롭고 저래서 즐겁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 채우고 싶은 만큼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들의 대부분은 슬프고 괴롭고 우울해진다.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이렇게 밖에 안된단 말인가? 자기 자신이 싫어지기도 하고 자신의 운명이 야속하다는 생각도 갖게 된다. 반면에 가질 수 있고 갖게 되고 채울 수 있다면 삶은 온통 장미빛으로 즐겁고 보람과 행복만이 있는 듯이 여겨진다.



그러나, 욕망엔 한계가 없다. 채워진 듯 싶다가도 이내 더 큰 욕망이 입을 벌리고 다가든다. 마치 구멍뚫린 독처럼 채우고 채워도 넘치질 않는다.

한번 맛을 들이면 좀처럼 끊기 어렵다는 환각제와 같다고 할까. 그래서 욕망은 욕망을 낳는 목마름으로 이어지고 삶은 자칫 욕망의 노예가 되기 쉽다. 수분지족(守分知足)이 어려운 것도 그 때문이다.

욕망은 제어되어야 하는가? 참고 억누르는 게 좋은가?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나 제어는 일시적이다. 참고 억제하면 솟구치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기회를 만나면 다시금 솟아 오른다. 욕망은 용수철과 같다. 누르면 눌리는듯 하다가도 더 큰 반발력으로 튀어 오른다. 제어만으로는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뿌리를 잘라야 한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아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행복하다느니 불행하다느니 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욕구에서 온다. 채워지면 행복을 느끼고 안 채워지면 불행을 느낀다.

욕구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나'라는 생각에서 온다. 뿌리는 바로 아상에 있다. 행복과 불행의 대상으로 삼은 모든 것들을 취하고자하는 마음은 바로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그 아상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 아상을 굶겨죽이지 않으면 욕망이라는 사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 없기에 삶 속에서 온갖 괴로움을 맛 볼 수 밖에 없게 된다.

행복이나 불행, 즐거움이나 괴로움은 다만 내가 만들어낸 관념의 연상일 뿐이다. 내가 어떤 상태는 행복으로 정의했고 어떤 상태는 불행이라고 규정지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행복이나 불행에 어떤 모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 한번 바꾸면 상황도 달라진다. 마음먹기 나름이다.

대상을 향해 밖으로 끊임없이 내닫는 마음을 쉬고 눈을 돌려 그 생각의 뿌리를 보라. 누가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가? 곰곰히 찾아보라. 그 물음에 대한 답은 결국 '나'일 것이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그 '나'를 찾아보라.

비록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해도 행 · 불행, 욕구나 관념 따위가 다만 나의 의식놀음인 것은 알게 된다. 그길 알면 오는 것 가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쉴 수 있게 된다. 참다운 인욕, 놓고 가는 삶이 실현된다. 욕망의 불꽃은 잦아들고 목마름도 점차 사라진다. 다만 묵연한 발걸음이 당당해 보일 것이다.

협찬: 전재필 · 오선아

법공양 페이지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나 발견 하려면 나에게 놓으세요"

☞ 17면에서 계속

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이대로만 가지고 있을까, 이 다음에 어떠한 모습으로 또 가져 나올 것인가 하는 것도 심각하구요. 그 한가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여러가지가 모두 심각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온통 여러가지를 다 찾는데, 그 헤아릴 수 없는 여러가지를 어떻게 바깥으로 다 찾으려고 애를 씁니까? 그 이름들을 말입니다. 이름을 아무리 불러봤자 그건 헛 거예요. 진실한 내 마음 하나에서 일체 만법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부터 수행해서 나부터 알아야 찾을 수 있죠. 또 나부터 찾아야 부처님의 마음도 찾고 일체 만물의 마음을 다 찾을 것 아닙니까.

느냐는 얘기입니다. 살아나가는 데 고통을 덜고 고통에서 벗어나 좀 자유스럽게 살아보자 하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살아나가는 거 보니까요, 일일이 날짜를 봐서 이사를 가고, 팔자운명을 물으러 다니고 삼재가 걸렸다 하면 야단들이고 여간 귀찮은 게 아니예요. 또 이것을 먹으면 안되고 저것도 먹으면 안되고, 안된다는 건 왜 그리도 많은지, 그러면서 집에 남편이나 자식이 다 산 부처인데, 산 부처는 광개처두고 혼자 백일기도를 한다고 나가니 그게 어디 될 법이나 한 소립니까. 누구를 위한 백일기도며, 지구가 어디 백일만 돌아가고 안 돌아간답니까. 항상 끝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 마음인데 내 마음안으로 언제나 관하면 될 것을 기도처가 어디 따로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겠습니까? 집에 엄마가 없으니

"수억겁 살던 관습 · 집착 욕심과 애정 · 원한 등이 쌓여 꽃이 피지 못하는 겁니다"

내 몸 속의 의식들이 말입니다. 과거엔 지나갔으니까 없고 과거에 입력된 그 자체가 자기하고 인연이 돼서 바로 지금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말로 다 하리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가지 못하고 여러분 몸 속에 이미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속의 의식들을 조복받기 위해서 구비구비를 넘어가야 하니, 지금 현실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다 모든 것을 놓고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찾는 격입니다.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고 말입니다. 적으면 적은대로 내가 적어지고, 크면 큰대로 내가 커지고 그래서 똑같이 맞추어야 이게 둥글어지죠. 그래서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다 놔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돌아가겠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은 바로 한생각이죠. 여러분은 그냥 생각이지만 깨달은 부처님들은 한 생각입니다. 한생각! 왜냐하면 한생각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들의 의식들이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로 계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조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 전부 보살로 화하는 거죠.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말을 해야만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잘 집어먹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잘 먹지 않으면 소화가 안되고 걸리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입에 맞지 않는다고 안먹는 수도 있거든요. 이러니 어떡합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집어 먹어서 소화가 잘되는 것이 바로 모든 개체가 하나로 귀합되어 조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가정에서도 한 생각을 했을 때에 자기가 생각하는대로 하나가 되죠.

여러분이 살면서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도리라고 봅니다. 할 수 있는 일이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은 소생이 하는 것이고 대불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겁니다. 생존해 살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용무로써 작용하는 용무공법이죠. 그러니까 무의 법 유의 법을 둘이 아니게 굴려서 무의 법에서 유의 법으로 돌아서 나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무조건 남을 좇아가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보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말과 뜻과 행입니다. 말과 뜻과 행을 보고 그것이 사람사는 진리와 같으면 따르라고 했습니다.

어느 종교는 이런 데가 있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군에도 보내지 않고, 한 가족이 온통 집에서 기도만 했대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미쳐서 자살을 하니까 그 자식들도 따라서 다 자살을 허버리니 남는 건 부인 혼자 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한 생각에 얼마나 잘못돼 돌아갔는지 가족이 다 멸망한 셈이죠. 그러니 이 종교라는 이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사시는지, 그것조차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

애들이 밥을 해먹고 남편은 또 따로 일나가고 이러니 가정파탄이 생기죠. 이런 문제가 한 두건이 아니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것을 따라야 진실하게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자기를 찾을 권리도 있고, 자기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권리도 엄연히 주어졌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아예 꿈에라도 형식적인 고깃덩어리를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름을 믿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주장자, 즉 자기 뿌리만을 똑바로 믿고 진짜로 믿으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싹이 뿌리를 무조건 믿는 거지 어떻게 남이 믿어라 믿어라 이래서 믿습니까? 자기 종성을 진짜로 믿어야죠. 항상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대신 죽어 줄 사람도 없고, 아파 줄 사람도 없고, 잠을 자 줄 사람도 없고, 똥누고 밥먹고 이렇게 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각기 자기 모습 속에서 자기를 알게 되면 자기도 공생이요, 공심이요, 공체요, 공용이요, 공식화하고 모두가 같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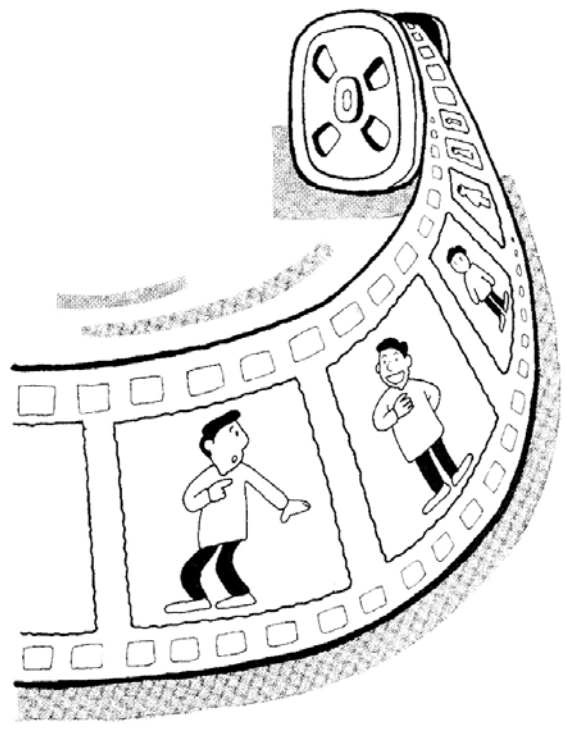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무〉라는 책을 통해서 스님을 처음 알게 됐는데 공부를 해가던 어느날 가만히 앉아 있으니, 부처님 형상에서 양미간에 물줄기가 하나 쫙 뻗치더니 고기 한 마리가 튀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있더니 수많은 염주알이 크게 요등을 치더니 용으로 변하더군요. 그리고는 잠잠해졌습니다. 또 한번은 꿈에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는데 저도 거기서 구경하다 낚시를 하나 던졌습니다. 그런데 낚시가 그물로 변하

서 주인공에 맡기고 마음을 내고 있습니다만 제 눈으로 영의 세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언제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밀어넣으면 또 나오고 밀어넣으면 또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심안을 열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으라고 그랬으니 믿어야죠. 뭐가 궁금합니까. 제 뿌리에서 제 싹이 나서 제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왜 그 뿌리를 의심합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 뿌리에서 줄기가 나고 잎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 뿌리에서 나는 제 나무가 뭣이 그렇게 궁금하고 의심이 갑니까? 그냥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까? 그대로 믿는다면 연방 되풀이되지를 않지만, 못 믿는다면 자꾸 제자리걸음을 걸어야죠. 좀 푹 놓고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 죽든지 살든지 생사의 문제 건도 거기에다 그냥 놓으세요. 언제 죽든지 살든지 그런 것도 아랑곳하지 말구요.

또 남을 건진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 몸뚱이 속에 중생들부터 건져야 남을 건지지 내 몸뚱이 속에 중생들도 건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유마 거사도 병이 났을 때 중생들이 나아야 내 병이 낫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생은 바깥의 딴 중생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중생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한마음으로 돌아가게끔 그냥 몽땅 믿으세요. 남김없이 믿고 거기 놓으시면 돼요. 그 마음이 그렇게 생길때는 '참 감사하구나 주인공' 하고 놓으시구요. 주인공이라 하는 것은 일체 공심을 말합니다. 공심 말입니다. '참 고맙구나' 하고 거기다가 놓으면 그게 입력이 되죠. 그래서 공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공심을 몰라 가지고서야 어떻게 공용을 합니까.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봐도 건져지고, 들어도 건져지고, 그

"살아서 열반 모르면 죽어서도 열반 못해"

"내 마음안에 관하면 그곳이 바로 기도처"

합시다. 또는 전쟁이 일어났다 합시다. 그러면 소임 맡은 군인들은 해병이면 해병, 육군이면 육군, 공군이면 공군 다 맡은 바대로 소속이 되어서 부르면 그냥 쏙 모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가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격이 있는 만큼 부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자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달리 생각지 마시고 오로지 자부처를 믿는 그것부터 실천을 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실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일거수 일투족이 다 어디서 합니까? 자기가 전부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자기를 못 믿습니까? 보게 하는 것도, 듣게 하는 것도, 말하게 하는 것도 전부 자기 속에서 하게 하고 자기 중심처에서 하게 하는 거지 딴 데서 나오는 게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거기를 알면 무의 법도 유의 법도 자유자재하게 들이고 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개개인이 혼자만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배우고 알면 저절로 세상이 편하게 되는 거죠.

꿈에 염주가 용으로 변해

문 저는 일산에서 온 신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공부했던 과정을 말씀드리고 큰스님께 점검

더니 큰 고기를 한 마리 건져 올렸는데 고기를 다시 바다에 놓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는 과정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마음에 의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여쭙습니다.

답 고기를 건진 놈도 당신이고, 고기도 당신입니다. 염주알이 화하는 것도 당신이요, 또 당신이 알 일이며 당신의 법이예요. 그것이 모두 공부니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당신에게서 나오는 그 속에다 다시 놓으세요. 죽어야 죽은 세상을 다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죽고, 죽고, 또 죽어서 살아 생전에 열반을 해야지, 살아서 열반을 모르면 죽어서도 열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죽으러 들어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어차피 앞으로 한번은 죽을 거, 몸도 죽는데 이 몸이 죽기 전에 마음이 좀 죽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죽기 전에 마음이 먼저 죽어야 죽은 세상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 몰라 답답해요

문 저는 청주지원 신도입니다. 큰스님의 하해(河海)와 같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공부를 하다보니 이제는 스스로 어느 정도는 제 몸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싶어

꿈에 염주가 용으로 변해

문 저는 일산에서 온 신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공부했던 과정을 말씀드리고 큰스님께 점검

저 가고 오지 않아도 가고옴이 없이 가고오게 되어 건져지고 이렇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을러 공부진전 안됩니다

문 공주에서 온 학생입니다. 스님을 만나고 공부한 지가 일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너무 게으르고 어리석어서 진전이 없습니다. 스님 말씀 듣고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답 부처님 법을 알려고 하고 배우는 것은, 또 잘하고 못하는 것은 게으르거나 잠자고 그러는데 있는 게 아니예요. 잠을 자는 것도 참선이요, 깨어 있는 것도 참선이요, 서는 것도 참선이요, 앉는 것도 참선이요, 일하는 것도 참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와선이나, 입선이나, 좌선이나, 행선이나 그게 전부 참선 아님이 없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참선이 돼요. 그러니 내가 게을러서 이 공부를 못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주인공, 너만이 너의 몸을 형성시켜서 이렇게 끌고 가니까 물리가 터지게 하는 것도 너 뿐이야' 하고선 그냥 아예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해버리고 흔들가는 거예요.

앞날에 대해서도 미리 걱정하거나 두려워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공, 네가 잘 알아서 끌고 가.' 하고 맡겨 놓기만 하면 돼요. 아주 하기 쉽고 간편한 것이 바로 이 공분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서남북 佛名 다른 까닭

문 언젠가 법문하실 때 아촉은 동방에서 나오고, 미륵은 서방에서 나오고 부처님은 북쪽에서 나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동서남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스님께서는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답 해가 질 때는 동방에서 북쪽으로 해서 서방으로 떨어지고, 해가 뜰 때는 서방에서 남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오거든요.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이름해서 미륵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예전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신 뜻은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치려니 방편으로 그랬던 거죠. 예를 들어서 한마음 속에서 이것 나오고 저것 나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면 아버지 노릇하고 '여보' 하면 남편

노릇하고, '애, 아무개야' 하면 아들 노릇하고 이러듯이 그것이 전부 한마음 속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함이 없이 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 하나에서 천백억 화신이 나셨다는 거예요. 천백억 화신이라면 그건 숫자가 없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의정이란 무엇인지…

문 저는 아직 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 자신을 100% 못 믿더라도, 또 제가 외부경계와 내면의 경계를 100% 돌려놓지 못하고 지나가는 게 있더라도, 어떤 의정을 꽉 잡고 간다면 자기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이 니게 하는 것도 네가 나게 하는 거다.' 하고 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에 대해서 여쭙니다.

답 억지로 내어서 하는 것은 의정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디서 그림자같이 나타났다 할 때 '아, 저건 뭘까?' 하고 갑자기 의정스러운 게 있어야 의정이지, 번연히 여기 있는 걸 알면서 그걸 가지고 억지로 의정을 낸다면 그게 무슨 의정입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알아야 한다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자기가 과거 자기를 만났을 때 즉, 부(父)와 자(子)가 둘 아니게 상봉했을 때, 예를 들어 과거 자기가 일겁(一劫)이라고 한다면, 그 일겁이 한 찰나일 수도 있고 백천 만억겁이 될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어저께가 일겁이 될 수도 있고 천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나부터 알고 무의 법에 채찍을 맞아야 거기에서 진실로 의정이 나죠.

예전에도 얘기했죠. 어느 묘지 옆에서 말입니다. 저 묘지는 애비의 묘지이고 이것은 그 아들의 묘지인데, 이 아들이 애비 한테로 오면 애비가 하나가 되고, 또 애비

마음속에다
모든것을 놓고
작으면 작은대로
크면 큰대로
똑같이 맞추어야
둥글어 집니다

가 아들한테로 가면 아들이 하나가 되니 그건 무슨 연고냐 하고 물었을 때 그것을 모르니까 의정이 날 수 밖에요. 그게 의정이에요. 그렇지 않고 번연히 아는 걸 의정을 일부러 내가지고 의정한다는 건 그건 의정이 아니고 망상일 뿐이예요.

그러니까 의정을 낸다 안 낸다 하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스스로 생활 속에서 조그만 거라도 체험이 되는 게 있으면 우연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우연이란 없다, 내가 있는 이상 우연은 없다. 참 감사하구나.' 하고 관하고 가세요. 그렇게 가다보면 또 체험이 되고 잘된 건 감사하게 놓고 안된 건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자꾸 놓고 가다보면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조복이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완전히 발견이 되는데 한창 배울 때는 의정이 많죠.

언젠가 이런 얘기도 했죠. 예전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가다보니까 쓰러졌어요. 그런데 물줄기 내려가는 소리에 겨우 깨어 엉금엉금 기어가서 물을 한 모금 먹으려니까, 내면에서 하는 소리가 물 한 모금이 천 모금이 될 수도 있고, 삼천 모금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물이 삼천 모금이 한 모금이 될 수 있고 한 모금이 삼천 모금이 될 수 있다니 그게 언어도단이지 뭡니까. 그러나 그때서야 '아하! 이거로구나.' 하면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구요. 그게 의정이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세계 어디를 돌아봐도 이 불교를 말하고 불교를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얘기는 빼놓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놓아야 한다는 말을 안한다는 거죠. 이 세상도 모두 자기로부터 열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말입니다. 첫째 문제가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가 소중하고 자기 마음이 보배이며 자기 몸도 소중하죠. 부모님의 은혜를 입어 태어난 몸이라 함부로 굴려서도 아니되지만 부처님의 법을 알게 되는 것도 이 몸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이 몸을 함부로 굴리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냥 떨쳐버리는데 버리지 않으면서도 버리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몸을 자기 몸으로 아니까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자기 몸이 아니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수많은 생명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 집합소이니 내 몸이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집도 아닌데 함부로 허물고 부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생들의 집이라 생각하고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몸뚱이는 허깨비 같고 구름 같고 이렇다니까 마구 써도 되고 버려도 된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로 안다면 소중하게 다스리면서 이끌어가죠. 그래야만 세세생생을 두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에 자유자재로 나툴 수 있을 테니까요.

협찬 이종진 · 마영자 · 이봉국 · 김영님

정직한 말은 온전한 삶의 힘

잭 · 콘필드가 쓰는

재가자를 위한 팔정도 9



정어(正語)는 팔정도의 정견(正見)과 정사유(正思惟)로 닦아진 바로 서고 고결한 마음을 나타내는 첫 번째 상(相)이다. 따라서 정어에서는 '진솔함'을 으뜸 덕목으로 삼는다.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말만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대부분은 유쾌한 기분을 갖게된다. 덕과 도덕이 배어있는 정어(말)는 그만큼 자신과 타인에게 유익하다. 또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아잔차 스님이 영국을 방문했을

정어 ②

때 일이다. 스님은 여러 불교단체를 순회하며 법회를 열었다.

어느날 저녁 법문을 마친 후 스님은 당당하게 보이는 한 영국인 부인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다년간 불교심리학 아비달마 경전에 나온 89식 분류법에 따라 마음의 복합적인 사이버네틱스(인공두뇌학)를 연구했다.

"불교심리학 체계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측면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연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게 말이지요." 영국인 부인이 자기 마음을 닦고 삶의 법칙과 모든 세계를 바라보기 보다는 지적인 개념에 사로잡혀 있음을 간파한 스님은 즉시 대답했다. "부인 당신은 집 마당에 암탉을 키우는데, 달걀을 좀지 않고 닭똥만 주으려고 좇아 다니는 사람과 다름이 없소"

열린마음에서 나온 바르고 고결한 말 신뢰 조화 사랑 발휘

팔정도에서 매번 열린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연유에서다. 열린 마음은 상투적인 삶의 궤적에 서 있는 존재의 한계를 벗어나 삶과 함께 하고, 그것을 탐험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상태이다. 바로 삶의 법칙과 모든 세계를 주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편안하고 조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계(戒) 덕(德) 도덕성을 계발해야 한다. 이것의 의미는 자제(自制)이며 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상징적으로는 사랑이며 봉사 그 자체이다. 아잔차 스님은 정어를 가르칠 때마다 바로 서고 고결한 마음에서 배어나온 사랑과 봉사에 대해 미소를 머금고 수시간 동안 즐겁게 이야기 했다.

아잔차 스님은 "바로 서고 고결한 마음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길이든지 기초가 되며 아름다움 그 자체이다. 여기에서 진실한 말과 고결한 행동이 나오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말했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우리는 세간 속에서 숱한 관계들을 맺고 있지만, 우리는 본래 개별적이며 고립된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물과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열린 마음에서 스며나온 말을(正語) 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 우리 친구, 우리 사랑 등의 관계는 이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또 이것들이 진실하고 정직하며 독창적일 때 삶의 궤적에서 신뢰, 조화, 사랑이 생겨나고 큰 힘을 발휘한다. 따라서 관계가 명쾌해지고 진실해지며 집착은 사라지고 관용(寬容)만이 있을 뿐이다. 마음의 창이 열린 것이다.

불교학자 조셉 골드스타인은 어느날 일정기간 타인을 지목하는 어떤 말도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 기간이 경과하자 골드스타인은 자신의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 무슨 연유에서일까? 불교석학 골드스타인도 타인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기 때문일까?

먼저 삶의 순간 순간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이때 섣부른 판단은 피해야 한다. 행복과 조화의 순간의 원칙을 살피고 불행과 부조화의 순간을 구별하면 된다. 그리고 불행과 부조화의 순간 정어를 실천했는지 기억해 내고 그 당시 내면의 변화를 살펴볼 때 근본적인 이유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

정어를 공부하며 우리가 자신, 타인, 모든 사물에게 유익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세계와 자신을 유념하고 있는가? 등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어란 바로 '바로서고 고결한 마음에서 배어나온 말'이기 때문이다.

번역=오증욱 기자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58

불교와 수학 53

유전자와 이진법

김 용 운

한 사람에게 수 십조(兆) 개의 세포가 있고, 각 세포의 핵에는 유전자로 쓰여진 정보가 30억 개나 있다. 유전자는 DNA(데오기리포 핵산)라는 물질이다. 이 정보량을 백과사전 크기의 책으로 따진다면 약 천권가량이 된다. 우리는 이 유전자에 쓰여진 정보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적 능력이나 육체적 특성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상식화 되어 있다. 실제로 왈츠의 제왕으로 일컬어지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후손들 사이에는 우수한 음악가가 20여명이나 배출되었고, 17세기 스위스의 벨누이 집안에서는 10명에 가까운 일류급 수학자를 배출하였으며, 이 모든 것이 유전자로 설명되고 있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인간이란 노력하거나 말거나 처음부터 되는 것과 안되는 일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불교에서는 '인간은 대오를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점에서 과학과 불교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생명공학의 발달로 몸의 어느 부분에 있는 세포 하나만으로도 한 인간을 충분히 재생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나무가지 하나를 땅에 심어 본래의 나뭇와 같은 것을 재생시키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또한 신비스럽게도 손톱의 세포만이 손톱이 되고, 머리카락의 세포가 머리카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어느 부분의 세포도 정보 내용이 모두 같기 때문에 어떤 세포를 가지고도 하나의 인간을 완벽하게 재생시킬 수 있다. 이 사실은 신체의 어느 부분이

인간은 수십兆개의 세포로 구성 마음가짐, 유전자 자율적 작동에 영향

라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유전자는 모두 일제히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손톱이 되는 유전자는 손톱을 만들때만 작동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ON', 또는 'OFF'이자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2진법(0, 또는 1)의 구조이다. 이 사실을 두고 알기 쉬운 예로써 피아노를 생각해 보자. 피아노에는 많은 건반이 있으며 각 음정의 어느 부분의 소리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두드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두드릴 때는 1(ON), 그렇지 않을 때는 0(OFF)이다. 인간은 처음 수정난에서 분열해 가며 몸체가 형성되는데, 전 세포들 사이에 하나의 오지가 발동하면서 차례로 ON, OFF의 순서가 정해져서 작동하는 것이다.

유전은 생리적 현상에서는 특히 두드러진다. 당뇨병의 가계에서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당뇨병이 나타나고, 비만의 집안에서는 비만이 많다. 이 사실로 인해 마치 유전이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병은 반드시 생리적인 조건만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 유전자의 기능은 환경과 여러 자극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말은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유전자가 갑자기 어떤 계기에서 잠에서 깨어 활동하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말기의 어떤 암환자는 의사로부터 "이제 의술로는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잡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 환자는 완전히 마음을 비우기로 각오하고 기왕에 죽을 바에야 평소에 먹고 싶었던 떡이나 실컷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6개월 후 검사를 하자 암세포는 깨끗이 사라지고 없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만 할 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세상에는 이것과 유사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 많다. 유전자는 혼자서 작동하지는 않으며 몸안에 있는 유전자 전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며 기능한다. 전체적인 요청에 따라 ON과 OFF를 적절하게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은 바깥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정신적 자극이 유전자에게 큰 영향을 준다. ON과 OFF의 선택은 미리 정해져 있는 설계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간마다 필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정신적으로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루밤 사이에 흰 머리가 생기는 수도 있고, 큰병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아들이 기적적으로 생환했음을 알고 빙상에서 벌떡 일어나는 일도 있다. 어느 특정한 유전자가 움직이면 다른 것은 쉬게 하기도 하고,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다 활발하게 조정한다. 이와 같이 많은 요소들이 자율적으로 작동해 가는 현상을 카오스 이론에서는 '자기조직화'라고 한다. 자기조직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마음가짐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 지면사정으로 '무문관 탐방' 이번주 쉽니다

주메니 속 대장경 시리즈 ❶
교리 · 입문편

20C의 정신적 흐름을 주도한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모태는 '불교'였다

'20C의 창조자', '환상 문학의 창시자'
'사상의 디자이너'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 등 숱한 수식어로 둘러싸인 이름,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20C 후반에 활동하는 전세계의 작가와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람으로
손꼽히는 그의 작품 전반에는
불교적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이 책 『보르헤스의 불교강의』는 단순히 서구 지성의 불교 이해 차원을 넘어 21세기를 살아갈 현대인 모두에게 세상과 삶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불교가 왜 '내일'의 '대안'일 수 있는가를 발견하게 해 주는 보르헤스야말로 20세기에 21세기를 온전히 앞당겨 살아갔는지도 모르겠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알리시아 후리도 공저
김홍근 편역
B6 241쪽/ 값 5800원
여시아문 펴냄

여시아문의 세책

20C의 창조자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수록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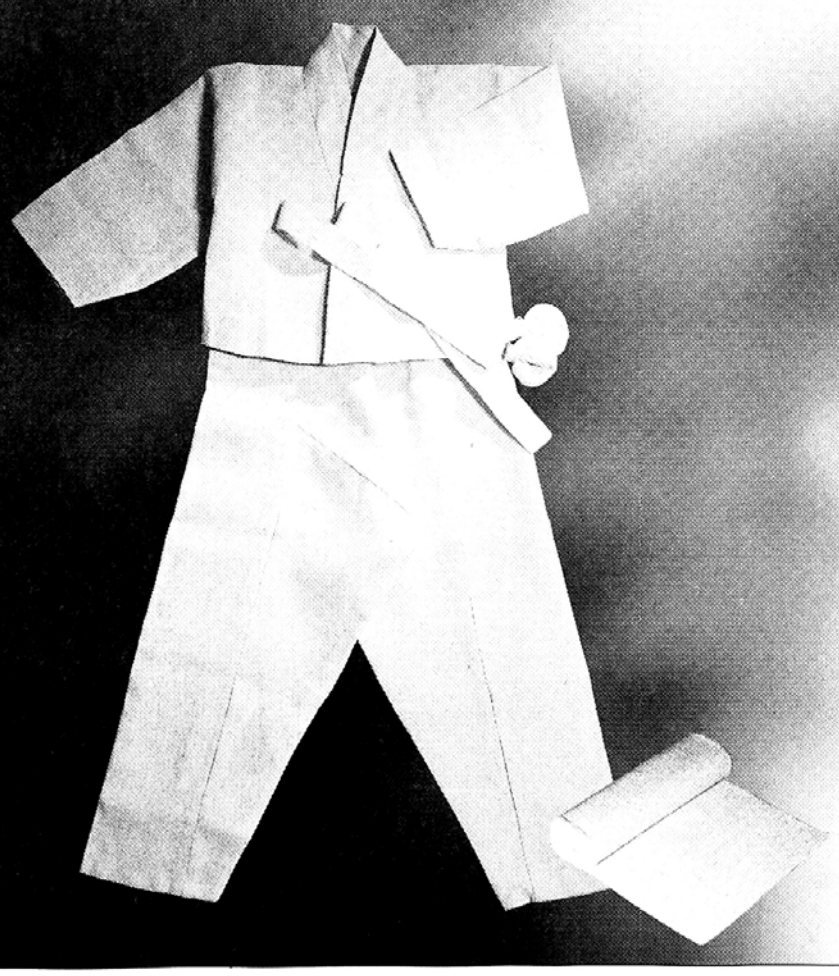
Ⅰ. 보르헤스의 문학 세계와 불교
보르헤스는 누구인가
보르헤스와 불교
불교와 포스트모더니즘
재미있게 읽는 보르헤스

Ⅱ. 불교 강의
전설상의 붓다
역사상의 붓다
불교에 영향을 미친 사상
불교의 우주관
윤회
불교 교리의 핵심
대승불교
라마불교
중국불교
탄트리 불교
선불교
불교윤리
불교란 무엇인가(강연오지)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065(영업부), 737-0084(편집부), 737-0067(팩스)

"장인의 혼으로 우리삼베로"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btn 문화사업단으로 연락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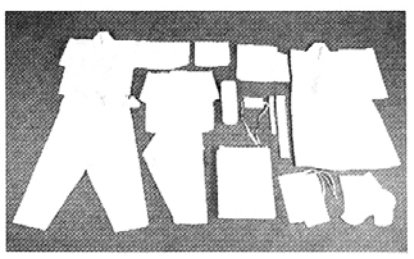
極樂往生服



"윤달이 든 해에 짓는 수의라 뜻깊습니다
부처님 섬기는 마음으로 지어 더욱 뜻깊습니다"

부모님의 환갑, 진갑이 가까워지면 윤달에 수의를 지어두는 것이 상례입니다. 수의를 윤달이 든 해에 짓는 것은 윤달은 공달이라 하여, 사람들에게 오늘은 무병장수 내일은 극락왕생 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맑고 깨끗한 세계가 극락인 것처럼 내일로 떠나실 어른들께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수의를 마련해 드리는 일입니다.

btn 문화사업단에서
효심깊은 불자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윤달에 짓는 수의
'극락왕생복'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부모님께 특별한
효도를 하십시오.



btn 가까이 있는 진리
불교텔레비전 32
문화사업단
우 121-734,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
전화:(02)3270-3366 팩스:(02)3270-3498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함께 하는

불·자·정·보

최소규격 및 가격 :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732-1522(代),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 에서도 접수 가능 합니다.

• 건 강 •

치아사랑은
잇몸건강에서!
시린이 · 풍치 · 잇몸염증에
치약으로 개선~!
012)
8361-5998

암 · 간경화 · 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 · AIDS
만성 신장병 · 암 · 神病
정신질환 · 원인모를 病
제3의학 · 심요법
보상금제도도입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면 보상금(치료비+1천만원)을 드립니다.
TEL : 0552-585-8118 · 8128
H.P. : 011-559-8118/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치료사례 비디오 테잎 무료로 드립니다.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 관 단 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34-1115~6
012)598-1015

죽염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거신죽염 **거산 종합식품**
거산죽염은 "活人求世의 혼"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품질의 죽염을 국내 최저가격으로…
대 표 권 오 현
※ 전화주문시 삼일내 택배 또는 빠른 소포로 우송해 드립니다.
■ 경남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20-2 TEL : 0558-636-7912~3

• 강 좌 •

지장경 독송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현대불교신문
강릉지사
0391)43-5599

현정 심성개발 · 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홀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성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8시 반까지 강좌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氣明綾岾 ↔ 禪
현실적인 아픔이나 정신적인 고통 맑고 심게 선으로 풀어드립니다
힘겨운 생활위주 방법과 방편,
심리상담, 성격교정, 삶에 의욕을 잃으신 분들 매사에 기가 없으시고 지치신분, 허약한 정신과 마음, 생활속에서의 선, 살아있는 선으로 기를 찾아 드립니다.
정신비만+마음비만. 전화상담도 가능
02)897-7731 ●
016)340-4459 ●

사주 · 명리학 배우실 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작명, 진로선택등을 자신있게 풀이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합니다.
■ 개강일 : 월.목요일반(5월 4일부터)
수.토요일반(5월 6일부터)
■ 강의기간 : 3개월 주2회(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3시간씩)
■ 수강료 : 교재대 포함 월 10만원
■ 장 소 : 서울 마포구 대흥동 801-57
한국명리연구원
T. (02)713-4852~3
(개강일전 월, 목요일은 무료 공개강의를 합니다)

동양철학 학인모집중
● 자격 및 년령 제한없음 ● 3개월 졸업
● 철학관 개관시 적극지원 ● 통신생도 모집
● 명리, 작명, 풍수 중심으로 교육
■ 강사 : 철학박사 학장스님 직접강의(동양철학, 침술)
◐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가능
◐ 풍수지리 운세도 직접 전문 감정
◐ 장소 : 혜능선원 강동포교당
※ 극빈불자는 수강료 무료 보시함.
강동구 길동 458번지 길동시장통(지하철5호선 길동역)
혜능불교대학 內 학 장 석 일 관 합장
☎ 02)482-4550, 488-1569

새로운 학설
▶DNA(相生) ▶RNA(相剋) 「유전인자 이론의 최초 강론」
▶태양 분도수 이론과 명리와 서양점성술의 合致
▶공개강의 : 1998年 5月 7日 오후 3시 · 7시
斗星 명리 연구원
※ 위치 안국동 전철역 1번 출구 ☎ 02)737-4182~3

• 구 인 구 직 •

육경신 기도 및 천부경 · 지부경 · 인부경 특별강의
천하도인 황무제께서도 육신통과 금단식으로 팔백년을 장수한 기도날인 음4月17日 庚申日 정오시에 천문이 열리며 천가지 복을 받은 12~1시30분까지 四柱강론으로 수명장수, 부모형제자녀 체질과 질병, 질흉화복과 부부의 運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오행법 강의와 천안통경 천안신 · 지안신 · 38만 6천 흑안신 · 대안통법 특별지도
두루 동참하시여 본인의 주변을 봉사할 수 있는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입제일 : 음 4月17日 해시 입제 ◆해제일 : 음 4月18日 해시 해제
◆회 비 : 1박2일 5만원(침식제공)
직02)821-6622/야 02)923-3110/012)1786-3112/017)236-3110
육경신 도통 회장 태일법사 합장

부전소임 원함
032)468-4859
청우스님

공양주보살님을 모십니다.
(연령 제한없음)
⊙ 천년고찰
천마산 **중화사**
0414-42-2057
중화사 주지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 모심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성복리 393-1
대원사
0331)262-0606

• 수 련 원 •

도원불교수련원
(智庵精舍)
⊙ 개인 및 각 신행단체 수련 대환영 ⊙
본 수련원은 산세수려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불교전문 수련원으로서 일반 불자, 각 신행단체 및 가족단위의 불자들이 기도, 수련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춰 놓은 도량입니다.
수련을 원하시는 불자들은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오시면 친절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院長 性 潭 合掌
전화:0374-32-7464 F:0374-33-7464
※ 명퇴자 대환영 ※

⊙ 기도도량 석굴암 ⊙
200평 석굴속에서 참선하실 분 수시 접수합니다.
(전남 화순군 청풍면)
062)652-4730
※ 거사님 구함 ※
019)602-6667

• 인 쇄 •

다모인기획
각종 고급인쇄
특수인쇄
명함, 스티커, 마스타, 웁셋
T. 02)275-2650
F. 02)268-7421

• 법회 · 공연 •

● 무료담선법회
: 월~금 오전10~12시까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 금강경
● 심신건강상담소
-개인상담: 월~금 오후 1~6시
-직장인 · 대학생: 월 · 수 · 금오후 7시~9시
-방문상담: 토 · 일요일
강남구 역삼동 제일생명 4거리 부근
02)539-1478
015)8312-5478

국 악
전통무용
공 연
경로 · 환갑
각종 공연행사
기획 · 상담 · 공연
02)925-1303
서울예술공연기획
신 상 철

• 학 원 •

소운서예학원
강동구 상일동 124-1
(고덕6단지)
02)
427-5369

청우서예학원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APT.종합상가 303호
0347)
794-2818

• 불교미술 •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 주 요 불 사 업 적 ◇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법당 수미단 옹작 목진함
● 음성(삼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상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다
● 마산(천광사)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 수미단 닫집 경다 경상
● 서울(학림사) 회관 문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趙貴玉 합장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불교
조각원
02)
732-7326

• 필 방 •

대흥당필방
인사동
02)
732-2830

대신당 필방
02)
732-2830

• 불교용품 •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 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 장의 · 납골당 •

21C 장묘문화를 열어갑니다.
★ 종합납골당 '영묘각'
개인단/부부단/가족단/문중단/별당/합동용안/영구위패봉안
★ 종합장례서비스 '백팔(108)상조회'
아직도 타종교인의 손으로 장례를 치르십니까? 석왕사 직영 108장의 사에서는 전국 어디나 출장 장례를 올려 드립니다. 상조회에 가입하시면 더욱 편리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보운산 석왕사 직영
백팔(108)상조회 / 장의부 / 영묘각 사무국
과서잔36일 상담/출장대기 032)6128-108/032)6673-404

「부다피아 포교기금」
PCS 016 핸드폰 특가판매
● 삼성 애니콜 2000 ₩130,000 ※ 가입비 포함
(한정판매수량 300대)
◐ 가입방법 : 전화나 방문접수→입금→개통→송달
문의처 02)732-1522 「부다피아 포교기금」

• 기 타 •



어떤 것이 영원한 현실인가?
햇빛은 뜰위에 조는데
처마끝 제비의 노래여!
대천도 자취흔적 없는데
꽃동산위 흰구름 한가롭네
도서출판 바른보은 ☎597-2460
전등록, 부문관, 벽암록, 천부경, 금강경,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에 이은 바로보인 불법시리즈 제 7 탄 !
부처님의 78대손이신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법문집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목암주나무 묘목 판매
062)222-6003
(주간)
062)234-0095
(야간)

행운결혼상담소
모범허가업소
초혼 · 재혼 전문
만남에서 결혼까지 책임지고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비밀 보장
(부모님 상담환영)
02)960-4564~5

각국 할인 항공권 및 비자안내
미국비자 · 일본비자
중국비자 그외 각국비자
※ 여권발급 · 각국 할인 항공권 성지순례 상담(24시간 상담가능합니다)
주식회사 **일광여행사**
대표전화 02)736-6272

무불스님 ● 달마보급

011-841-3591

• 승 복 •

대성승복
02)
739-
6287

가람승복
02)
739-
0080

• 사찰안내 •

전국사찰-사정상 운영이 어려운 분이나 새로운 운영을 시작하실 분 전화주셔요.
성실히 연결하여 드립니다.
상담전화 : 02)723-4082
011)232-4082
㈜광 진 불 사

◇ 위 치 : 조계사 버스 승강장 근처
◆ 3층, 4층 면적 15평.
보증금 7백만원, 월세 7십만원
◆ 6층 면적 17평,
보증금 5백만원, 월세 6십만원
(보증금 월세 협의가능)
02)723-5442
02)732-4082

경남 통영시 청정1급수지역
"나한기도처"
◇ 대지평수 : 1,200평
◇ 건물 : 46평(요사방 2개, 법당 1개)
◇ 가격 : 2억 2천 (조절가능)
012)1067-0108

대구시내 포교당
◇ 급히 양도함
◇ 보증금 : 2 500만원
◇ 법 당 : 60평
053)943-4170
016)586-3669

◆ 사찰(포교원) 급히 양도함
◇ 서울 마포구 성산2동 동사무소앞
◇ 건물보증금 : 천만원에 월세 55만원
◇ 시설양도금 : 1,500만원 (고급시설완비)
◇ 총건평 : 35평중 법당1칸, 방2칸, 부엌 1칸,샤워및 화장실 1칸
◆ 베란다및 옥상 사용가함
02)374-5295
011)742-2955

사찰 임대 운영하실 분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법당 및 요사 : 60평
◆건 물 : 3층건물 3층 옥상사용
◆시 설 : 담사후 절충
◆보증금 : 2천만원/ 월 40만원
◆특 징 : 대구시내에서 가장 운영이 잘되고 있는 도심속의 기도 및 포교도량으로 입주즉시 법회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있고 도량 운영상 하자가 없습니다.
특히, 비구니스님 도심 포교도량으로서 최적입니다.

※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연결하여 드리고
양도의 사찰 법률, 세무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본 사찰은 정법도량이므로 스님 외 일반인,무속인, 보살및 대리상담은 절대 사양합니다.
(주)동국불사
상담전화 : 080)512-4447
※ 출장중이 많습니다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호출상담 : 012)1648-6334

◇ 부산시 구서동 선경1차
포교당 45평
◇ 전세 1,500만
◇ 월세 80만
※ 전세 · 월세 조정가능
051)517-2080
〈종무소〉

◆ 사찰전세안내
◇ 위 치 : 서대문구 북가좌동
◇ 법 당 : 부처님삼존불, 약 15평
◇ 요사체 : 주방 · 거실 · 화장실 완비
◇ 전세가 : 약간
02)308-0788

◆ 도심포교당 하실 분
◇ 위치 : 서울 송파구 잠실 (석촌호수 부근 대로변)
◇ 평수 : 4층건물에 4층, 법당40평 (옥상 사용가)
◇ 가격 : 보증금 2천만,월세 60만원 (시설비 별도)
◆ 비어있는 상태, 바로 입주가능
011)833-1712, 011)301-1711
0525)33-0705

◆ 기도 정진하실 분을 모십니다.
◇ 소재지 : 전남 광양시 봉광면 조령리 산 47번지 하조암
◇ 대 지 : 50평
- 법당, 방3칸, 부엌, 건평 20평
◇ 백운산에 위치, 경관수려, 전기 · 전화 · 교통시설 있음.
◇ 가 격 : 넌 10만원
0667)762-6911

◇ 위 치 : 서울시내
북한산 국립공원 안
◇ 국유지 : 약 3천평
◇ 전통 목조 법당 동굴 산신각 등 건물 6동
◇ 계곡, 기암괴석, 울창한 숲속
◇ 서울 강남까지 조망가능
◇ 가 격 : 6억 5천만
※주직: 02)512-3092

◇ 위 치 : 강원도 영월 (제천에서 더 가까움)
◇ 평 수 : 730평(종교용지)
◇ 법 당 : 40평
- 산신각, 요사체 4동(총건평 90평), 석등, 석탑,
- 방10개, 화장실
◆ 기도도량으로 적격임
◇ 가 격 : 1억 3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서울에서 2시간 20분 거리
0373)374-1765

■ 아파트 입주(24평)
◇ 위치 : 대구에서 30분거리 (경산)
◇ 대지 : 24평
◇ 완공후 1년
◇ 전세 : 1,500만원
월 4만3천원(주택부금)
◆ 즉시입주가능, 수향 · 요양하실분 경관수려한 환경
02)720-8113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인 덕 원

대표이사 서 성 운
상임이사 김 도 광
인덕노인복지관 관장 서 병 진
인덕재가노인복지센타
주간보호소 소장 엄 무 성
단기치매보호소 소장 정 명 자
인덕어린이집 원장 진금선 수색어린이집 원장 나영희
개나운 어린이집 원장 최숙희 배봉어린이집 원장 양근순

■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488번지
TEL : 385-8205~6 FAX : 385-8207

은평불교사원연합회

회 장 서 성 운 (삼천사주지)

부 회 장 한 자 용 (수국사주지)
부 회 장 김 혜 진 (시연사주지)
부 회 장 이 법 성 (관음사주지)
부 회 장 김 혜 장 (송천사주지)
총 무 서 혜 인 (신흥사주지)
총 무 김 도 광 (불광원원장)

■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127-1
TEL : 02)353-3004, 359-7766

대한불교 조계종
봉 은 사

조 실 석주 큰스님
주 지 무 상

부주지 원 혜 포교실장 보 천
총 무 범 일 문화사회 승 원
교 무 원 광 편집주간 허 주
재 무 보 화 도 감 이 삼
원 주 성 관

대 중 일 동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TEL : 511-6070~4

한국승가대학원
(불경한문학회)

책임교수 최 광 영(공덕)

■ 대구시 동대구 우체국 사서함 41호
TEL : 053-952-8711/017-501-8711

대한불교 조,계 종
불 암 사

주 지 斗山 日面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불암동
TEL : 0346-65-8345/554-0635

봉 선 사
서울포교당
광명선원

원 장 초 격

거사림회
신 도 회
학 생 회
어린이회
일 동

■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894-18
TEL : 02-584-1108 FAX : 02-587-3753

대한불교 총화종
만 경 사

● 만경사 서울 강동 포교원 ●

회 주 박 청 해

■ 충남 천안시 수신면 백자리
TEL : 0417-64-3895

천연석굴도량
화 장 산
천연미타굴
굴 암 사

주 지 석 법

신 도 일 동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397-1
TEL : 052-262-0456

대한불교조계종 정토회 본원 포교원
서 원 사

회 주 석 효 란
주 지 석 서 진

대 중 일 동

■ 서울 강북구 수유1동 56-58호
TEL. 02-988-7484 FAX. 02-983-8017

남북통일기원 청동대불봉안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각 원 사

주 지 신 법 인
총 무 서 대 원

대 중 일 동

■ 충남 천안시 안서동 산 98-83
TEL : 0417-61-3545 FAX: 0417-556-1425

대한불교 조계종
화림선원

효탄스님외

신 도 일 동

■ 경기도 안산시 일동 산 115
TEL : 0345-408-5525

정 토 사
배달문화 선양회, 설산장학회

주 지 설 산

대 중 일 동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523-61
TEL : 02-379-5502

마이산탑사

주 지 혜 명

신도회 일동

■ 전북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8번지
TEL : 0655-33-2900/32-0652,0072
FAX : 0655-33-0012/0303

무 학 사

주 지 해 암

관음회 일동

■ 서울시 중구 신당1동 304-188
TEL : 02-238-8872, 235-9900

해 원 사

주 지 종 운
신도회장 배 복 례

신 도 일 동

■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793-1
TEL : 02-914-0879

팔공산 약 사 암

주 지 일 여
신도회장 이 광 영

사부대중 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TEL : 053-852-0803

청소년 수련원
대한불교 조계종
신 흥 사

주 지 오성일

사부대중 일동

■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상안리 산 42-1
TEL : 0339-57-2695, 3916

한국불교미술원

문화재 수리:단청기능 708호, 도금기능 821호
탱화 · 단청 · 불상조성

원 장 정 규 진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96
TEL : 02-730-8072/(야)02-648-0930

북한산 무 량 사

주 지 무 량

신 도 일 동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464-1
TEL : 02-351-3789/385-7777

대한불교 조계종 황금절
수 국 사

주 지 한 자 용
신도회장 김 자 비 심
합창단장 문 안 락 행

대 중 일 동

■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14
TEL : 02-359-6297 FAX : 356-2002

지장기도 참회도량
심학산 약 천 사

주 지 허 정

신 도 일 동

■ 경기도 파주시 교화면 동패리 284
TEL : 0348-942-3880

대한불교 조계종
자 현 사

무의탁 청소년들의 보금자리
둥지청소년의 집

주 지 법 현

둥지마을 후원회 일동
※ 노인무료양로원 건립도량

■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121번지
TEL : 032-883-9033,691-7686
FAX : 032-882-9097

약사포교원
정 법 대 학

불교지도자협회회장
장 각 성

신도회장 김 수 복

■ 서울시 강동구 길1동 366-4
TEL : 02-474-0554 FAX : 02-472-5292

인 과 선 원

주 지 정 덕

신 도 일 동

■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657-2
TEL : 02-993-3706/907-3706

대한불교 총화종
정 은 사

주 지 이 기 태

신 도 일 동

■ 인천직할시 남구 숭의4동 18번지 21/2
TEL : 032-875-5280, 3459

대한불교 조계종
개화산 약사사

주 지 장 영 하

신도회장 황대덕월
관음회장 이금선화
지장회장 조금강심
약사회장 김대비화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332-2번지
TEL : 02-662-2551, 661-0867

사 단 법 인
한국불교사회봉사회

이사장 이 설 산

임 원 일 동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321-3
TEL : 02-303-0024~5

대한불교 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종 하
신도회장 유무심화

신 도 일 동

■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번지
TEL : 02-582-8069

한식 동(銅)기와
풍 진 상 사

대 표 이 승 진

직 원 일 동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0-6
TEL : 0342-713-5760(대표)/715-8239

대한불교 대각종 종정
계향산 米岩寺 (쌀바위)

소원성취 기도도량
난 치 병 완치도량

조 실 석 만 청
신도회장 강 현 수

사부대중 일동

■ 충남 부여군 내산면 미암리 21-5
TEL : 0463-32-1188~9 FAX : 0346-32-1187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금산 보리암

주 지 동 욱

사부대중 일동

■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2065
TEL : 0594-62-6115,6500

불교 전시관

대 표 조 재 원

· 탱화, 동불, 특수불, 개금, 단청, 범종, 탁자
· 불교서적, 테이블, 4·8용품
· 불교용품 일체도산매

■ 부산시 동구 범일2동 330-152
TEL : 051-647-7393
051-632-7393/644-8092

주택방앗간

대 표 박 대 현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323-118 13/5
TEL : 051-404-2868

금 강 약 국

오준길 · 정미영

■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2가 69번지 15/2
TEL : 051-245-7982

국제 라이온스협회 354-A 지구

서울반야라이온스클럽

회 장 강 학 일

회 원 일 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5
TEL : 02-732-0614

국제 라이온스협회 355-A 지구

부산 반야 라이온스

회 장 김 종 호

外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73-17
TEL : 051-761-1478

해 광 기 획

옥불조성 전문업체

(108불 · 일천불 · 삼천불 · 일만불)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19(원당빌딩 203호)
TEL : 02-732-4872~4

보 은 인 쇄

각종 인쇄물
각사찰 카렌다 제작
법보시용 책자인쇄

■ TEL : 02-732-0469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합창단

부처님께 올리는 음성공양을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 하실 단원을 모집합니다.

단 장 박 채 주
총 무 강 갑 숙

단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중리 522번지
TEL : 051-403-7077/634-5114

자비실천회

찬불가교실

찬불가, 가곡, 가요등을 무료지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향 가득한 찬불의 노래속에서
불심을 키울 분들을 기다립니다.

회 장 한 영 옥
지도강사 이 옥 희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67 동보B/D 4층
TEL : 051-898-1547/634-5114

대한불교조계종

금강불교 아카데미

원 장 석 지 형

동문일동
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72-5
TEL : 051-621-8548/621-8549

대한불교조계종

묘봉산 혜원정사

조 실 고 산
주 지 효 명

고산장학회 · 선지식회
자비회 · 지장회
관음회 합창단 · 연꽃부부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산 1113-1
TEL : 051-866-7771~3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금 수 사

주 지 이 법 홍
부주지 송 구 산
신도회장 지 재 호
부인회장 김 보 원 행

대중일동 ·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4동 843
TEL : 051-462-0338(주지실)
051-467-3316(종무실)

대한불교 관음 선행회

재단법인 관음선행장학회

고 문 정 금 강 행
회 장 김 무 상 심
부회장 김 실 상 화
김 원 각 심
총 무 문 무 량 경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1동 1204-7(혁정빌딩 7층)
TEL : 051-464-2020

부산불교 오불 유마회

"불법과의 만남초대"

■ 때 : '98.3월 매주 첫째 월요일(19:00~21:00)
■ 장소 : 현대불교신문사 법당
■ 교재 : 금 강 경
■ 강사 : 노 강 용 법사

회 장 김 영 권

■ TEL : 051-502-6429

부산불교 교육대학

이사장 한 재 구
학 장 이 하 우
부학장 박 주 천

총무처장 현익채 교무처장 이욱태
방송실장 김계운 관리처장 이정우
홍보실장 김수문 총무간사 김옥경
서 무 한은기

■ 부산광역시 진구 부전1동 390-34 화엄회관 2층
TEL: 051-818-8659 FAX: 051-807-7351

부 다 가 야

4 · 8용품 · 예수재 · 49재 · 불사
탱화 · 불상 · 기획상품

■ (양정R) TEL : 051-865-4383
FAX : 051-865-4821

대 한 기 획

불서출판 · 사보편집 · 팜플렛
달력 · 기획인쇄

■ (양정R) TEL : 051-866-7818
FAX : 051-864-7075

※ 부산 · 경남에서는 유일한 불교기획 전문회사입니다.

백양산 선암사

법 주 중 원
주 지 원 타

대 중 일 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3동 628번지
TEL : 051-803-7573,7522
FAX: 051-803-7521

대한불교조계종

해운정사 금모선원

조 실 임 진 제
주 지 하 명 언

대 중 일 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412 32/4
TEL : 051-746-2256, 4812
FAX : 051-741-8882

세 명 식 품

대 표 설 정 수

각종 젖갈 · 보쌈젖갈 · 김치
주 문 생 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341-24
TEL : 051-804-5989/817-5915

현 우 기 획

조립식 팔각등 제조판매
인쇄된 장엄등 · 백등
초벌등 · 백중등 · 영가등 外

■ 서울특별시 중구 묵정동 18-27 대학문화원 312호
TEL : 02-277-1548/016-552-9360

통도사 부산포교원

부 설

시민선원 · 문화관
부산연꽃 · 김해연꽃
울산 보리수 어린이집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TEL : 051-816-2241
FAX: 051-806-2430

대한불교조계종

구 룡 사

주 지 전 삼 지
총 무 천 법
사무장 이 상 옥

신도회장 유용근 유금용
신도부회장 방부성 이유순
대원회장 김법륜화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29
TEL : 0371-732-4800
FAX: 0371-732-1211

대한불교천태종 백양산

삼 광 사

주 지 박 덕 수
총 무 윤 덕 준
교 무 곽 수 산
재 무 정 거 호
노 전 유 대 어
신도회장 안 영 일

사부대중일동 합장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
TEL : 051-808-7111~5 FAX: 051-803-1332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주 지 최 지 원

신도회 · 지장회
인등회 · 관음회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61-3
TEL : 051-623-3648/624-3754

대한불교조계종

육 주 사

주 지 현 엽

신도회 · 자은회
관음회 · 청년회
초 · 중고등 학생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657-1
TEL : 051-971-0042

대한불청부산지구

불교청년회

회 장 김 수 현

수석부회장 정 종 국
외무부회장 이 성 호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0-267 동보B/D 4층
TEL : 051-645-7871~2
FAX: 051-645-7873

부처님과 산이 만납니다.

부산불교산악회

회 장 류 동 길

부회장 박형주 강갑균
정성구 박건오
서건교 김병기
총무부장 김춘식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2동 1252번지
TEL : 051-637-5230
FAX: 051-644-7475

부산여성불자회

자문위원 정봉화 이영숙 박성빈
회 장 왕 선 자
부 회 장 이윤목 허영애 문남순
총 무 안영자 심춘자
재 무 이미춘 도정애
감 사 이경월 이소연

회 원 일 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8/2
화엄회관 2층(부산불교교육대학옆)
TEL : 051-809-3166/817-3166

사단법인

부산불교신도회

회 장 류 진 수
상임부회장 임 채 수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4-7 혁정B/D 7층
TEL : 051-464-2020/464-4786

이렇게 들었다

가족화합

고락 나누며 서로 걱정해주라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가장들은 힘들어하고 있다. 어려운 살림을 쪼개고 남편에게 힘이 돼 주어야 하는 아내들의 가슴도 멍들어간다. 아이들의 표정도 어둡게 바뀌어간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은 가정의 단란함마저 깨뜨리고 있다. 가족부양에 부담을 느낀 남편들의 자살이 잇따르고, 가난을 비관해 가출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단위이자 안식처다. 한핏줄끼리 서로 의지하고 힘이 돼 준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전의 말씀을 통해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되새겨보자.

〈편집자 주〉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의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장신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을 가족이라 말하는가? 선남자가 집에 살면서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 하고, 괴로울 때 같이 괴로워하며, 일을 할 때에는 뜻을 모아 같이하는 것을 가족이라 말하느니라." 〈잡아함경〉

▨부자·형제·부부·친족간에 항상 서로 공경하고 사랑하여 질시하거나 증오하지 말라. 안색은 항상 화평하게 하고 서로 멀리 있어도 걱정해 주어야 한다.

〈무량수경〉

▨능히 신앙을 지켜 가정이 화평하고 편안하면, 현세에 경사가 있어서 복이 저절로 좇아오게 마련이다. 복이란 행위에서 오는 과보일 뿐, 결코 신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 〈아난문사불길흉경〉

▨친족끼리 서로 친근하고 공경하면서 서로 돕고 고락을 함께 하도록 하면 이것으로 북방(北方)이 안온할 것이니, 이것이 북방에 대한 예배니라. 〈육방예경〉

▨부모를 잘 봉양하고, 처자를 아끼고 보살피며, 올바른 생업에 정진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대길상경〉

▨친족의 그늘은 시원하도다. 석가 종족은 부처인 나를 낳았으니 석가족은 모두 나의 가지요 잎이라. 그러므로 나는 이 나무 밑에 앉았노라. 〈중일아함경〉

▨가정 생활에서 매일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가족들은 개미와 꿀벌처럼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아무도 다른 식구에게 의존하거나 자선을 기대하면 안된다. 아무도 제가 벌어들인 것을 다 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다른 식구에게 나누어 주고, 얼마쯤은 아껴서 비상시에 대비하고, 또 얼마쯤은 사회와 국가에 이바지하고, 또 얼마쯤은 성직자에게 바쳐야 한다. 〈육방예경〉

▨정숙하고 어진 아내는 집안에서의 좋은 벗이며, 스스로 닦은 선행의 공덕이 내생에서의 좋은 벗이니라. 〈별역잡아함경〉

▨남편은 다섯가지 일로 그 아내를 존경하여 부양해야 한다. 다섯가지란 바른 마음으로 존경하며, 아내의 뜻에 대해 원한을 품지 않으며, 딴 여인에 대한 애정을 지니지 말며, 때에 맞추어 의식을 주며, 때로 보배의 장신구를 주는 일이다. 〈선생자경〉

▨아내는 마땅히 열네가지 일로 남편을 섬겨야 한다. 열네 가지란 무엇인가? 행동을 착하게 하며, 선을 실천해 이루며, 지출 아끼기를 세밀히 하며, 새벽에 일어나며, 밤 늦게 자며, 반드시 일을 이루며, 남편을 대접하며, 남편에게 인사하며, 말과 어세를 부드럽게 하며, 말이 순하며, 자리를 바로하며, 음식을 깨끗이 하며, 보시를 잊지 않으며, 남편에게 봉사하는 일이다. 〈선생자경〉

▨자식은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마땅히 다섯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경제적 활동을 생각함이다. 둘째는 일찍 일어나 종에게 명령하여 때에 맞추어 밥을 지음이다. 셋째는 부모의 근심을 더하게 아니함이다. 넷째는 부모의 은혜를 마땅히 생각함이다. 다섯째는 부모가 병들었을 경우, 두려워하여 의사를 구해 치료함이다. 〈육방예경〉



그림 · 이준석

신행수기 당선작

특별상〈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③ · 끝

나는 거동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구인사로 향했다. 그곳에서 한밤중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또다시 교만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내가, 불교의 심오한 교리를 공부한 내가 이게 무슨 꼴인가. 그런데 옆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새로운 변화를 보이는 것을 보고 나는 다시 깜짝 놀랐다.

'그래, 나도 관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다시 일어나 보자.'

그곳에서 사흘동안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고 상월 큰스님을 뵙고 여러가지 상담을 한 뒤 집으로 왔다. 집에 와서 관음정근을 시작했지만 다시 믿음 반, 의심 반으로 하다말다 하였다.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기도가 이어졌다. 끊어질 듯 끊어질 듯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내 몸은 점점 지쳐갔다. 절실한 기도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다. 믿음보다는 아프고 괴로워서 오기로 하다가 눈물로 호소하다가 잠이 들었나본데 이렇게 꿈 속에서 상월스님을 친견하고 단박에 건강을 찾은 것이다.

항상 소화가 안되고 손발도 얼음장 같던 내 몸은 마치 다른 사람인 듯 따뜻해졌다. 다시 건강을 찾은 나는 한라산도 두번이나 등반을 하였으며 지난 해에는 민족의 정기가 서린 백두산에도 올라갔다 왔다.

"불교는 실천하는 종교"
마음속 관음보살 염하며
지계·보시·인욕의 생활

그 후 난 신앙은 이론만이 아님을 알았고 이제는 항상 관세음보살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지낸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괴로울 때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힘든 일이 잘 비켜가 주기도 한다.

그런데 1983년 대흥초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관절에 이상이 생겨 아이들과 운동도 못하고 오래 걷지도 못하여 쩔쩔맨 적이 있었다. 대전에 있는 정형외과에서 한달 이상 치료를 받았는데 도무지 차도가 없었다. 다시 괴롭게 지내던 차에 월간 '해인'지를 보니 성철스님의 법문에 "해인 회원은 한 주에 한 번은 꼭 108배를 하십시오"하는 말씀이 있기에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연수원 법회가 끝나면 천불전에 올라가 조심조심 108배를 시작하였다.

관절염에 108배는 아주 나쁘다고 모두 말렸지만 조심하면서 열심히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날 가만히 생각해보니 관절에 통증이 없어진 것 같아 병원에 뛰어가 진찰해보니 정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해서 두번이나 관음보살님의 가피력으로 일어난 사람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배우고 실천하는 종교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실천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웃에게 남모르게 보시도 하고, 작은 일에도 기쁘게 참여하며, 힘들고 괴로울 때 인욕하면서, 분수에 맞게 계율도 지켜 조심스럽게 생활하면 부처님의 가피력을 입는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조명숙〈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가족에게 쓰는 편지

■ 아내가 남편에게

"10년전 실직고통 이겨냈듯 IMF때도 용기 잃지 마세요"

매일 저녁 지친 모습으로 퇴근하는 당신에게 선뜻 위로의 말 한마디 던지지 못했습니다. IMF 감원한파로 직장동료들이 떠나고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묵묵히 회사를 지키시느라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세요. 힘들다는 내색을 안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당신에게 이렇게 한 조각 글로나마 우리 가족의 사랑을 전해볼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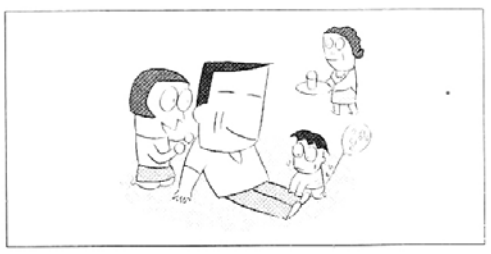
당신에게 편지를 써본지도 꽤 오래 전 일이군요. 우리 연애할 때 생각나요? 그때 당신은 참으로 편지를 자주 쓰던 감성적인 남자였어요. 그런 감성을 지녔던 당신이 생활에 찌들리고 일에 쫓기며 하루하루 시들어 가더군요.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다는 우리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시는 당신을 보며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늘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는 이 마음만은 언제나 한결같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10년 전 당신이 실직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제 마음이 이런데 당신은 오죽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신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어요. 싫다는 당신을 끌고 남대문 새벽시장이며 동대문 시장 등을 돌아다녔던 때가 눈에 선합니다.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고 당신도 변하는 것 같았어요. 함께 절에 가서 간절히 기도도 드렸죠. 그렇게 마음을 달래고 기운을 내 다시 새 일자리를 찾았던 당신이 자랑스럽고 고마웠어요. 실직의 아픔도 이겨냈잖아요.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집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며 당신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기운내요. 당신 곁엔 부처님 가피와 우리 가족의 사랑이 항상 함께 할테니까요. 이지혜성〈서울 광진구〉



■ 아들이 아빠에게

"작아보이는 뒷모습 가슴 아파 사랑스런 가족보며 힘내세요"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잘못을 해도 야단치지 않는 아빠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아빠 얼굴에 내려 앉은 어둠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르고 동생과 장난치고 웃고 떠들고 즐거워만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엄마한테 야단맞고 야속해 하기도 했구요.

하지만 이젠 저도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아빠의 뒷모습이 작아지는지, 왜 그렇게 아빠의 어깨가 내려 앉는지를.

아빠! 우리는 한가족이잖아요. 제가 아직 어리지만 아빠 엄마의 힘든 일을 나눌 수 있을만큼은 컸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아빠는 저의 든든한 후원자셨잖아요. 이제는 장남인 제가 아빠의 듬직한 후원자가 될게요. 얼마 전에 〈부모은중경〉을 읽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부모님 은혜를 말씀하셨죠. 저도 그렇게 노력할게요.

아빠 힘내세요. TV를 보면 우리집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들보다는 그래도 우리집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건강도 많이 나빠지신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매일 가족들을 위해 다른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니시면서 아마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나봐요. 아빠가 있어서 전 행복해요. 집을 훌쩍 떠나버리는 가장들도 많다던데 아빠는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계시잖아요. 아빠의 얼굴에 하루속히 환한 미소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빠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있잖아요. 요즘엔 아빠가 큰스님 법문을 듣고 염불을 들으면서 웃음을 찾으시는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우리 아빠 파이팅!

이중희〈경북 영덕 강구중 3〉

■ 실직아버지가 자녀에게

"무능하고 초라한 느낌 들지만 겸허하고 슬기롭게 재기 노력"

얼마전까지만 해도 앙상했던 나뭇가지엔 싱그러운 봄꽃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그윽한 꽃향기마저 내뿜는 풍경을 볼 때 우주의 신비함을 새삼 경탄케 하는구나. 어느덧 신록의 계절, 5월은 우선 너희가 이 세상에 따뜻한 햇살을 받고 축복 속에 태어난 달이면서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함께 놀아주기를 떼쓰며 보채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둘다 대학생이 됐으니 참으로 세월이 빠르기도 하구나. 요즘 너희 남매가 각자 생활로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이 아버지는 왠지 무능하고 초라한 느낌마저 들 때가 많다. 게다가 너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굳건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폭넓게 이해해주려는 너희의 마음을 갸륵하고 대견스럽게까지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생각한다. 국가, 사회적으로나 우리가정의 실정에서도 현재는 어렵고 중요한 시기다. 이때를 계기로 우리 각자가 자기분수를 알고 겸허한 자세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과거 중고시절 아버지가 이런저런 과잉관심으로 너희와 한때 갈등을 빚었던 점에 대해 현재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으나 대개의 가정에 흔히 있는 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 아버지도 어렵고 힘들지만 한국불교종단협이 실직자를 위해 마련한 오뚜기 모임터에서 재기의 의지를 다지며 제2의 인생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너희들의 시대에는 감성과 유연성이 요구되는 사회가 전망된다고 한다.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동시에 건강에 항상 유념하거라.

두 남매의 아버지 안성근〈서울 강남구 역삼동〉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 2개월분을 ₩400,000으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돕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

부처님의 자비로 이웃과 함께

'부처님의 자비광명 온누리에 가득하소서'
대한불교 조계종 **대구광역시 사원주지연합회**

회 장 元 明
회 원 사 찰 일 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산 143-1번지
TEL : 053-763-9824~5 FAX : 053-761-9347

國際佛教徒聯合會
International Buddhist Association

■ 본부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2동 833-1번지 우리빌딩 301호
TEL : 051-644-1221 FAX : 051-644-1222

대구광역시
불교신행단체 연합회

회 장 유상종
外 임원일동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불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나이다"

심천서예 (사군자)

원 장 양시우(심천)

■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2동 695-6
TEL : 051-633-3338/467-8345

보리밥집
날마다 좋은날

최 봉 희

■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148-1
TEL : 053-651-2470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사·불광대학**

주 지 惺 峯
학 장 종안 조길조
신도회총회장 우 백운화
기획처장 중현 이종일
학생처장 자광 빈일열
홍보처장 종인 장용환
사 부 대 중 일 동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1828-1
TEL : 053-626-1703, 656-6766

대 성 암

주 지 법 용
신 도 일 동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금대3리 262(치악역뒤)
TEL : 0371-763-8837

대한불교 법화종 **청 용 암**

주 지 도 숙
신 도 회 일 동

■ 서울시 동작구 흑석1동 山 5-12
TEL : 02-813-1820

적멸보궁
사자산 법흥사

주 지 도 안
신도일동

■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법흥리
TEL : 0373-374-9177, 9178

대한불교 조계종 **흑성산천불암**

매월음력 초닷세는 큰스님초청 법회일
회주 一古 起然
주지 富佛 印鏡
사무장 황연선 관음회장 박영순
부회장 박돌선 권오자 김윤겸
총 무 정옥임 원 주 이윤숙

■ 충남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113번지
TEL : 종무소 0417-557-3223,557-3506
주지실 557-1388 다례원 555-6550

대성사 원융원

주 지 법 신
신 도 일 동

■ 서울시 중구 신당4동 340-8
TEL : 237-9796 (원융원)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하천2리 2번지
TEL : 0356-84-1541(대성사)
※ 만불(지장보살) 조성도량

불광불미술원

원 장 박갑용

■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하천리 418-4번지
TEL : 0356-84-3952

대한불교조계종 직영사찰
관음성지 낙가산
보 문 사

주 지 원 종
사부대중 일동

■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
TEL : 032-933-8271~3
FAX : 032-933-8270

청계사

주 지 지 명
신 도 일 동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산11번지
TEL : 0343-26-2348, 주지실26-2670
FAX : 26-0006

한국불교 태고종 **백련사포교원**

원 장 박지상
신 도 일 동

■ 서울 강남구 신사동 652-16
TEL : 02-547-8268, 8269
FAX : 547-8220

대한불교 조계종 **목포불교대학**

이 사 장 천 운
학 장 보 선
교직원 학생일동

■ 전남 목포시 산정동 1744-3 (4층)
TEL : 0631-79-0577
※ 목포지국 / 장근헌 총무국장

대각사 대각선원

석가여래부촉법 제70세 법사
조실·주지 불심 도문
부주지 무심 보광
총 무 각천 청청

■ 서울시 종로구 봉익동 2번지
TEL : 02-765-0972
FAX : 02-742-2126

함월산 기림사

주 지 법 일
사부대중 일동

■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419
TEL : 0561-44-2292
FAX : 0561-44-2269

국민회의 **새정치국민회의 부산·경남연등회**

회 장 사 상 호
상임부회장 김 찬 묵
부 회 장 김 진 석, 하 도 종
조 충 제

저희들의 창립법회(국난극복과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법회)에 보내 주신 성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불국정토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5동 702-9 뉴그랜드오피스텔 1105호
TEL : 051-852-0813~4 FAX : 051-852-0815

대한불교조계종 **수안사(수안불교대학)**

주 지 박세민

◆ 수안불교대학 학생및 대학원생 모집 ◆
· 이지관 큰스님 (금강경)
· 목정배 교수 (한국불교문화사)
· 권기종 교수 (기초불교교리)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38-12
TEL : 02-587-4677

사회복지법인 **불 국 토**

대표이사 정 관
상임이사 혜 총
이 사 정 년 이 사 정 여
이 사 지 현 이 사 종 실
감 사 박창식 감 사 김대용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260-5
TEL : 051-868-0951 FAX : 051-868-1258

慈 悲 院

社會福祉法人 大覺慈悲院 理事長
財團法人 三德佛教人專用墓園 會 長
釜山佛教慈悲院 院 長
(慈悲의 電話, 無料法律 相談)
釜山佛教大學 學 長
큰수레경전 硏究所 所 長
月刊 큰 수 레 발행인겸 편집인
影島蓮萊山彌龍寺 主 持
金 正 覺

■ 彌龍寺 : 釜山廣域市 影島區 東三1洞 323-194
TEL : 051-403-4848, 404-4300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산지부

지부장 성오스님
부지부장 정암스님
사 상 호

운영위원(가나다순)
강선태 류지장화 박성빈 설정수
왕선자 이기표 이윤옥 이하우
장복녀 조정임 한계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8/2)
성원서면주차빌딩 2층
TEL : 051-817-2648(FAX겸용)

대한불교법등회

지도법사 이 혜 총
회 장 강자명심
총 무 박 정 순
재 무 김 외 화 외
회 원 일 동

■ TEL : 051-523-1480

장 복 철 강

대 표 신장교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603-9
TEL : 02-634-3439 FAX : 02-631-3439

대한불교 조계종 **보현정사**

회 주 달 오
주 지 덕 일
신도회 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4동 22-120
TEL : 051-861-0034

삼 밀 사

신 도 일 동

■ 경상남도 진해시 여좌동 313번지
TEL : 0553-42-6531

사단 법인 **동다송문화회 동다송문화원**

1층 허영한복 · 동다무역 051-625-0784~5
2층 송풍앙(다실) 051-621-8648~9
3층 숙로지실(교육원) 051-626-4632
지하1층 소강당(전시 및 특강) 051-621-8648

원 장 박 수 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동 8-2

시론

공직자의 재산

4월 29일자 주요 일간지에는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산 공개 과정에서 제기된 불성실 신고가 문제되어 사표를 제출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고, 30일자에는 새로 김모임 연세대 간호대학원장이 장관으로 발령난 기사가 실려 있다.

재산 때문에 장관사퇴 서민들 무엇을 느낄까

그 와중에 박영숙 전 국회의원이 거론되었으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 제외되었다는 보도 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재산 문제를 보면서 일반 서민들은 무엇을 느낄까.

대부분은 무슨 공직자들이 그렇게 재산이 많은가 하고 생각할 것 같다. 이번 새 정부에 입각한 인사들의 평균 재산이 10억원이며 이전의 김영삼 정부 시절의 장관들보다 많은 편이라는 신문기사도 있었다. 국민주택 규모의 집 한 채 값이 서울에서 1~2억원 정도 하는 세상이니까 그런 집을 대체로 다섯 채, 지방 같으면 열 채 정도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하면 큰 거부감이 없지만 공직자가 돈이 많다면 의례 색안경을 끼고 보기 쉬운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나 재산의 형성은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나 부잣집과 혼인을 하거나 또는 운이 좋아서 일 수도 있다.



최경구
〈경기대교수 · 사회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은 산업화 3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한국의 부자들은 대체로 부동산 투기 등 탈법적 과정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고 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개발독재 시대의 '천민 자본주의'는 정경유착과 부정 부패를 만연하게 하였다. 따라서 그 시절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서민들에게 혹시 선망의 대상은 될 지언정 존경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부자가 혹여 선망의 대상이 될 지언정 존경받지는 못하는 사회가 한국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서민들의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부자에 대한 선망이 자신의 무능에 대한 한탄과 자조와 함께 상대적 박탈감을 동반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나머지 나도 기회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잠재적으로 부정부패에 편승할 수 있는 사회심리적 구조를 만들어 내는 부정적 측면이라 하겠다.

한편 부자에 대한 존경의 철회는 과거의 선비 사상이 아직도 우리에게 하나의 이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난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선비적 문화 풍토는 향후의 '민주 자본주의'로의 가능성을 뒷받침해주는 긍정적 측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올바른 방법으로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즉, '천민 자본주의'가 아닌 '민주 자본주의' 사회를 이룩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그렇게 되면 부자를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히 존경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공인은 사적이익 앞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공직자는 공인이다. 공인을 불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한다면 장자라 할 만하다. 장자는 대개 부와 귀를 같이 지니는 존재이지만 항상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에 앞서, 모든 중생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중생의 아픔과 즐거움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적어도 보살도를 지향하는 사람이 공인인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장자의 상을 공인의 이상형으로 본다면 지나친 기대일지도 모른다. 부와 귀를 함께 지닌 공인도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고 그 중 하나만을 가진 공인도 있을 것이다.

또는 그 중 하나도 갖지 못한 공인도 적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베풀면서 사는 것이 공인의 바람직한 생활태도인 것만은 틀림없을 것이다. 공인에게 있는 것은 물질적 재산 뿐만 아니라 정신적 재산, 즉,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적인 것, 즉,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열린마당

일본 대중문화 개방

김대중 대통령이 4월17일 문화관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필요성을 밝힌후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조사도 찬반이 엇갈린 결과를 내놓고 있다. 찬성하는 이들은 문화란 넘나듦을 특성으로 하고 있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호기심만 자극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거대자본을 배경으로 한 일본의 대중문화가 우리의 전통문화를 잠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불교계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전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방영됐던 일본 만화영화 '세일러문'. 지난해 KBS-2 TV에서도 방영된 '세일러문'은 여자의 다리를 강조하고 집단적인 악행을 벌이는 등 선정성과 폭력성이 논란이 돼 방영불가판정을 받기도 했다

"인위적 억제 비현실적…문 열어야"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



해방 후 일본 대중문화 수입이 오랜 세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 이전에 식민지통치 36년이라는 뒤틀린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대중문화 개방을 반대한 이유, 특히 '한국적 미풍양식을 해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대중문화의 약폐는 마약, 동성연애가 성행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문화가 일본보다 더욱 타락적일 수도 있다.

이미 한·일 두 나라의 젊은이들은 진바지를 입고, 미국식 패스트 푸드 먹으며 같은 팝송을 즐기고 있다. 청소년이 즐기는 대부분의 대중문화에는 차별이 없다. 상업성과 편리성 등으로 세계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인이 일본문화에 쉽게 융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불교를 보기르 생각하자. 일본 불교는 AD 538년 백제에서 건너갔다. 그러나 일본 불교는 조사(祖師)신앙(종파의 교조 개인에 대한 신앙), 경문 하나, 또는 작은 분야 하나에 대한 집중력의 실천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가령 일본 천태종의 총본산 히에이산(比叡山)에는 '一隅에만 빛을 태운다'는 글귀가 거대한 비석에 새겨져 있다. 대국성을 내세우며 주관이 강한 한국적 불교와는 전혀 딴판이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의 각 분야에서 나타난다.

외래의 문화는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민족 고유의 원형에 여과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구축해 가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사실에서 일본 대중문화가 한국인 정서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제화 시대이기에 엄청난 양의 과학, 기술, 경제제도에 관한 정보가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민족 고유의 문화와 밀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문화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일은 비현실적이며, 일본 대중문화의 인위적인 억제가 자칫 한국의 폐쇄성으로 비치기도 하고, 젊은이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한다.

정식으로 수용하고 도저히 윤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미국 것, 한국 것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척도에서 선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국 대중문화의 육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거대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일본 대중문화 때문에 우리 대중문화가 충분히 육성될 때까지는 일본문화의 유입을 제한하는 일은 현실성이 있다.

국민 반일정서 감안 완전개방 무리

법현 〈천중사 부주지〉



김대중정부의 일본문화 전면개방 정책이 새삼 논란을 빚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무조건 완전개방은 현 시점에서는 무리라고 보며, 국민의 정서와 수용태세를 감안해서 준비된 계획을 보완해서 단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서울 구경을 처음 온 시골 사람이 멋있는 서울 걸음을 흉내내다가 갑작스런 충격에 놀라 넘어진 뒤 그 멋있는 서울 걸음도, 정감있는 시골 걸음도 잊어버려 제 집까지 기어서 갔다는 장자의 우화는 그런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찌 보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외환위기의 뿌리도 해방 이후 문화적 정체성을 잃은 서구 중심의 행정가들에 의해 지속되어 온 문화정책에 달아 있다는 지적도 찬찬히 곱씹어 보아야할 대목이다.

대개 하나의 문화가 다른 하나의 문화를 만날 때 처음에는 적대적이다가 중간에는 우호적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각자의 본래 모습을 유지한 채로 서로 교류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마치 사면이 거울로 둘러싸인 방에 촛불을 켜 놓았을 때 촛불이 거울 벽에 그림자로 반사되어 무수히 비치지만 어느 것 하나도 가리거나 방해되지 않은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다. 자기 문화와 다른 문화가 하나 되는 모습은 이사무애(理事無碍)한 것이며, 이 단계를 뛰어 넘어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온화한 상호작용을 놓치지 않는 교류는 사사무애(事事無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88 서울올림픽을 전후해서 우리가 많이 외치고 있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로 잘 성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대로 된 사면 거울벽을 설치하 놓기만 하면 어느 촛불을 방 가운데 놓아도 서로 걸림없이 자기 모습을 유지한 채 빛날 수 있으므로 일본 문화도 역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자기 모습을 유지한 채 우리 문화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사면 유리벽과 같은 여과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로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 싸여서 필연적으로 개방하고, 개방당해온 일본문화와 우리의 그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현재 우리 문화는 전통적인 것의 계승과 발전 모두를 놓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받아들일 때 신중히 해야 한다.

한국불교 속의 왜색문화

일련정종 · 정토진종 등 30여 종파 국내 침투 불구용품 등 왜색화 조장

한국불교에 왜색문화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은 1876년 일본이 정토진종 본원사의 별원을 부산에 설치하여 종교문화를 통한 문화침투전략을 획책함으로써 시작됐다. 한국강점 이후 한국불교에 대처승 장려등 왜색화를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으나 광복을 맞아 주춤했다.

그러나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종교의 국내 상륙이 조용히 진행되었다. 현재 국내에 뿌리를 내린 일본불교는 30여종파에 1백만명 이상의 신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련정종(일명 남묘호랑겡교), 정토진종, 천리교 등 법화 · 정토종 계통의 종단이 국내에 포교원을 건립하고 있다. 이들 일본종교들은 반일감정을 감안 공개적인 포교를 자제하면서 교리관련 자료지원, 포교자금 지원, 학술연구세미나 지원, 한국승려 및 신도 일본연수 지원 등 간접포교에 치중하고 있다.

일본불교의 확산은 불교학술 · 문화 · 출판, 불구용품 등의 왜색화를 조장하고 있다. 한국불교학의 경우 일본 불교학의 도움아래 성장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 일본의 호교적 · 자국중심적인 연구태도와 문헌비평적인 연구방법론 등이 상당부분 흡수되었다. 이로 인해 경전에 대한 체계적 · 분석적인 연구가 강조되었으나 수행 · 실천적인 해석을 간과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불교학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광복이후 일본 불교서적의 번역출판은 불교사상의 현대화와 대중화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한국불교학계의 자체적인 저술활동을 위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미술의 경우도 일본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채색시 원색계통의 색상사용, 일본 불교미술 용어의 사용 등이 그 예다. 이밖에 일본에서 직수입되어 불교용품 시장을 휩쓸고 있는 매일향 호문목 노리하시 등 일본향과 일본풍 단주와 불상, 만월등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수자령 천도(水子靈 薦度)'가 수입되어 유행중인 '태아영가 천도', 일본식 납골시설 등이 일본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범패 등 불교음악과 불교의식 부문에서는 고유의 전통문화를 원형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불교계는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여부를 떠나, 이를 계기로 불교 속에 스민 왜색문화를 파악하고, 우리 불교 고유의 전통문화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제의 황민화 정책과 일제에 야합하여 조선불교를 왜색불교로 몰고간 친일승려와 친일불교의 병근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는다면 한국불교의 발전은 막대한 장애를 면치 못할 것이다" (혜봉스님 著 〈친일불교론 · 민족사 刊〉)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김재경 기자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현대인의 건강長壽쑥뜸기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완 3개요혈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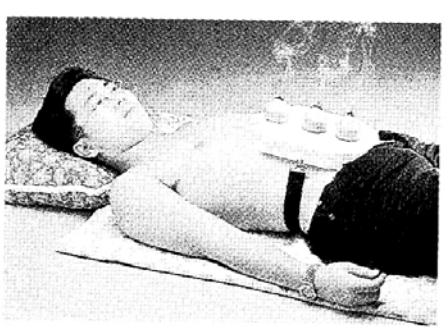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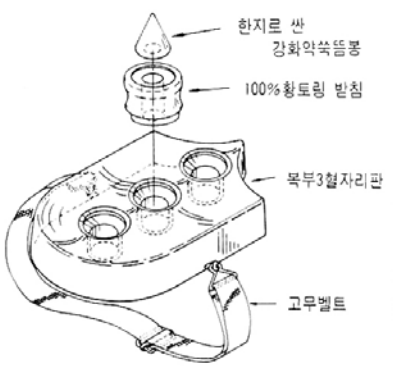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건강장수쑥뜸을 뜨게되면 유난히 많은 쑥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쑥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도 못열고 하다보니 쑥연기로 인해 쑥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 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쑥타는 흰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쑥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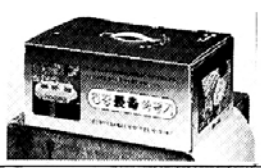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영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완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배꼽, 단전, 중완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왠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보급가격 : ₩130,000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제조원 : 성지관음회(부설: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지역문의
서울: 종로 · 서대문구(02)747-7033 송파구(02)417-8922 노원구 (02)942-6430 경남: 마산 (0551)23-9016 충북: 제천 (0443)46-3023 경기도: 광주(0347)64-3172 용인(0335)36-4294 강원도: 강릉 (0391)645-2117
부산: 연제구(보문포교원)(051)864-3740 부산진구(051)867-2926 충남: 예산(0458)33-3208 보령(0452)32-5288 경북: 울산 남구(0522)74-7536 울주구(0522)85-1284 포항(0562)75-1560 전북: 익산(0653)856-8659

종단소식

조계종

동화사 민족통일 기원



대구 동화사(주지 무공)는 4월28일 프린스호텔에서 민족통일과 대구시민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무공 동화사주지, 원명 사원련회장, 법타 은해사 주지를 비롯 문희갑 대구시장등 1천5백여명이 참석했다.

불국사 후불탱화 봉안

경주 불국사(주지 설조)는 4월26일 무설전에서 후불지장탱화 봉안식을 봉행했다. 이 지장탱화는 무형문화재 48호 이수자인 최문정씨가 제작한 것으로 가로 4m90cm, 세로 4m20cm 크기다.

마곡사 어린이집 개원

공주 마곡사(주지 철응)는 4월21일 룸비니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공주포교당내에 건립된 룸비니 어린이집은 48평에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등을 갖추고 있다.

태고종

교구 종무원장·주지 회의

총무원(총무원장 인곡)은 4월21일 서울 종무처 회의실에서 서울·인천·경기 각 교구 종무원장 및 주요사찰 주지회의를 열고, 전국 사찰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선암사 참배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또 6월29일 오후1시 중앙불교회관 설법전에서 생전 예수제를 봉행하기로 했다.

동환스님 종무원장 취임

제11대 광주·전남종무원장 동환스님 취임법회가 9일 오전 11시 광주 운천사에서 봉행된다. 동환스님은 "종무행정의 지표를 종도화합에 두고 각 사찰간의 유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천태종

중랑구사암 국태민안 기원

중랑구 사암연합회(회장 경천)는 4월24일 구청 대강당에서 국태민안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경천 삼용사 주지를 비롯 이문재 중랑구청장, 이상수 국회의원, 김정남 망우동 천주교 주임신부 등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동화사 법당 낙성식

강원도 고성군 동화사(주지 개문)는 14일 오전 11시 법당 낙성식을 갖는다.

그 동안 일반주택에서 법회를 운영해 오던 동화사는 96년 7월30일 공사를 시작해 2년여만에 1백50여평의 슬라브 단층 법당을 완공했다.

개문스님은 "마음 편하게 기도할 도량이 없어 전전하면서도 말없이 따라와 준 3백여명의 불자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진각종

심인당 4곳 주교 발령

통리원(통리원장 성초)은 4월28일 총인원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제주도 울릉도 군산 대구교구 등 4곳에 대한 심인당 주교 신규발령을 단행했다.

제주교구 식재심인당에는 원암정사, 울릉교구 총지심인당에는 상명정사, 군산교구 보덕심인당에는 효원정사 대구교구 상엄심인당에는 묘행성전수가 각각 신규발령됐다.

종암서장 취임 축하법회

진각종(통리원장 성초)은 28일 대강당에서 부처님오신날 기념 및 배성수 종암경찰서장 취임 축하법회를 봉행했다.

성초 통리원장, 일정 교육원장, 종운 해운사 주지를 비롯해 배성수 종암경찰서장과 성북구 일대 일선 파출소 소장 등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는 경찰관들이 이례적으로 직접 불교시설을 방문해 가진 법회여서 관심을 모았다.

관음종

실직자·노인 무료 급식

의정부 흥법사(주지 지섭)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실직자 및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을 확대 실시한다. 매일 2백명분의 식사를 마련, 의정부 호원동 일대 노인과 실직자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한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종교화합 나선 '스님같은 신부'

경기 광주 도척본당 방상복 주임 신부

"종교 목적은 하나"…성당서 삼배·명상

삭발·오후불식…봉축 플래카드도 걸어



◇도척성당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성당입구에 봉축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사찰순례도 실시했다.

성당에서도 절을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향을 사르고 삼배(三拜)를 하십시오" 경기도 광주군 수원교구 도척본당 방상복 주임신부(50·대건안드레아)는 성당을 찾은 신자들에게 이렇게 주문한다. 신자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절을 하고 묵상을 한다. 오히려 많은 신자들이 성당을 찾는다는 것이 성당측의 얘기다.

방상복신부는 지난해 6월 성당의 내부를 새로 꾸몄다. 긴의자를 없애고 온돌마루로 개조한 것이다. 그리고 성자·성부·성신을 받드는 의미에서 삼배를 권했다. 이처럼 방신부가 성당의 기존 이미지를 바꾼 것은 고유한 전통문화속에 종교가 융합하는 것이 정서에 맞을 뿐 아니라 종교의 본래 역할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다는 그의 지론 때문이다.

불교가 가장 한국적인 종교다라고 말하는 방신부는 인근 사찰과의 교류는 물론 지난해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입학해 불교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졸업을 앞두고 '그리스도교의 하느님과 불교의 니르바나'라는 주제의 논문도 준비하고 있다. 방신부는 "하나님의 성령과 니르바나의 절대적 존재가 둘이 아니라는 류영모선생의 사상에 심취해 논문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삭발에 개량한복을 입고 오후불식 등 개인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방신부는 앞으로 불교의 실천수행도 체험해 보고 싶다고 말한다. 그 첫번째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참선수행이다. 때문에 주위에선 그를 '스님같은 신부'라고 말할 정도다.

특히 도척성당은 올해 처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함께하는 의미에서 구인사 사찰순례 및 봉축플래카드를 내걸어 주위의 눈길을 끌었다.

방신부는 "종교란 궁극적인 목적에선 하나다"며 "각 종교간의 화합을 위해서는 성직자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광주=김중근 기자



동국대 1012명 수계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불기 2542년 '전 동국인 춘계 수계 대법회'를 28일 중강당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학생·교직원 1천12명이 5계를 받았다.

btn 하이텔서 문자방송

뉴스등 프로그램 서비스

'btn뉴스' 등 불교TV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컴퓨터통신으로도 볼 수 있게 됐다. 불교TV는 (주)경영소프트의 빠른손워드를 이용해 4월20일 컴퓨터통신 하이텔 한국문자방송방에 불교방송란을 신설했다.

불교TV 문자방송을 이용하려면 하이텔 통신망에 접속해 'GO KCB'를 입력한 후 다시 'btn'을 선택하면 된다.

'종교언론인회' 창립

5대종교 언론인 참여…종교갈등해소 등 활동

한국종교신문언론인협의회 창립 심포지엄이 2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일영 샬롬유스호스텔에서 열렸다. 이자리에는 김몽은 한국종교인협의회장 이길용 문화관광부 종무실장을 비롯하여 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천도교등 5대 종교 언론인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병조 동국대 부총장은 '종교언론의 역할과 과제'를 통해 "종교간의 대화를 통해 종교가 사회에 환원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종교언론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종교신문언론인협의회는 창립을 기하여 △종교간의 대화와 갈등해소 △현대사회 제문제 해결에 앞장 △IMF위기극복 및 대안제시 △열린사회 공동체 형성에 앞장선다는 '우리의 다짐'을 채택했다.

개발에 몸살 앓는 경주

사전조사 않고 공사…유물 80~90% 파괴

흥륜사지, 삼랑사지 등 경주지역의 문화재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도보존 및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주대 정현교수와 동국대 안재호·김상묵교수가 4월16일 발표한 '경주의 문화재 및 주민피해 실태분석'에 따르면 84년부터 96년까지 경주에서 실시된 65건의 발굴조사 중 학술조사의 성격을 띤 것은 12건뿐. 나머지 53건은 대부분 사전조사없이 공사가 강행돼 유물이 공사중에 발견됐으며, 이중 80~90%는 파괴됐다는 것이다. 또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유적지는 도로 택지조성 관공서 학교 등이 들어서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

특히 최근 경주시민 5백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2%가 현재 경주지역의 문화재보호와 관리실태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문화재보존과 관리로 인해 시민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응답자도 63.5%에 달했다.

경주서 범자문 벽돌 발견

신라-인도 교류 입증자료

경주 소재 전탑지(塼塔址)에서 인도와의 교류를 시사하는 범자문(梵字文)벽돌이 처음 발견됐다.

당초문이나 불상, 탑이 아닌 범자문이 재경진 전탑벽돌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박홍국(前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씨가 경주시 덕동 동대 봉산 중턱에서 발견해 학계에 보고했다.

실물은 물론 문헌에도 기록돼 있지 않은 특이한 예이다.

황수영 前 문화재위원장은 "벽돌의 양식으로 볼 때 통일신라시대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도와 통일신라의 직접적인 문화교류를 입증하는 귀중한 발견"이라고 밝혔다.

동화사 통일기원 민·군 법회

민족통일을 발원하는 민·군 합동대법회가 25일 팔공산 동화사 통일대전에서 봉행됐다.

부처님오신날 대구봉축위원회가 주최하고 동화사가 주관한 이날 법회에는 2군사령부 50사단 K2 5군수지원사령부등 대구지역 4개 군부대 장병불자들과 가족, 동화사 사회국장 선종스님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민군합동법회는 96년까지 2군사령부 무열사에서 수계법회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나 작년부터 동화사에서 봉행되기 시작, 장병불자들은 2년여의 군복무기간동안 지역교구본사인 동화사를 방문하여 민간인들과 함께 합동법회를 볼 수 있게 됐다.

장병불자들은 1부 법회에 이어 환경보존을 위한 경내 대청소도 실시했다. 한편 2군사령부에는 무열사(이치영법사)가 50사단에는 호국심련사(정보봉법사)가 K2공군기지에는 승무일승가(허현구법사)가 5군지사에는 원광사(최영환법사)가 있다.

3사 충성대 호국사

삼존불 탱화 봉안식

영천 제3사관학교(교장 이종간) 충성대 호국사(법사 이종인)는 4월24일 삼존불 및 후불탱화 봉불점안식을 봉행했다.

호국사는 이날 5자반 크기의 석가모니 청동좌불과 좌우보처로 관음보살 및 지장보살 좌상을 점안했으며 가로 22자 세로 9자 크기의 후불탱화와 신중탱화등도 봉안했다.

이번에 봉안된 불상과 탱화는 심우회 이지성심보살 〈관련 인터뷰 4면〉과 회원들이 시주한 것이다.

호국사는 1백8평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지어 법당으로 사용해오다 작년 5월 12억2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착공,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점안식만 앞당겨 봉행했다.

2층법당 1백80평 1층 부속실 70여평등 연건평 2백50여평 규모의 호국사는 조계종 대구경북 5개교구본사를 주축으로 96년 10월 결성된 호국사법당불사추진위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금어 우일스님 입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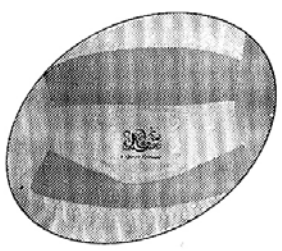
금어 우일스님이 4월24일 입적했다.

세수 89세, 법납 70세. 1929년 공주 갑사에서 월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우일스님은 조선후기 최고의 금어였던 보응스님과 일섭스님에게 불화를 배우고 지금까지 수덕사 범어사 등 수많은 사찰의 탱화 단청 불상 봉안 등 불사를 해왔다.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자연향) 테크팬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향비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사례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채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서초구 김미선)

상담실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혀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담담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기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생활역학 및 사주 명리학 강좌

수강생 모집

●교재- 사주정해 1권·2권
저자 최 학 림

본 학림학당에서 드디어 저자 최학림 스님께서 강좌를 개설하여 기초부터 완성까지 직접 책임지도함. 시간과 좌석 관계로 선착순 모집합니다.

※ 본교재 사주정해 1권·2권은 원광대학교 역학교재로 사용되고 있음.
※ 스님들은 특별지도합니다.

● 개 강 일 시 ●
1998년 5월 12일 화요일 오후 1시

● 기 간 ●
6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주1회)

※ 강의날짜와 시간은 수강생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삼성빌딩 204호
(봉은사옆)

학 림 학 당
전 화 : 02)549-7228~9
011)764-7221
0371)731-9651

東洋哲學 集大成
사주박사 v5.0 for windows
사주박사

◆ 동양철학의 주체성, 학문성, 논리성과 컴퓨터의 정확성의 만남
◆ 선도정보통신(주) 부설 한국민족문화연구소의 <사주박사> 시리즈

지난 7년간 동양철학의 학문적 우수성을 입증함은 물론 수많은 임상실험에서의 높은 적중률로 역학의 체계화에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았습니다.

이제 그 사주 박사 시리즈 외 신작!
'98 <사주박사 v5.0 for windows>를 특별보급가에 만나십시오.

● 모든 작동법이 한글로 안내되므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주, 사주원국, 종합해설, 행운, 대운, 세운, 육효, 척전즉시운, 택일, 궁합, 만세력, 성명학, 귀곡산명술, 기문문갑, 오운육기, 당사주, 자미두수, 토정비결
● 〈사주박사〉의 절정 〈평생책자〉

· 특별할인 보급기간 : '98년 5월 ~ 98년 5월 31일까지
· 정 가 ;
<사주박사 v5.0 전문가용> 150만원, 특별할인가 79만원
<사주박사 v5.0 평생책자> 300만원, 특별할인가 150만원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9-6 평화B/D 7층
· 연락처 : 02)522-3268 · FAX : 02)522-3263

금산사 미륵성지로 성역화

19일 개산 1400주년 불사추진위 발족
미륵십선운동 · 인터넷 개설 · 학술회등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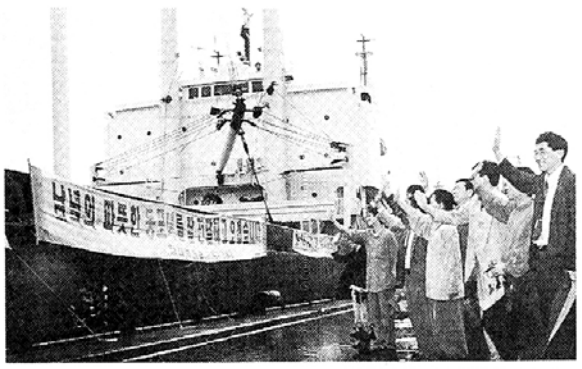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가 99년 5월 1일(음력) 개산 1400주년을 앞두고 미래 불교문화 대중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나섰다.

금산사는 19일 '미륵성지 금산사 개산 1400주년 기념불사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시작으로 2년여동안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금산사의 개산기념 주요불사는 기념법회 · 학술사업 미륵십선운동 등 7개분야 30여가지.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미륵십선운동. 금산사는 매년 동 · 하계 미륵십선수련대회를 개최해 미륵문화학교를 상설화한다는 계획이다. 수련회는 십선강연 십선수계식 미륵문화기행 등으로 진행되며 스료자를 중심으로 미륵십선회를 조직한다. 이는 미륵신앙 정착을 통한 도덕성 회복운동의 일환이다. 또 미륵신앙의 체계화를 위해 미륵사상연구원을 설립하는 한편 매년 10월 '금산사와 미륵신앙' 등 미륵사상 관련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를위해 금산사는 보제루를 보수, 금산사의 역사교육장 및 십선운동 교육 십선회 수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념관을 19일 개원한다. 이밖에도 금산사 미륵성지 복원을 위해 방등계단 성역화, 익산 미륵사지 복원 탑돌이법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금산사 개산' 1400주년인 99년에는 '금산사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갖고 개산기념대법회를 비롯 점찰법회, 육운법회, 예술공연 등 각종 기념행사를 갖는다.

또 금산사는 중창조 진표율사 생가 수행처 전법처 성역화를 비롯 본 · 말사 사지 및 성보화보집 발간, 승 · 의병 천도재, 성보박물관 · 사적비 · 기념범종 건립, 인터넷 개설, 소식지 발간 등의 사업도 펼친다. 〈김중근 기자〉



자비의 곡물 북으로…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총재 월주)는 2일 인천항 부두에서 출항기념식을 갖고 북한 남포항으로 출발하는 배편으로 1억원 상당의 밀가루를 조선불교도연맹에 지정 기탁했다. 효림스님을 비롯한 50여명의 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출항기념식에서는 기념법회에 이어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한국불교계의 메시지'가 낭독됐다. 북한 남포항에는 물추위 유지원 사무총장이 인도인수요원으로 배석했다.

"어른 공경합시다"
교계복지관 어버이날 경로잔치등 잇달아

어버이날을 앞두고 교계 복지법인을 중심으로 경로잔치가 잇달아 준비되고 있다.

목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어버이날을 기념해 7일 오후 1시30분 복지관 강당에서 효도 큰잔치를 연다. 지역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초청, 노래자랑 음식대접 아동재롱잔치 놀이마당 등을 펼친다.

대전 서구노인종합복지회관(관장 도영, 금산사 주지)도 같은 날 오전 10시 복지회관 강당에서 8백여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맞이 경로대잔치를 연다. 신파극 '불효자는 웁니다' 상영과 가요 민요 시조 건강무용 고전무용 발표회, 초등학생 찬조출연 등으로 진행된다.

경불련 자비의집(회장 동광)도 7일 오전 11시 우이동 솔밭공원에서 그동안 밑반찬 서비스를 실시해 온 미아 · 상계 · 중계동 등 서울지역 6개동에서 3백50명을 초청,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연다. 국악공연 노인노래자치 밴드공연 등으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보해양조(주)가 후원한다.

또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은 4일 오전 11시 어버이날 행사를 갖고, 8일 당일 무의탁노인과 생활보호대상 노인가정을 방문, 선물을 전달한다.

이에앞서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과 연꽃마을 용인양로원(원장 각현)은 4월30일, 2일 각각 노인잔치를 벌였다. 용인양로원은 지역노인 2백여명을 초청해 잔치를 즐겼다.

'종교교도소'가 생긴다

기독교단체 법무부와 협의 '성사단계'
불교 교정교화단체 통합등 서둘러야

최근 기독교계가 '기독교교도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교계도 재소자 교화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불교교도소' 추진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4월26일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4월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선을 지시한 '교도소 과밀 수용 대책'과 관련 재소자의 과밀수용문제를 해결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종교단체 등에 교도소 운영을 허용하는 민영교도소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기독교교도소' 운영을 추진중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지덕, 강남제일교회 담임목사)측과 이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이미 기독교교도소 건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우선 법무부와 협의, 교도소 건물 중 하나를 맡아서 운영한 뒤 기독교교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제1호 민영교도소는 기독교교도소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비해 불교계는 재소자 교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반면 '불교교도소'를 운영하기 위한 준비는 전무한 상태. 특히 불교계 전체가 망라된 재소자 교화조직을 갖추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전국교도소재소자교화후원회'(회장 삼종), '전국교도소 교정교화 불교지도자 협의회'(회장 현성) 등 4개 단체가 활동중이다.

따라서 늦었지만 정부의 종교교도소 도입에 발맞추어 '불교교도소' 추진에 나서기 위한 불교교화조직의 통일과 종단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도소불자교정인연합회 오희창 회장은 "늦었지만 불교계도 포교차원에서 스님 · 불자들의 조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탁소리

불교교도소 가능한가

김 재 경 〈취재1부 기자〉

최근 기독교계가 '기독교교도소'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은 재소자 교화에 노력하고 있는 불교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한 명의 중생이라도 지옥에서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의 원력을 실천하는 스님들이 타종교에 뒤지지 않는 교화사업을 추진해 왔음에도 기독교계가 먼저 종교교도소 건립을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3년 법무부가 재소자교화에 종교인의 기여가 크다고 판단해 실시한 '종교교화위원제도'가 생긴 이래 전국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39개 교정시설에서 4백여명의 불교교화위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소자 포교에 큰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가 종교교도소를 먼저 추진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관계자들은 기독교의 단일한 조직과 풍부한 재원을 중요한 자산으로 꼽고 있다. 20년전부터 '교정교화는 기독교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문장식목사의 선언처럼 교도소 전도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찍부터 심혈을 기울인 결과이기도 하다.

불교계는 교정교화조직이 단일화되지 못해 조직단위의 행사보다는 스님 개인의 원력으로 교화불사에 앞장섰던 것이 사실이다. 분산된 힘을 모아 조직적인 교화사업을 펼치지 못하다 보니 '불교교도소'와 같은 많은 인력과 재원이 소요되는 큰 불사는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경주 불교사회연구원(원장 돈관)이 지난 4월13일 경주 원효사에서 기공식을 갖기로 한 춤소자 갱생생환관 '불광원'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분간 연기된 것도 재소자 교화사업의 경험미숙을 보여주는 한 예다.

그러나 기독교 · 천주교는 이미 갱생보호복지시설을 여러곳 운영하고 있는 상태. 기독교는 서울 남안선교회 등 6곳, 천주교는 대구 출소자의집등 2곳을 법무부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사설갱생보호소는 이보다 많을 것이란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교도소 포교의 새 시대를 열 준비가 시급하다.

포교사 전문화 워크숍
조계종 15일까지 참가접수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성타)은 전문포교사 양성과 포교사단 조직정비를 목표로 포교사 워크숍을 실시한다. 워크숍은 전체 숙박교육과 분야별 교육, 현장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워크숍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전체숙박교육은 30일~31일, 올림픽파크텔 △어린이 · 청소년 · 대학, 경찰 · 교도소 분야는 6월 20일~21일 화성 신흥사 △사회복지 · 자원봉사, 직장 · 사찰 · 기타 분야는 6월 27일~28일 화성신흥사. 포교사단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포교사를 분야별 소단위 조직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또 포교사단이 운영하고 있는 포교센터를 통해 이들을 필요로 하는 현장에 우선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포교사단은 15일까지 워크숍 참가자 접수를 받는다. (02)720-7060

사찰 · 신행단체들 교도소 · 군부대등 위문
부처님오신날 '자비 손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위한 행사가 4월부터 전국에서 펼쳐졌다.

백련장학회는 6일 청송교도소에서 노인재소자 위안잔치를 개최한다.

오산봉축위원회는 3일 시민회관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 한마당을, 천안사암연합회는 2일 제3탄 약칭에서 불자장병위문법회를, 예산 수덕사는 2일 서산 해미공군부대에서 군장병 및 전투경찰 위문법회를, 태고종 강원종무원은 4월 28일부터 3일까지 소년원 교도소 군부대를 비롯 복지시설을 방문, 위문법회를 봉행하고 위문품을 각각 전달했다.

상주시봉축위원회는 1천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책정하고 1일 전달했다. 이날 봉축위는 관내 장애자 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 42명에게 백미 떡 성금 등을 각각 전달했다.

제주 서귀포시 탁발봉행위원회도 1일 불우이웃을 위한 자비의 탁발을 실시했다. 수익금 전액은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액 전달될 계획이다.

불교귀농학교 64명 이론수료
5일부터 실상사서 실습

불교귀농학교 이론교육 수료식이 4월26일 사회복지재단 강의실에서 개최됐다. 귀농학교장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 사회국장 종서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수강생 64명 전원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불교귀농학교는 이론교육에 이어 5일~11일, 6월 5~11일 실상사에서 2차에 걸쳐 실습교육을 갖는다. 농장의 수용규모가 20명이어서 모두 40여명이 실습에 참여할 예정이다.

귀농학교는 6월말경 제2기 불교귀농학교도 개설할 예정이다. 또 22일경에 불교계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스님과 관련단체장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9월경에 농림부등 정부당국과 귀농 · 환경관련단체, 교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심포지움도 열 계획이다.

불교귀농학교는 사찰인근에 '귀농 공동체마을'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2천만원의 농촌정착기금을 대여받을 수 있는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하는 문제를 농림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뉴스 & 뉴스

'실업자위한…' 불교포럼

새불교전국승가회(공동회장 지관 · 석담)는 14일 오후 5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실업자를 위한 불교프로그램 연구'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는 박경준 동국대학교 교수와 김민영 참여연대 정책실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아동홈 '행복한 집' 개원

노인복지를 전문으로 해 온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스님)이 첫 아동복지사업으로 1일 수원시 정자동에 소재한 아동 그룹홈 '행복한 집'을 위탁받아 개원했다.

38평형 아파트에 꾸며진 '행복한 집'에는 소녀가장(평균연령 10세) 6명이 비구니스님(정석스님) 1명과 보육사 1명의 도움으로 가정과 같은 단란한 분위기 속에서 고3까지 보살핌을 받는다. 시설비는 수원시에서 지원하고 운영비는 연꽃마을이 부담한다.

해인골프장반대 '한마당'

가야산국립공원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4월 29일 '세계 골프없는 날'을 맞아 대구백화점 앞에서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시민한마당을 개최했다.

범대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해인골프장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확정판결을 내린후 국민대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재개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김대통령은 해인골프장 백지화 공약을 이행할 것 △정부는 가야산 국립공원을 위협하는 개발사업을 중지할 것 등을 촉구했다.

'불자역할' 공개토론회

대구 경실련 불교시민회(회장 강인성)와 불교대구방송(사장 법타)은 20일 오후 7시 대구 흥사단 강당에서 '불교계의 개혁을 위한 불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종웅(경산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며 전영평 대구대교수 대구청년승가회장 동진스님 김봉규 영남일보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훈할머니 영구귀국

훈 할머니가 1일 오전 7시 25분 김포공항을 통해 영구귀국했다. 나눔의집 원장 혜진스님과 나눔의집 할머니들의 환영을 받은 훈할머니는 은해사 부설 백천사회복지관(관장 설송)의 도움으로 경북 경산시내 백천동의 한 임대아파트에 정착하게 된다.

외국인노동자 하루출가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이사장 영담)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5부터 26일까지 양일간 화성 신흥사에서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하루출가수련회'를 가졌다.

수련회에는 1백20여명의 외국인불자노동자가 참여했다.

건강보조식품허가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 솔선식(松仙食) 시판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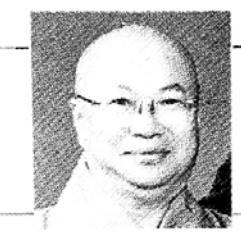


선(仙:神仙)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추드름(常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에 물(水) · 불(火) · 흙(土) · 쇠(金), 네 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 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 소멸하여 자식격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東방(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나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儀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랑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민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 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어온 토송자 소나무능장주가 이번에 힘을 합해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종합영양강정(强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 · 솔순 · 솔씨방 · 솔마디 · 송화가루 · 송진 · 송근백피 · 송목피 · 송이버섯 · 백봉령 · 적복령 · 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당귀 · 감초 · 표고버섯 · 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 · 기(氣) · 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 종합영양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다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후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96.57796호(솔효소정액)96.5587(솔선식), 98.3.31(건강보조식품 허가) 앞으로 기적의 우리 소나무 종합강정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
원액 2,800㎖(700㎖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허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환약 1개월분
정가 ₩700,000원(허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

◐ 구입문의 (대구) : 053)628-9145 / 053)655-2227 /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 대구여래한방

미륵성지 금산사 개산 1400주년 기념불사 추진위원회 출범식

2542('98)년 5월 19일 오전 10시 30분, 금산사 경내

미륵, 금산사 그리고 깨달음의 전법!

출·범·식·행·사·일·정

제1부 1400주년 기념관 개관식
제2부 기념불사추진위원회 출범식
제3부 출범식 축하공연
제4부 기자간담회

불·사·내·역

1. 1400주년 기념사업	① 개산 기념대법회(개산대제)	② 기념범종 불사
	③ 기념불사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회향식	④ 1400주년 성보박물관 개관
	⑤ 1400주년 기념관 건립	⑥ 방등계단 성역화 불사
	⑦ 사적비 건립	⑧ 융명화상 기념사업
2. 학술 · 이론 사업	① 학술회의	② 금산사 본 · 말사 사지
	③ 본 · 말사 성보 화보집	④ 미륵사상 연구원 개원
3. 미륵십선 운동	① 미륵십선수련회	② 미륵십선회 조직
4. 통일준비 사업	• 발연사 복원 기금조성(통일기금)	
5. 지역관련 사업	① 지역불교사업 • 진표율사 기념사업 • 우리지역을 빛낸 불교인 선양 • 미륵사지 복원을 위한 탑돌이 법회	
	② 지역사회사업 • 승병 · 의병 천도행사 • 뇌묵처영 기념사업 • 지역특산물 판매 • 지역문화행사(풍남제, 벽골제) 참여	
6. 홍보사업	① 상징, 로고, 캐릭터 개발	② 기념품 개발
	③ 홍보시설 및 인쇄물	④ 달력제작
	⑤ 인터넷 개설	⑥ 소식지
	⑦ 언론홍보	
7. 금산사미래비전 21	• 금산사의 발전 청사진 수립	

미륵성지 금산사 1400주년
기념불사추진위원회
TEL 0658-548-4440~2 / FAX 0658-548-1390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39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우편번호 576-960

조·직·명·단

증 명: 월하 · 서옹
고 문: 관응 · 고송 · 혜암 · 원담 · 벽암 · 석주 · 운경 · 비룡 · 응담 · 도천 · 도견 · 지증 · 청하 · 일타 · 성수 · 정영 · 숭산 · 탄성 · 종산 · 보성 · 정천 · 법전 · 녹원 · 도원 · 범행 · 고산 ·
회 주: 월주
자문위원: 광덕 · 지관 · 월문 · 우룡 · 법정 · 이두 · 혜정 · 월상 · 월서 · 월탄 · 정일 · 삼조 · 월응 · 천룡 · 월국 · 엄암 · 정대 · 증하 · 태웅 · 암도 · 성타 · 무진장 · 설정 · 지하 · 청휴 · 오한 · 근일 · 현호 · 무비 · 홍교 · 지성 · 원명(통도사) · 인환 · 원산 · 각성 · 현성 · 정관 · 현근 · 정락 · 도후 · 현해 · 혜광 · 철웅 · 법장 · 성덕 · 법타 · 성법 · 철형 · 성오 · 지은 · 법조 · 지선 · 증열 · 현고 · 천운 · 중원 · 세민 · 월운 · 혜산 · 무공 · 진철 · 성피 · 문인 · 벽파 · 재곤 · 환주 · 월운 · 삼덕 · 광무 · 진관 · 상륜 · 법준 · 경순 · 명성 · 묘엄 · 태경 · 혜일 · 서돈각 · 한상법 · 황수영 · 고은 · 송석구 · 서석재 · 박상규 · 박철언 · 권익현 · 김명윤 · 김태호 · 권노갑 · 한갑진 · 조중훈 · 엄상호 · 신낙균 · 허경민 · 유증근
지도위원: 청화 · 법등 · 일면 · 정무 · 장윤 · 각현 · 철우 · 무학 · 선봉 · 성우 · 법혜 · 영담 · 성문 · 성오 · 정우(금강사) · 선응 · 무상 · 진관 · 동명 · 영환 · 덕상 · 지원 · 화범 · 진아 · 지은 · 종림 · 현진 · 진만 · 영조 · 증광 · 정인 · 인행 · 지운(백양사) · 원명 · 지홍 · 법성 · 진현 · 공묵 · 지만 · 여연 · 부동 · 현소 · 장곡 · 영진 · 수진 · 현봉 · 수완 · 대원 · 석호 · 세영 · 혜관 · 명관 · 법일 · 법인 · 정념 · 성혜 · 법각 · 원타 · 정연 · 현문 · 덕운 · 관조 · 혜송 · 법달 · 종성 · 법성(직지사) · 의룡 · 범하 · 천제 · 장산 · 인걸 · 법보 · 보선 · 수경 · 도진 · 원룡 · 혜창 · 원우 · 재원 · 설송 · 원학 · 능근 · 영배 · 성광 · 향적 · 월원 · 원혜 · 혜담 · 연관 · 도형 · 현응 · 종진 · 재훈 · 청강 · 자광 · 성진 · 지성 · 지원 · 대우 · 혜원 · 희정 · 청운 · 정현 · 효림 · 무관 · 지욱 · 지운(송광사) · 지안 · 통광 · 대각 · 혜권 · 진허 · 인각 · 무여 · 원응 · 보인 · 법경 · 철우 · 도일 · 현각 · 법산 · 보광 · 도업 · 성본 · 호진 · 종법 · 종석 · 홍선 · 보각 · 각진 · 능인 · 태원 · 성천 · 종상 · 성본 · 현중 · 영관 · 진광 · 성비 · 진원 · 지공 · 지원 · 성정 · 자승 · 영하 · 법현 · 범어 · 법운 · 지원 · 자민 · 법성 · 영안 · 정덕 · 정법 · 성우 · 청성 · 영우 · 계환 · 대행 · 수현 · 법응 · 재운 · 일법 · 육문 · 지홍 · 본각 · 홍륜 · 진성 · 해주 · 지형 · 일연 · 현우 · 묘순 · 혜원 · 대원 · 혜도 · 성낙승 · 김광삼 · 정병조 · 조희영 · 김영태 · 홍윤식 · 연기영 · 강건기 · 박광서 · 남지심 · 명호근 · 이재훈 · 안동일 · 김재일 · 박상길 · 이희응 · 윤청광 · 이상대 · 임완숙 · 고우익 · 정한응 · 추미애 · 강부자 · 김응림 · 김종명 · 최순식 · 이동호 · 정인갑 · 김백호 · 박순호 · 곽인희 · 임영환 · 이정규 · 이철수 · 신영복
추진위원장: 도영
추진부위원장: 도원 · 지명
추진위원: 항봉 · 드오 · 도일 · 지광 · 도선 · 현광 · 광중 · 경원 · 관법 · 일원 · 일우 · 법우 · 성우 · 일회 · 방착 · 원허 · 원웅 · 원증 · 성룬 · 법광 · 원응 · 화광 · 덕기 · 대화 · 일행 · 덕림 · 덕장 · 덕해 · 덕심 · 덕운 · 영진 · 법진 · 법능 · 진혜 · 광진 · 혜전 · 우진 · 관성 · 창업 · 대휘 · 혜광 · 관진 · 대진 · 원성 · 원묵 · 원정 · 중묵 · 신묵 · 선묵 · 성묵 · 도현 · 보산 · 석초 · 석성 · 산성 · 아정 · 선옥 · 재근 · 법능 · 성학 · 송곡 · 월정 · 동수 · 도웅 · 도륜 · 자일 · 계수 · 지홍 · 법현 · 지원 · 보광 · 각웅 · 진응 · 덕운 · 정도 · 해운 · 성화 · 혜우 · 대지 · 도상 · 정중 · 삼혜 · 대원 · 도정 · 백운 · 원공 · 우성 · 혜공 · 혜초 · 법중 · 일돈 · 법현 · 법륜 · 관정 · 원일 · 광석 · 의성 · 경심 · 삼명 · 승원 · 초의 · 회선 · 법원 · 혜담 · 원각 · 만우 · 진견 · 영상 · 학명 · 혜전 · 현수 · 현보 · 능화 · 지덕 · 도현 · 지산 · 화정 · 각우 · 진법 · 자홍 · 혜공 · 제환 · 석중 · 정심 · 관주 · 경법 · 도상 · 관정 · 혜전 · 심성 · 회선 · 일현 · 성본 · 화업 · 설업 · 덕신 · 현오 · 관허 · 성인 · 각현 · 명월 · 심호 · 승랑 · 신영 · 일주 · 석호 · 효성 · 성지 · 자성 · 원공 · 월 · 혜안 · 일연 · 혜성 · 명경 · 성오 · 삼진 · 지상 · 원상 · 혜진 · 현상 · 영명 · 정인 · 태화 · 선빈 · 법등 · 혜광 · 법규 · 도신 · 일상 · 도환 · 정진 · 서담 · 일오 · 일관 · 도림 · 지성 · 지원 · 덕원 · 성진 · 지웅 · 권희선 · 김태진 · 남궁선 · 최락운 · 이강녕 · 오중근 · 김광식 · 이응의 · 박홍기 · 최병익 · 고정관 · 이강국 · 최진호 · 김진국 · 조경상 · 박종율
집행위원장: 도법
집행부위원장: 탕상 · 원행
사무처장(진오) · 총무부장(덕산) · 조직부장(지장) · 홍보부장(회일) · 호법부장(원성) · 미륵십선운동분과(각진) · 지역사업분과(견진)
학술 · 이론분과(김상영) · 기념대법회분과(진철승)
사무처 : 이천일 · 김고림 · 김형문 · 이정호 · 이일향



PCS 016을 쓰시면 1년에 20만원이상 절약됩니다.

오래 쓰시면 추가로 최대 20%까지 할인됩니다

이용기간	1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할인율	5%	10%	15%	20%

번호를 지정하시면 20%가 더 할인됩니다
3개 번호까지 자주 쓰는 번호를 지정하시면 그 번호의 통화요금은 20%이상 할인됩니다.
(월사용료 2,000원 별도)

PCS 016의 표준요금

구분	요금
기본료(월)	18,500원
통화료(10초당)	현장(19원) · 할인(15원) · 심야(10원)

소리가 보인다
PCS 016

부처님 오신날
PCS 016「특별할인판매」

「부다피아 포교기금」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우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할인판매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스님, 종무원, 재가신도

가격 5만원부터(가입비 별도)

"PCS 016가입시 현대불교신문의 「부다피아 포교기금」으로 가입하신 고객은 통화료의 5%를 추가로 할인받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다피아 포교기금은 배당되는 통화료 수익금을 통일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기 때문입니다."

신청서 접수처
우편번호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부다피아 포교기금」
☎ 02)732-1522 FAX. 02)737-0697

■ 주관 : 현대불교신문사(02-732-1522) ■ 후원 : 한국통신프리텔, 우리민족돕기불교운동본부, 소찍새마을, (사)감로심상회